

전략연구 2019-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연구

연구책임 : 이상준 책임연구원

유예나 연구원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으나, 산업발전 등과 연계한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 일부 도시지역 중심의 인프라 확충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즉 생활 SOC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G20 국가 중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철도연장 6위 등 기간시설의 확충 수준은 높은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 약 6달, 실내체육관 1개소당 서비스인구 6.2만명(일본 1.5만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산으로 기간시설 위주가 아닌 사람과 지역을 우선시 하는 생활 SOC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생활 SOC 확충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 전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생활 SOC는 일부분일 뿐 실질적인 생활 SOC 확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생활 SOC 추진계획”이 2019년 기준 약 4.1조 원(총 8.6조원) 규모로 추진되기 있으나, 공급의 효율성이나 예산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인구 및 시설 밀집도가 높은 기존 중심지역에 편중되고, 지역 단위의 분석 한계로 인해, 국가 기준에 대해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분석이 아닌 직선거리 분석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취약지역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생활 SOC 정책과 연계하여 충남의 생활 SOC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첫째, 현재 충남의 생활 SOC 유사시설의 공급 및 이를 통한 생활서비스 전달 수준을 분석하여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둘째, 지역에 대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서비스 공급 및 전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충청남도는 생활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06건, 4조 3,076억원(2019년 4월 기준)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10대 중점투자시설(작은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주거지주차장 등)에 22건(신청 총사업비 2,545.11억원)을 신청하였다.

충청남도 생활 SOC 관련 취약지역 도출을 위해, 먼저, 생활 SOC 시설 유형별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분석기준을 고려한 지역 내 생활 SOC 유사시설의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첫째, 생활 SOC 시설 유형별 분석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시한 공급기준과 최소기준을 기준으로 실제 지역 인구규모를 고려한 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마을(도보) 권역에 포함된 작은도서관은 7.6천명의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분(500m) 내 시설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마을)은 2km 내 유아인구 500인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5분(250m)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거점(차량) 권역에 포함된 가족센터와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는 시설 수를 기준으로 10~20분(4~8km), 국공립도서관은 4.3만명의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분(4km), 국공립어린이집(거점)은 2km 내 유아인구 1,500인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5분(2km), 체육시설은 배후인구 4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10분(4km)를 취약지역 도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충남 생활 SOC 유사시설의 취약지역 분석은, 10대 중점투자시설에 속하고 충남에 설치된 생활 SOC 유사시설을 중심으로 분석기준에 따라 교통접근성과 인구규모를 고려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분석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①생활 SOC 유사시설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기준에서 제시된 시간과 거리 기준에 대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과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선거리 분석에서 생활서비스 공급지역으로 포함된 지역도 실제로는 지형이나 교통체계 등으로 인해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생활 SOC 유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모두가 취약지역이 아닌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물리적 취약지역(인구규모 충족지역)과 서비스 수혜 취약지역(인구과소지역 등)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②연접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이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연접지역의 경우 시·군 내 생활 SOC 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인접한 타 시·군 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③2019년 생활 SOC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든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일부 시설은 취약지역 개선이 도움을 주는 반면에, 일부는 복합화로 인해 일부는 중복되지만 생활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④민간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서비스 분석의 필요성 인식이다. 10대 중점투자시설 같이 국가 지원 대상만을 분석할 경우 이들을 보완하여 지역에 관련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의 생활서비스 전달력을 제외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분석할 경우 영유아 밀집지역의 일부나 일반 읍·면소재지 일부가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민간어린이집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충남 생활 SOC 서비스 전달 개선방안

충남 생활 SOC 도입과 관련한 공급 방안 개선,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생활 SOC 도입 및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생활 SOC 도입 및 공급을 위한 계층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계층화 전략은 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생활 SOC 도입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거점성이 높은 중심지역

(동·읍소재지 등)과 배후지역(일반 읍·면지역, 마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도입가능한 생활 SOC 유형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는 제시하였다. 둘째, 생활 서비스 수혜 수준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이 필요하다.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이나 지역 맞춤형 공급을 목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생활 SOC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균형적 공급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생활 SOC 이용성 제고를 위한 도로 연계성 제고, (대중)교통체계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며, 민간시설을 포함한 생활서비스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생활서비스 수혜도 제고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생활서비스 관련 시설 확충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생활 SOC 신규사업 확대 및 복합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계·협력을 통해 시설 공급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연결지역 등을 포함한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유형과 형태, 기능 간 복합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체측면에서 공공만이 아닌 민간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시설적으로도 다양한 관련 시설들이 복합화되고 이를 통해 시설 간·기능 간·사람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설 공급의 효율성, 향후 이용성 및 확장성 등을 도모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활 SOC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단계적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지역 위계를 고려한 생활 SOC 도입 및 공급전략과 맞물려, 중심지역에 입지한 생활 SOC와 배후지역에 입지한 생활 SOC 간 단계적인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심지역 내 광역의료서비스시설(보건소,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배후지역 내 작은 거점시설(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마을(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관련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생활 SOC 시설에 대한 이용성 제고

를 위해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다양한 교통수단의 도입, 인접 시·군과의 교통체계 연계 방안 등이 함께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생활 SOC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먼저 생활 SOC 확산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서간 합의가 선행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 공동체활동과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위계에 따른 자연스런 생활 SOC 확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예, 고령자공동생활홈+건강센터 등)을 생활 SOC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생활 SOC 지원방안 개선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 방식이 아닌, 생활 SOC 시설이 요구되는 지역 내 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전문가 지원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생활 SOC 정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생활 SOC 정책이 지역에 확산되고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생활 SOC 시설의 분포현황이나 생활서비스 전달 수준 등에 대한 실태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충남에서의 생활 SOC 실태를 분석하면, 대부분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수준이 높은 중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편중성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이나 배후지역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시설 확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대상을 10종 중점투자시설에 속한 생활 SOC 유형만이 아닌 생활 SOC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시설로 확대하여 세분화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 SOC 공급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다양성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충남 생활 SOC 공급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충남 생활 SOC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연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연구 수행절차 및 목차	7
제2장 관련 정책동향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이론적 고찰	13
3. 관련 정책 동향	17
4. 생활 SOC 공급 및 서비스 전달 방향과 과제	27
제3장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28
1. 연구 분석 방법	28
2. 직선거리를 활용한 생활 SOC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	31
3. 교통접근성을 활용한 생활 SOC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	49
4. 충남 생활 SOC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 종합	65
제4장 충남 생활 SOC 서비스 연계방안	73
1. 추진방향	73
2. 생활 SOC 도입 및 공급 방안	73
3. 생활 SOC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83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89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89
2. 향후 연구과제	91
[부록 1] 연심회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93
[부록 2] 자문회의 의견서	95
[부록 3] 충청남도 생활 SOC 유사시설 수해지역 및 취약지역	97
[부록 4] 19년 신규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추가 개선지역	143
[부록 5] 충청남도 국공립어린이집 필요지역 및 신규 개선지역	155
[참고문헌]	157

표 목 차

[표 2-1] 커뮤니티시설 유형 구분	17
[표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서비스 기준	22
[표 2-3]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23
[표 3-1] 충남 생활 SOC 유형별 취약지역 분석방법	29
[표 3-2] 작은도서관 현황	31
[표 3-3] 국공립어린이집(마을) 현황	33
[표 3-4] 국공립도서관 현황	35
[표 3-5] 가족센터 현황	36
[표 3-6] 돌봄 및 육아센터 현황	38
[표 3-7] 국공립어린이집(거점) 현황	39
[표 3-8] 생활문화센터 현황	41
[표 3-9] 체육시설 현황	43
[표 3-10] 지역별 생활 SOC 유사시설 분포현황	44
[표 3-11] 충남 생활 SOC 유사시설 분포현황	45
[표 3-12] 인구규모 기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과 현황	49
[표 3-13] 인구규모 기준 국공립도서관 설치 기준과 현황	51
[표 3-14] 공급기준 대비 가족센터 설치 현황	58
[표 3-15] 공급기준 대비 돌봄 및 육아센터 설치 현황	59

[표 3-16] 공급기준 대비 생활문화센터 설치 현황	61
[표 3-17] 인구규모 기준 국공립도서관 설치 기준과 현황	63
[표 3-18] 19년 충남 생활 SOC 신규사업 중복현황 검토	68
[표 4-1] 지역 위계를 고려한 생활 SOC 분류체계(안)	7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분석 틀	7
[그림 1-2] 연구 체계도	8
[그림 2-1] 도시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차이	9
[그림 2-2] 지역별 노후 인프라 및 재정자립도 현황	10
[그림 2-3] 페리 근린주구 개념도	13
[그림 2-4] 네트워크 도시체계 유형	15
[그림 2-5] 생활 SOC 취약지역 개념도	19
[그림 2-6] 생활 SOC 분류	24
[그림 2-7] 충남 생활 SOC 사업 발굴 내역	25
[그림 2-8] 충남 생활 SOC 사업 제안 내역	26
[그림 3-1] 작은도서관 서비스 범위 분석도	32
[그림 3-2] 국공립어린이집(마을) 서비스 범위 분석도	34
[그림 3-3] 공공도서관 서비스 범위 분석도	35
[그림 3-4] 가족센터 서비스 범위 분석도	37
[그림 3-5] 돌봄 및 육아센터 서비스 범위 분석도	39
[그림 3-6] 국공립어린이집(거점) 서비스 범위 분석도	40
[그림 3-7] 생활문화센터 서비스 범위 분석도	42
[그림 3-8] 체육시설 서비스 범위 분석도	43

[그림 3-9] 충남 생활 SOC 서비스 범위 분석도	45
[그림 3-10] 직선거리를 활용한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결과	46
[그림 3-11]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예시	47
[그림 3-12] 인구규모를 고려한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예시	48
[그림 3-13] 작은도서관 교통접근성 분석도	50
[그림 3-14] 국공립도서관 교통접근성 분석도	51
[그림 3-15] 학습분야 교통접근성 분석 종합도	52
[그림 3-16] 돌봄 분야 취약지역 분석도	53
[그림 3-17] 국공립어린이집(마을) 교통접근성 분석도	54
[그림 3-18] 국공립어린이집(거점) 교통접근성 분석도	55
[그림 3-19] 영유아 인구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서비스 필요 범위	56
[그림 3-20]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및 생활서비스 필요 범위 중첩	57
[그림 3-21] 가족센터 교통접근성 분석도	58
[그림 3-22] 돌봄 및 육아센터 교통접근성 분석도	60
[그림 3-23]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교통접근성 분석 종합	61
[그림 3-24] 생활문화센터 교통접근성 분석도	62
[그림 3-25] 체육시설 교통접근성 분석도	64
[그림 3-26] 직선거리와 교통접근성 분석 간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 차이	66
[그림 3-27] 연접지역 생활서비스 이용범위 분석	67
[그림 3-28] 신규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보완 사례	69

[그림 3-29] 복합화를 통한 부분적 생활 SOC 취약지역 개선 방안	70
[그림 3-30] 민간시설에 의한 생활서비스 보완 사례(어린이집 사례)	71
[그림 3-31] 민간시설에 의한 생활서비스 보완 사례(세부지역)	72
[그림 4-1] 국토정보플랫폼 기반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사례	74
[그림 4-2] 연계협력에 기반한 생활 SOC 복합화 개념도	80
[그림 4-3] 생활 SOC 수평적 복합화 개념도	81
[그림 4-4] 다양한 기능 간 수평 복합화 사례(일본 오가루 프로젝트)	82
[그림 4-5] 지역 위계 고려 생활 SOC 서비스 전달체계	85
[그림 4-6]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한 생활 SOC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개념도	86
[그림 4-7] 생활 SOC 지원체계 개선(안)	87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저성장 기조 확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 및 기반시설의 일부 지역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이들을 제외한 지역의 활력저하, 노후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 및 기반시설의 규모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도 낙후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낙후지역의 확산은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부족, 노후화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져 결국 지역 사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간시설 확충을 통해 인접한 도시지역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주변 지역과는 다른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 일부 도시지역 중심의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도로와 철도 등 기간시설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보육이나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과 관련된 중소 규모의 인프라, 즉 생활밀착형 인프라/SOC(이하 생활 SOC) 시설이다. 이들의 도입 수준¹⁾을 살펴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일수는 176일(약 6달)이며, 실내체육관 1개소 당 서비스 인구는 6.2만명(독일 0.2만명) 수준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1) 국무조정실,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 p.1, 2019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가 확산되면서, 생활 SOC에 대한 정책도 기존의 기간시설 위주, 이용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한 개발 등 “양적 확충” 방식에서 사람과 지역을 우선시 하는 “질적 확충”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 정부 이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등을 통해서도 생활 SOC 확충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미흡하지만 낙후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공급하여 삶의 질 제고에 도모하며, 지역 간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전체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 등을 통한 생활 SOC 확충은 사업의 추진성이나 확장성 등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 및 규모화, 예산 확보 등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을 기점으로 생활 SOC에 대한 유형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활 SOC 추진계획”이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를 통합하는 형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해, 2019년 기준 약 8.6조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이 중 약 4.1조원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지역이 없이 다양한 생활 SOC를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SOC 공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 SOC 시설 자체가 이용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인구유동 및 밀집성이 높은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시설 특성 상 사람들의 이용성에 기반하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 등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충남에 총 17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45.8%에 달하는 81개소가 천안시(30.5%,

54개), 아산시(15.3%, 27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생활 SOC의 균형적이고 효율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 SOC를 통한 생활서비스 수혜지역과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을 제시하며 생활 SOC를 마을(도보)과 지역 거점(차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최저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활 SOC 유사시설에 대해 사람들의 이용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데, 시간을 거리로 환산한 직선거리 기준(예, 2km~4km)을 적용해서는 실제 사람들의 이용이 담보될 수 있는 시설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통체계 및 지형 등으로 인해 직선거리 분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동일 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생활 SOC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생활 SOC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수혜지역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인 생활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 생활 SOC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공급기준 및 최저기준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태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활 SOC 공급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SOC 공급 및 전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생활 SOC 추진계획에 대응하여, 현재 생활 SOC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충남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정부 주도의 생활 SOC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생활 SOC가 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 현재까지 주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효율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남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및 균형성 제고를 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충남 생활 SOC 개념 및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관련정책 및 연구를 통한 생활 SOC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활 SOC 유형을 도출한다. 생활 SOC 유형별 유사시설에 대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한다.

둘째, 충남 생활 SOC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생활 SOC 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생활 SOC 시설의 균형적 도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및 문헌,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SOC 공급 및 전달 방식, 이용방식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생활 SOC 유형별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충남 내 생활 SOC의 균형적 공급 및 서비스 전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충남 내 생활 SOC 취약지역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먼저, 연구의 대상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생활 SOC 시설 유형 중 10대 중점투자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생활 SOC 시설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지만,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연구의 물리적·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정책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생활 SOC 10대 중점투자시설 중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득이 가능한 9대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 내 생활 SOC 실태분석을 통한 수혜지역과 취약지역 도출, 충남 생활 SOC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SOC 시설 유형별 실태 분석을 통한 수혜지역과 취약지역 도출을 실시한다. 생활 SOC 시설 유형별 생활서비스 전달 현황을 시·군별로 제시하여 향후 생활 SOC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생활 SOC 유사시설이 도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을 대상 범위로 포함시키되 실제 생활 SOC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생활 SOC 시설과 관련한 문헌연구, 생활 SOC 시설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등 분석연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첫째, 관련 정책 및 연구는 생활 SOC의 추진 필요성, 생활 SOC 유형과 범위, 추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생활 SOC 공급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한다. 국내외 생활 SOC 관련 정책과 연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충남 생활 SOC 공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분석연구는 생활 SOC 시설 유형별 생활서비스 전달 현황에 대한 실태를 GIS 분석을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생활서비스 수혜지역과 취약지역을 발굴한다. 분석 대상인 생활 SOC 시설에 대한 GIS 기반의 위치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공급기준 및 최저기준 등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지역과 취약지역을 도출한다. GIS 기반의 위치 정보 분석을 통해 생활 SOC의 지역 내 입지 특성 및 여건을 도출하고, 향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활서비스 수혜 및 취약 범위를 시지각적으로 도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GIS 기반의

위치 정보 분석을 통한 결과는 생활 SOC를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생활 SOC와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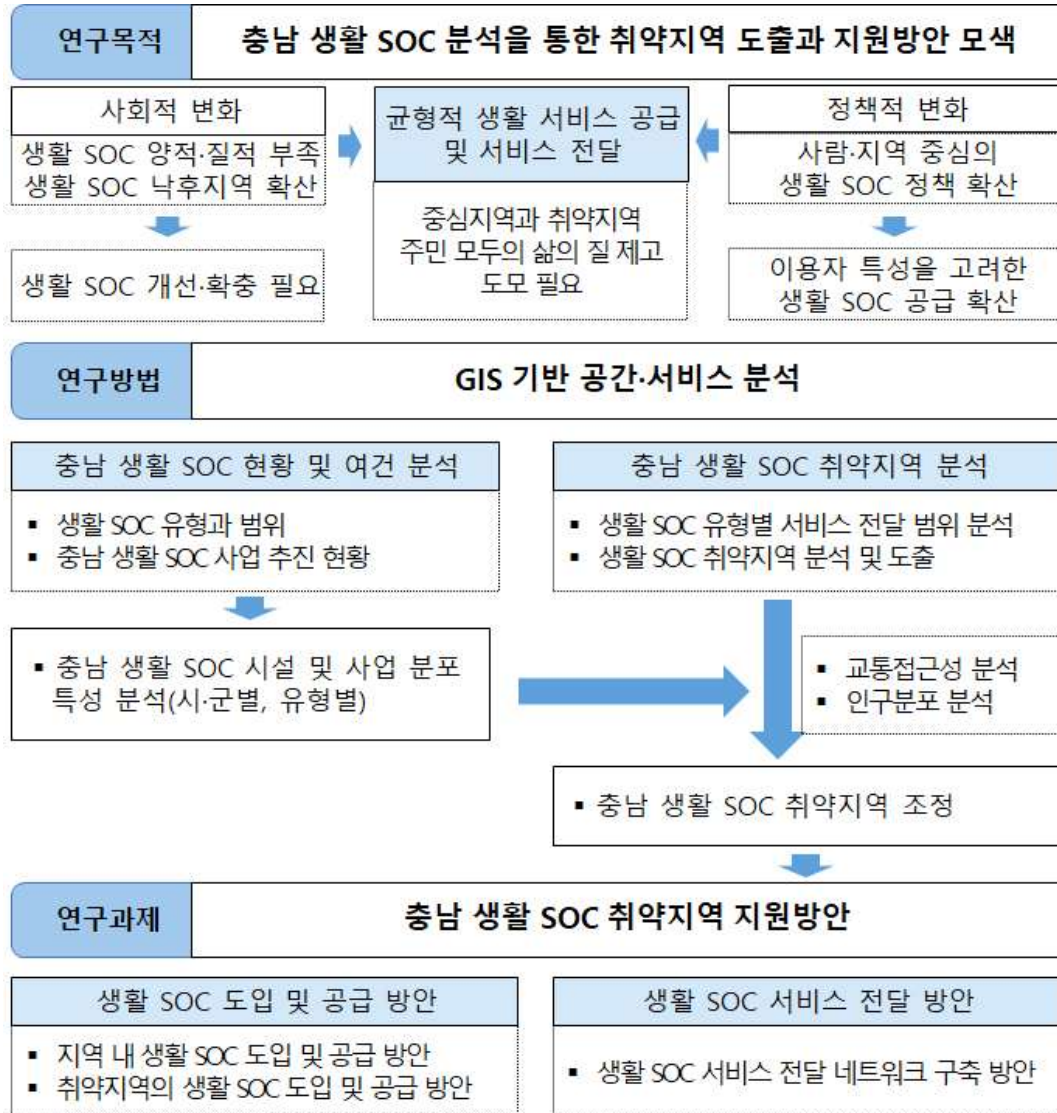
3)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충남 생활 SOC 수혜지역 및 취약지역 분석 결과는 향후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한 충남 생활 SOC 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남 및 15개 시·군 관련부서에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첫째, 생활 SOC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생활 SOC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5개 시·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정책에 대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추진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선정률 제고 및 국비 확보 확대, 시·군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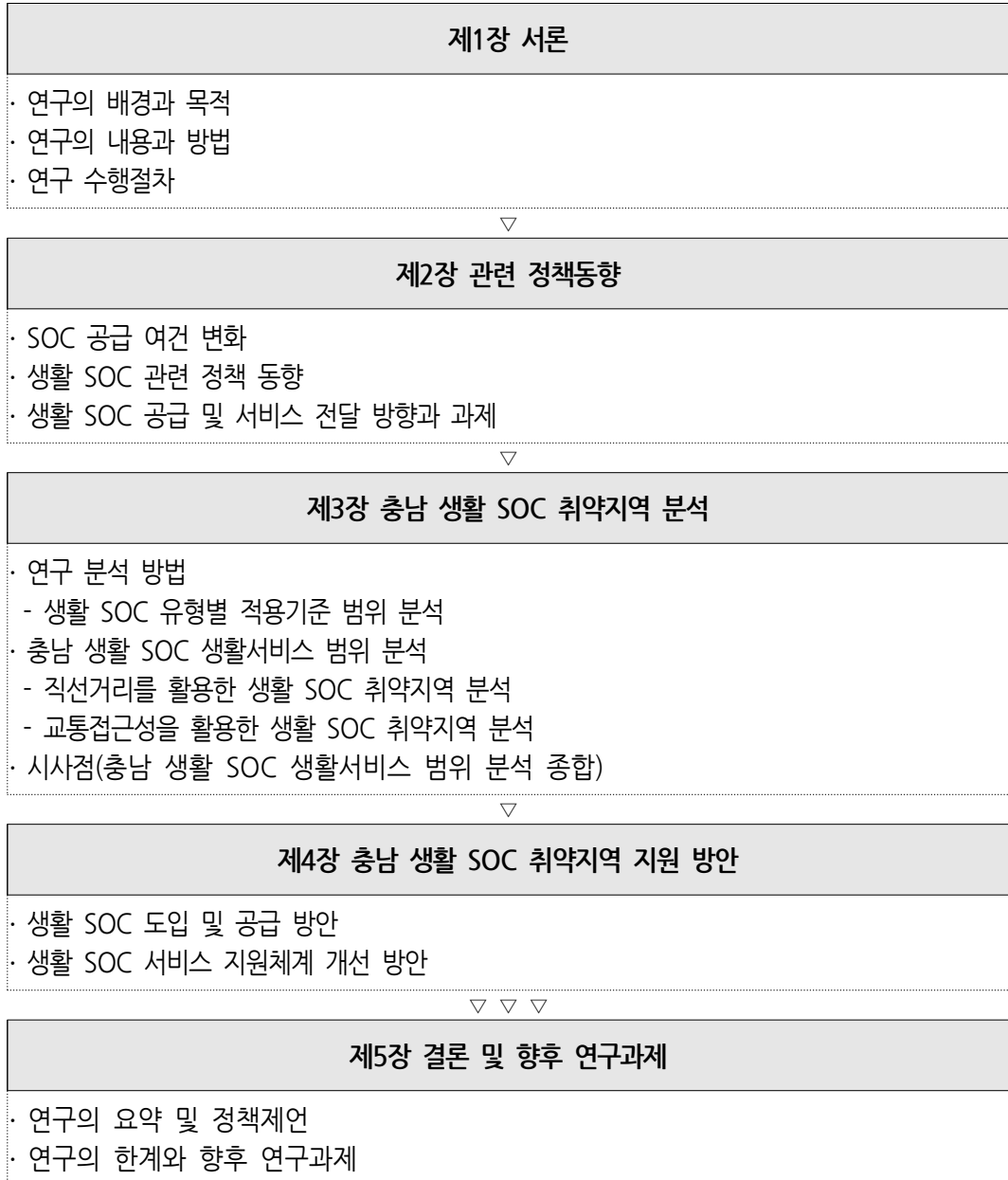
3. 연구 수행절차 및 목차

1) 연구 분석 틀



[그림 1-1] 연구 분석 틀

2) 연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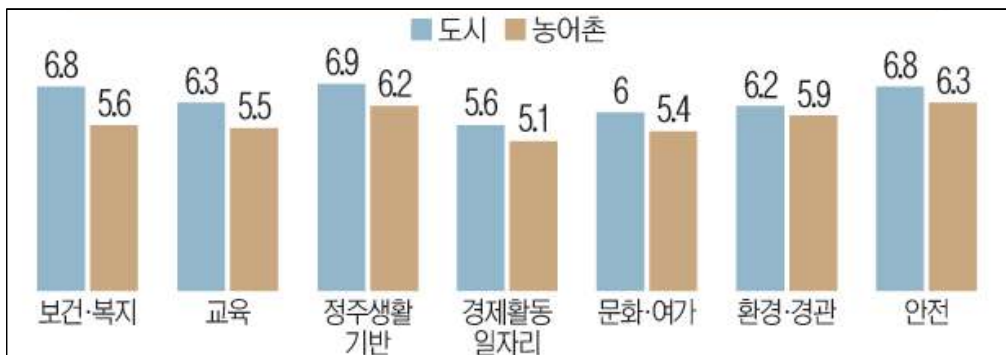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체계도

제2장 관련 정책동향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인구구조 변화로 낙후지역 확산 및 SOC 노후화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취업 문제 등 인구구조의 고령화, 감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 경쟁력 약화, 구도심 쇠퇴, 농어촌 등 지방중소도시 쇠퇴 등 낙후지역 확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낙후지역 확산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 비해 인구구조 변화가 심한 농어촌 등 지방중소도시에서 일부 중심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낙후지역화 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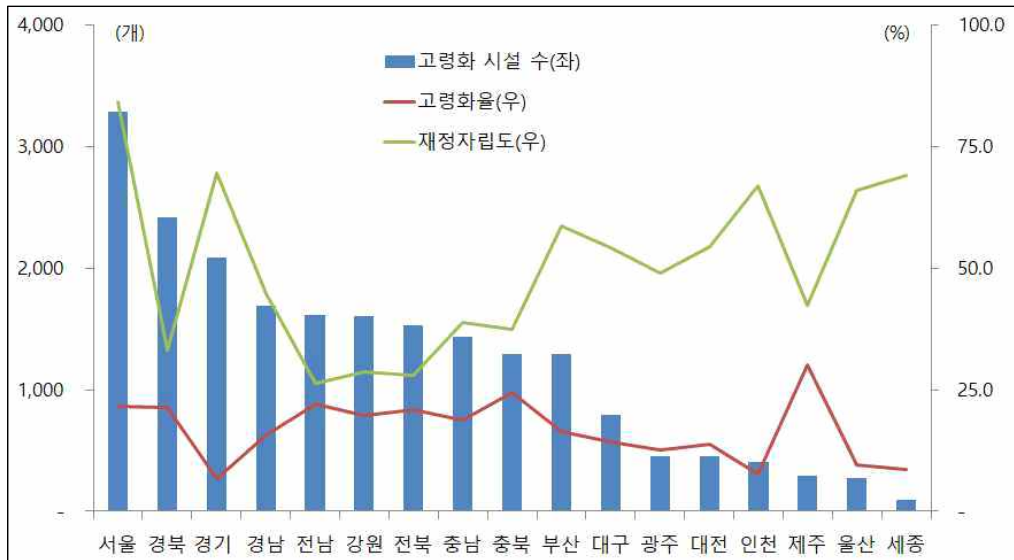
[그림 2-1] 도시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차이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2018

낙후지역 확산은 그 지역에 입지하는 SOC 시설의 노후화 문제로 연결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연구²⁾에 따르면, 국내 주

2) 민주연구원, SOC 투자의 방향전환, 이슈브리핑, 2019, pp.2~5

요 SOC 시설은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의 노후화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실제 지역별로 많은 SOC 시설이 현재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지역별 노후 인프라 및 재정자립도 현황

출처 : 민주연구원, SOC 투자의 방향전환, 이슈브리핑, 2019, p.5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낙후지역 확산, SOC 노후화 문제는 지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발전 저하 및 지역 경쟁력 약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주여건 및 생활안전수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낙후지역 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들에 비해 생활서비스 이용이나 전달 수준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며, 결국 낙후지역을 더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사람·지역 중심의 균형적 SOC 공급 필요성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이 주 목적이던 시기에 추진되었던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SOC 투자 전략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광역적 측면에서 지역 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SOC 시설 조성은 효율성을 중시하고 양적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사람들의 편의 증진,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람들의 생활수준 제고,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관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산업화, 도시화가 둔화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대규모 기간시설 중심의 SOC 공급 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공급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간시설만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 SOC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 SOC는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생활 SOC로 분류할 수 있다.

더불어, 저성장·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생활 SOC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생활서비스에 대한 낙후지역에 대한 개선, 노후화된 SOC 시설에 대한 개선 및 교체 등을 목적으로도 일상생활 속 SOC 시설의 공급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 생활 SOC 확충 및 낙후지역 확산을 방지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6)³⁾는 인구 고령화 및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HUB 및 서비스집중도시(예, 서울 성북구 10분도시, 일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2016, p.80

본의 지역 HUB 및 서비스 집중도시 등)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구형수(2017)⁴⁾는 수요자 중심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희공간의 선별적 활용, 기성시가지 및 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는 방안, 근린지역별 공공서비스 수급전망에 따른 효율적 서비스 운영·관리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훈(2017)⁵⁾은 근린에 인접한 유희공간을 지역에 필요한 문화공간, 임대주택 등 생활인프라 공급의 거점으로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본⁶⁾에서도 1950년 중반 이후 공공인프라 확충이 추진되어 2000년대부터 공공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사회자본의 유지관리·갱신,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된 SOC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생활서비스 유지·향상을 위한 콤팩트 시티 형성, 아름다운 경관·좋은 환경의 형성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 시설 도입 필요성 확산, 생활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SOC에 대한 공급 방식이 기존의 SOC 시설의 공급 방식이 양적 수요 확충, 기간시설 위주의 공급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질적 공급,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 공급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관련연구 및 정책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일상생활 거점 혹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OC 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이용이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설이나 기능을 발굴하고 평가하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 구형수, 지방 인구절벽 축소도시 문제, 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하자, 국토정책 Brief, No.616, 2017, p.7

5) 박세훈,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No.642, 2017,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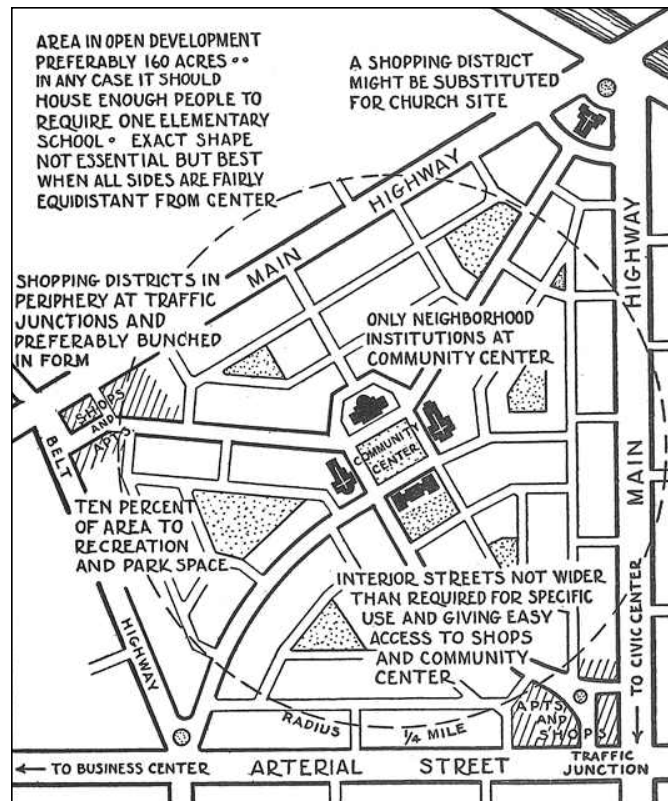
6)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건설정책리뷰, 2017, p.4~6.

2. 이론적 고찰

1) 근린주구 이론

근린주구이론은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안된 이론⁷⁾으로, 적절한 도시 계획에 의하여 거주자가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주거지 모형이다.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포함하고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토지와 간선도로로 구획되어야 하며, 내부에 주거, 녹지, 도로체계,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형태이다.

근린주구이론과 관련하여 하워드 (Ebenezer Howard)⁸⁾는 내일의 전원도시에서 도시와 농촌의 결합을 제시하고 도시의 무부분별한 확장을 방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관공서와 미술관, 의료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주택지, 공업시설 등을 배치함으로써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 페리 근린주구 개념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 2019

7) 이진원,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5호, 통권 91호, p.100, 1996

8) 정효상이일형, 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859, 2004

2) 네트워크 도시

도시는 중심지와 주변부 간의 단계적 확장과 성장을 통해, 중심지와 주변부로 구성된 단핵형 도시에서 기존 주변부가 새로운 중심지와 주변부를 형성시키는 다핵형 도시로 확장되며 성장한다⁹⁾. 이러한 확장과 성장을 통해 도시권을 형성하게 된다. 먼저, 도시권 설정과 관련한 중심지이론에서, 크리스탈러(Christaller)는 중심지 형성을 위해서는 생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는 배후지역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구조는 상위중심지가 하위중심지를 일정하게 포섭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뢰시(Lösh)는 기능특화와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중심도시와 인근지역 중소도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제시하면서, 상위중심지가 하위중심지가 가진 모든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도 교차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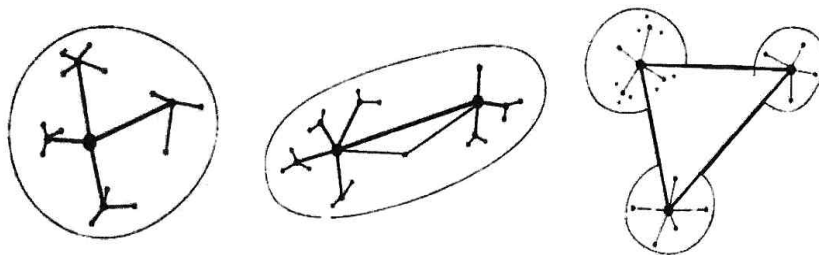
다음으로, 도시권 성장과 관련한 공간순환모형(Spatial Cycle Model)에서, 도시화 과정은 도시화 단계, 교외화 단계, 역도시화 단계, 재도시화 단계 등 일정한 단계를 밟아 성장, 발전하게 되는데(Berg and Klassen, 1987; 정환용, 1997), 이를 통해, 도시가 광역화되면서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인구와 산업이 다시 기존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화가 재개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고 제시하였다.

도시권 범위가 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형성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에 서, 네트워크 도시는 도시와 도시 간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도시체계로, 연결한 도시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과 집적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권오혁·신철지, 2005, p.155; 임동일, 2011, p.18 재인용). Batten(1995)¹⁰⁾은 2개나 그 이상의 독립적인 도시들이 기능상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에 의해 집적경제를 달성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

9) 임동일 외,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국토연구원, 2011, 재구성

10) Batten, David F., 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32(2), p.313-327.

다. 네트워크 도시는 도시 간 지리적 연결성(contiguity), 통근·통학 등 기능적 연계성에 의존한 공간범역이 아닌 비공간적이고 장거리 도시 간 형성이 가능한 도시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이다(김용웅, 2001, pp.477-479). 네트워크 도시 유형에 대해, Batten(1995)은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단핵도시로 지역 내 단일 수위도시와 다수의 작은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형이며, 둘째 회랑 도시는 2개의 수위도시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형이다. 셋째 네트워크 도시는 3개 이상의 수위도시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형이다.



[그림 2-4] 네트워크 도시체계 유형

출처 : 김정연,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13, p.19

네트워크 도시체계 형성과 더불어, 중심지를 중심으로 도시와 주변지역, 중심지와 배후지역 간 연계구조 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수요이론(1976)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초수요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소단위 지역중심 육성을 중심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¹⁾ 프라드만과 더글라스(J. Friedmann & M. Douglas)¹²⁾는 농도지구 개발론(Agropolitan Approach)을 통해 인구규모를 고려한 중심지와 배후공간 간 연계구조 형성이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약 1~2만 가구, 5~10km 규모의 자치권을 갖는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하되, 1개 이상의 중심지와 배후지를 갖도록 제시하고 있다.

11) 이희연, 경제지리학, 법문사, 1989, pp.668~672

12) Friedmann, J & M. Douglass,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Pergamon Press, 1978

3)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communit^y)¹³⁾란 공간적으로 지역에 기초하여, 같은 관심과 의식을 공유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사회로, 제인 제이콥스(2010)¹⁴⁾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동네의 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사람 간 관계 회복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공존과 상생발전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communit^y facilities)에 대해 네이버(2019)¹⁵⁾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시설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유치원, 초중고교, 진료소, 병원, 집회소, 도서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으며, 먼저, 공동시설(public facilities)은 네이버 지식백과(2019)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두루 쓸 수 있는 모든 시설로, 공원, 집회소, 공동 목욕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5항)¹⁶⁾에서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조순재 등(1996), 송미령·박시현(2001)은 사람들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Communal Facilities)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변필성(2014)¹⁷⁾은 공공시설에 대해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커뮤니티시설은 사람들의 생활 근거리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

13) 위키 백과사전, 2019, <http://ko.wikipedia.org/wiki>.

14) 제인 제이콥스,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2010

15) 네이버 지식백과, 2019, <http://terms.naver.com>

16) 법제처, 2019, <http://www.law.go.kr>.

17) 변필성,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2014, pp.41~43.

익적 시설뿐만 아니라, 약국, 식당 등 사익적 시설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커뮤니티시설 유형 구분

구분	인구	행정	여가	교육	사회복지	보건	유통
제1차 커뮤니티 (소생활권)	1~2 만명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아동공원, 어린이놀이터, 소단위운동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탁아소, 경로원, 집회장, 공회당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약국	수퍼마켓, 소매시장, 은행, 지역사회금고
제2차 커뮤니티 (중생활권)	5~10 만명	출장소	운동장, 지구공원	고등학교, 도서관	종합복지센터, 직업보도소, 상담소	보건소, 종합병원	지구중심쇼핑센터, 소단위도매시장
제3차 커뮤니티 (대생활권)	20~30 만명	구성, 경찰서, 소방서	종합운동장	전문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특수복지센터, 양로원, 고아원, 강생원, 불구자보호소	대형 종합병원, 특수병원, 보건연구원	부도심백화점, 유통단지

자료 : 한국도시지리학회,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008, 국토해양부, p.15.

3. 관련 정책 동향

1) 생활 SOC 취약지역 개념과 유형

(1) 생활 SOC의 개념과 유형

생활 SOC 개념은 법률로 정의된 용어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과거부터 “생활인프라”라고도 정의되어 왔다. 국토교통부(2014)¹⁸⁾는 생활인프라에 대해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2019)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통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18)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2014, <http://www.law.go.kr>

생활인프라 시설유형에 대해 국토교통부(2014)¹⁹⁾은 교통시설, 공원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방재시설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2014)²⁰⁾은 도보권 내(500m, 1km, 2km, 3km)의 인프라 중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7개 시설(보육, 공원, 교통, 의료, 복지, 문화, 체육)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²¹⁾은 정보생활기반시설, 교육시설, 보건복지시설, 문화여가시설, 환경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훈령 제2조(2018)²²⁾에서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2019)은 앞 선 연구를 종합하여 생활 SOC의 유형 중 일상생활에 밀착성이 높은 10종(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중점투자시설로 제시하였다.

결국, 생활 SOC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²³⁾이 국가 소유로서 산업발전 기반이 되거나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편의와 복지 및 공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라면, 생활 SOC는 사회 구성원에게 편의와 복지 및 공익을 제공하는 시설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생활 SOC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근거리에 입지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공급 혹은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활동을 담고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활 SOC 유형은 보육·교육, 교통, 공원,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에 속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2) 생활 SOC 취약지역 개념

취약지역이라는 용어는 법률로 정의된 용어라기 보다는 생활 SOC 개념과 마찬가지로

19)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2014

20) 조판기,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국토정책 Brief, No.456, 2014,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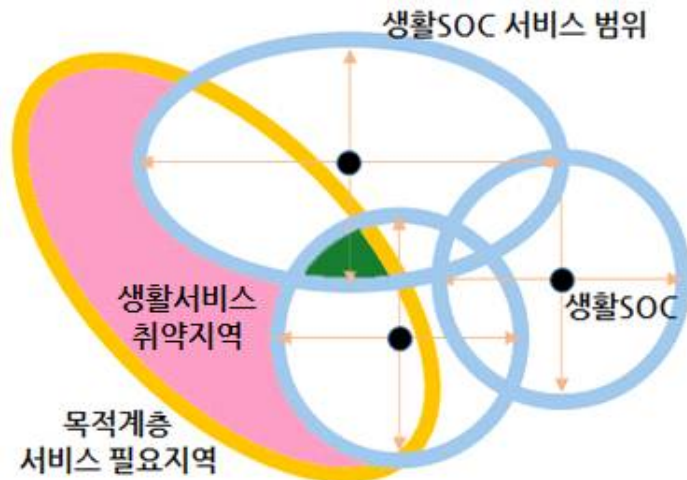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2019, <https://www.krei.re.kr/committee>

22) 법제처, 국무총리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http://www.law.go.kr>

23) 네이버, 사회기반시설, 지식백과, 2019, <https://terms.naver.com>

지로 정부 정책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네이버 백과사전(2019)에서 취약이라는 용어는 “무르고 약함”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로 정의되어 있다. 생활 SOC 추진계획(2019)에서는 생활 SOC 시설의 입지가 미흡한 지역 혹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생활 격차가 커진 지역, 자연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도지 내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나는 낙후지역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생활 SOC 취약지역은 생활 SOC 시설이 입지하지 못한 지역이나 생활 SOC 시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나 생활 SOC 시설을 통한 실질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및 수혜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생활 서비스의 수혜범위에 따른 취약지역 도출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공급 및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도출하며, 이를 통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지역은 도시지역(혹은 시가화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취약지역으로 분류한다.



[그림 2-5] 생활 SOC 취약지역 개념도

2) 관련 정책 사례

(1) 독일 생활 SOC 관련 정책

독일²⁴⁾에서는 “국토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통해 생활여건 유지를 위한 생활 필수공공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등가치적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기반하여, 국토계획법을 제정하면서 국토계획의 목표를 독일 전체의 “최소한 동일가치”를 지닌 생활 여건 조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상 등가치적 생활여건²⁵⁾이란 “개개국민이 등가치의 생활여건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잠재된 능력발위를 위해 필요한 기회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독일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가치를 갖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975년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등가치적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중심거점 도시(혹은 중심지 등)를 포함하여 중심거점 도시(혹은 중심지) 중심의 개발을 통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중심거점 도시(혹은 중심지)의 중심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생활필수 공공시설 공급을 도모하였는데, 이는 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국토계획법 상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동일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여건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로 조성이 필요한 시설들을 의미한다. 개별 지역에서는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의료보건서비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수영장, 도서관, 박물관) 등 생활 필수공공시설의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 대한 최소의 정주여건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사람들의 적정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필수공공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20년 동안 생활필수시설 수요변화에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일본 생활 SOC 관련 정책

일본에서는 “지방창생정책(2014)”과 “공공시설의 통합 및 리모델링에 관한 종합계획(2014)”을 통해 공공시설 공급 및 소외지역 개선, 노후 SOC 개선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창생정책(2014)²⁶⁾은 인구감소 및

24) 국무조정실,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2019, p.5 재정리

25) 송인성, 독일의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지역과 발전 Vol 9, 2012, pp.30~31, 재정리

26) 차미숙,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No.555, 2017, p.6~7

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선순환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콤팩트와 네트워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은 의료, 복지 등 광역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며, 지방도시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한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하고 기존공간구조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부족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통폐합 및 리모델링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²⁷⁾은 지방창생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및 지방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건립된 공공시설의 통폐합 및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총무성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침을 수립하고, 도도부현은 시구정촌 내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시구정촌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노후화 및 활용도, 총인구와 연도별 인구에 대한 미래 전망, 유지관리 등 공공시설의 현황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의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통폐합, 집약화 등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과 이용수요, 운영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도모하고 있다.

3) 국내 정책 동향

(1) 균형발전 정책

우리나라의 생활 SOC 공급 및 서비스 전달을 통한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은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균형발전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어 왔다. 균형발전정책²⁸⁾은 참여정부를 지나 현 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27) 여혜진,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AURI, 2018, pp.70~74, 재정리

28)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2016, pp.19~41.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국이 개성 있고 골고루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기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등 저발전지역에 대한 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를 위해 낙후된 농어촌 등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관련 시설 확충,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여 왔다. 중심거점(혹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혹은 마을)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중심거점(혹은 도시)를 중심으로 관련정책(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추진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예, 복합

[표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서비스 기준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보건복지	진료 서비스	▪ 사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능
	응급 서비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 응급장비 마련,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교육 여건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함
	평생교육	▪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음
정주생활 기반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함
	상수도	▪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음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며,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대중교통	▪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프로그램 도입
	광대역 통합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음
경제활동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 사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문화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사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가능
환경경관	하수도	▪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안전 (생활 안전)	방범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
	경찰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함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2018, p.4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변지역(혹은 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등 중소도시 지역에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공급 및 수혜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의 기초생활인프라²⁹⁾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기초생활인프라에 대

[표 2-3]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공공사립 작은도서관	10~15분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마을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 고려
			건강생활, 자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편의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와시설 주차장	주거지역 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도립,시립, 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보건소	-	20분
	의료	응급실 운영	-	30분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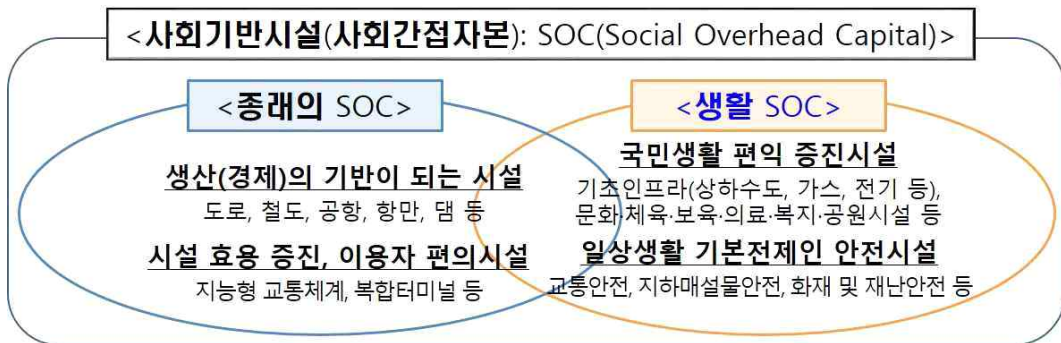
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2) 생활 SOC 정책³⁰⁾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 SOC 정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생활 SOC 정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즉 생활 SOC 확충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SOC 공급이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 양적 확충 위주, 도시 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지역 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적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생활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활 SOC 정책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수준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인프라,



[그림 2-6] 생활 SOC 분류

출처 : 국무조정실,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2019, p.1

29) 법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19, <http://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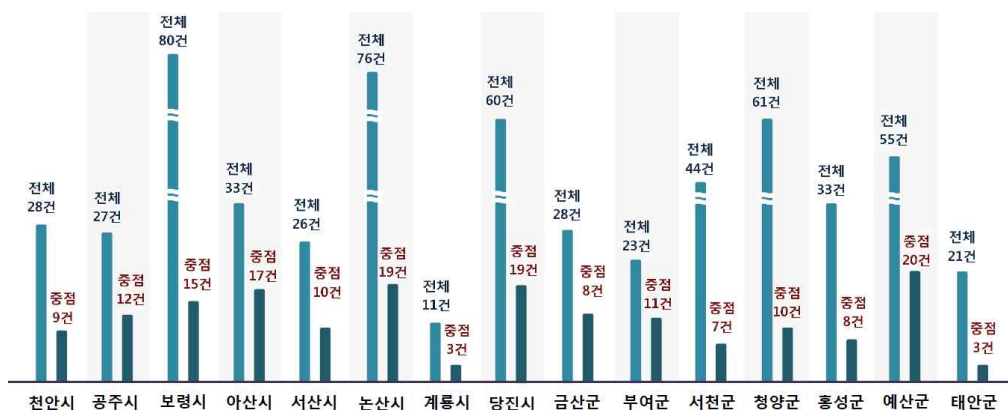
30) 국무조정실,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2019, pp.1~8 재정리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공공의료 시설 확충, 안전한 삶터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 SOC 확산을 도모하고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10대 중점투자시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중점투자시설은 총 10종으로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굴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충남 생활 SOC 사업 추진 현황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SOC 유형과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 SOC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생활 SOC 추진을 위한 사업을 총 606건, 4조 3,076억원(2019년 4월 기준)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7] 충남 생활 SOC 사업 발굴 내역

출처 : 충청남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생활 SOC 사업 발굴, 2019, p.7

충청남도에서 제안된 사업(2019년)은 22건(총 2,545.1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문화시설 14개, 보건·복지시설 5개, 교육시설 3개로 구분되며, 대부분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의 중복되어 제시되고 있다.

생활 SOC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여 이들 모두를 생활 SOC로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 및 정책 연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10대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된 생활 SOC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일부 시설(주거지 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분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그림 2-8] 충남 생활 SOC 사업 제안 내역

4. 생활 SOC 공급 및 서비스 전달 방향과 과제

사람들의 생활서비스 수준 제고 및 이를 위한 SOC 공급의 필요성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생활 SOC 시설의 수준에 대한 검토와 이를 통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생활 SOC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활 SOC의 균형적·효율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 SOC 집중지역이나 취약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생활 SOC 유사시설의 분포현황 및 서비스 전달 범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생활서비스 집중지역이나 취약지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등 생활 SOC 관련 기준(예,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 SOC 수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활 SOC 공급지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 SOC 이용성을 고려한 입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수준이나 이용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분포 특성, 이동성을 고려하여 생활 SOC 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분포나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사람들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생활 SOC 공급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을 포함한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SOC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원거리에 거주하더라도 생활 SOC를 통한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 SOC 공급 및 서비스 전달 방안에 대한 단계적 검토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제3장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1. 연구 분석 방법

취약지역을 고려한 생활 SOC의 효율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SOC 유형별 생활서비스 적용범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생활 SOC 시설 유형별 공급기준 및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 내 기존 생활 SOC 유사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생활서비스 수혜지역과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생활 SOC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 SOC 시설 유형별로 사람들의 이용규모와 이용거리(시간거리)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용거리(시간거리)은 생활 SOC 시설 유형별 교통접근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분석 능력이나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도입하고자 하는 생활 SOC 사업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기준 생활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시설과 중복성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신규 생활 SOC 사업이 지역 내 유사시설과 중복성을 지니거나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이 아닌 수혜지역에 중복되는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충남 생활 SOC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기준을 고려한 생활 SOC 유형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과 취약지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충남 생활 SOC 유사시설 분포 현황과 지역 내 교통체계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저기준(반경 2km(차량 5분), 반경 4km(차량 10분))을 분석하여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공급기준과 최소기준을 고려한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분석기준에 따른 교통접근성을 실제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①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목적계층을 고려한 취약지역 분석 : 국공립어

린이집은 영유아(인구격자 100m), 나머지는 전체 인구(인구격자 500m)

②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분석기준을 고려한 교통접근성 분석

③ 도로접근성을 고려한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취약지역 도출

단계적 분석을 통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도출된 취약지역과 교통접근성 및 인구규모를 통해 도출된 취약지역 간 차이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충남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취약지역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표 3-1] 충남 생활 SOC 유형별 취약지역 분석방법

분류	세부시설	공급기준	최저기준		분석방법
학습	작은도서관	▪ 1개소당 7.6천명	5분	2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준 대비 시군 인구 규모 비교 ▪ 인구규모 대비 부족 시설 확충 ▪ 충남 인구(500m격자) 데이터 활용 취약지역 도출
	국공립도서관	▪ 1개소당 4.3만명	10분	4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준 대비 시군 인구 규모 ▪ 인구규모 대비 부족 시설 확충 ▪ 충남 인구(500m격자) 데이터 활용 취약지역 도출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마을)	▪ 2km내 소외영유아 500인 이상	5분	2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유아 인구(500m격자) 데이터 활용 취약지역 도출 ▪ 2km 이내 유아인구 500인 이상 지역 중 미설치 된 취약지역 도출
	가족센터	▪ 시군당 평균 0.5개소	20분	8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준 대비 부족 지역 도출 ▪ 충남 인구(500m격자) 데이터 활용 취약지역 도출
	돌봄 및 육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거점)	▪ 2km내 소외영유아 1,500인 이상	5분	2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유아 인구(500m격자) 데이터 활용 취약지역 도출 ▪ 2km 이내 유아인구 1,500인 이상 지역 중 미설치 된 취약지역 도출
문화	생활문화센터	▪ 시군구당 1.3개소 이상	10분	4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준 대비 부족 지역 도출 ▪ 충남 인구(500m격자) 데이터 활용 취약지역 도출
체육	체육시설	▪ 배후인구 4만명당 1개소	10분	4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준 대비 시군 인구 규모 ▪ 인구규모 대비 부족 시설 확충 ▪ 충남 인구(500m격자) 데이터 활용 취약지역 도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 p.7,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2018, p.4, 재구성

학습분야에서 첫째, 작은도서관은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시·군의 작은도서관 도입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부족한 시설의 수준을 도출한다. 더불어, 충남 인구 데이터(격자 500m)와 비교하여 취약지역으로 도출한다. 최저기준은 당초 도보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도보권에 대한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고, 시설 특성 상 한 마을만 지원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부분 차량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량 기준 5분/2km로 설정하였다. 둘째, 국공립도서관은 공급기준 상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시·군의 국공립도서관 도입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최저기준은 10분/4km로 설정하였다.

돌봄분야에서 첫째, 국공립어린이집(마을)은 유아인구 데이터(격자 100m)를 활용하여 비도시지역 중 유아인구가 500인 이상인 지역을 도출하고, 도출된 지역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2km를 설정하고 이를 취약지역으로 제시한다. 둘째, 가족센터와 돌봄 및 육아센터는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시설 기준과 현재 지역 내 도입 시설 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최소기준에서 제시된 지역별 인구기준을 활용하여 부족한 시설의 수준을 도출한다. 더불어,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충남 인구 데이터(격자 500m)와 비교하여 취약지역으로 도출한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거점)은 국공립어린이집(마을)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로 취약지역을 도출한다.

문화분야에서 생활문화센터는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시설 기준과 현재 지역 내 도입 시설 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최소기준에서 제시된 지역별 인구기준을 활용하여 부족한 시설의 수준을 도출한다. 가족센터와 같이 충남 인구 데이터(격자 500m)와 비교하여 취약지역으로 도출한다.

체육분야에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은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시·군의 도입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부족한 시설의 수준을 도출한다. 더불어, 충남 인구 데이터(격자 500m)와 비교하여 취약지역으로 도출한다.

2. 직선거리를 활용한 생활 SOC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

1) 마을(도보) 권역 내 생활 SOC 유사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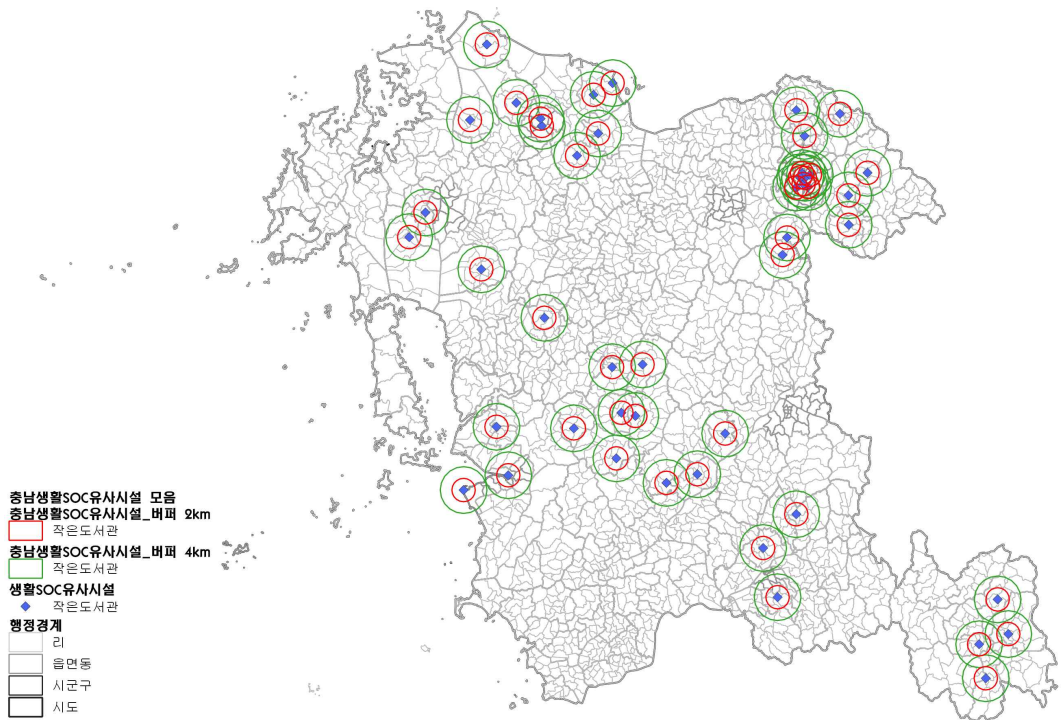
(1) 작은도서관

마을(도보) 권역에 입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총 47개소로 시지역에 33개소, 군지역에 14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 중 동지역이나 읍소재지와 같은 중심지역에 10개소(전체 28%), 일반 읍·면지역에 34개소(전체 72%)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에서는 천안시가 15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청양군이 9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공주시, 아산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작은도서관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 작은도서관 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47	33	15		3		3	3		9	14	4			9	1			
동읍(소재)	13	10	7		2					1	3	1			1	1			
비율(%)	28	21	15		4					2	6	2			2	2			
일반읍면	34	23	8		1		3	3		8	11	3			8				
비율(%)	72	49	17		2		6	6		17	23	6			17				

작은도서관의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시지역은 동지역이나 읍소재지와 같이 인구나 시설 밀집지역과 같이 기존의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지역은 읍·면소재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 읍·면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근 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작은도서관 서비스 범위 분석도

그러나 인구규모를 통한 단순비교 보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이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대부분 인구 및 시설 밀집도가 높은 중심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가 인접 마을 혹은 아파트 등으로 좁아 지역 전반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동·읍소재지 혹은 읍·면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대적으로 인구 및 시설 밀집도가 낮고 이로 인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소외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은도서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시설 이용을 위해 작은 도서관이 입지한 지역으로 이동해서야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2) 국공립어린이집(마을)

국공립어린이집 중 마을(도보) 권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총 51개소로 시지역에 36개소, 군지역에 1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아산시, 천안시에 많이 밀집해 있으며, 계룡시 등 일부 시·군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3] 국공립어린이집(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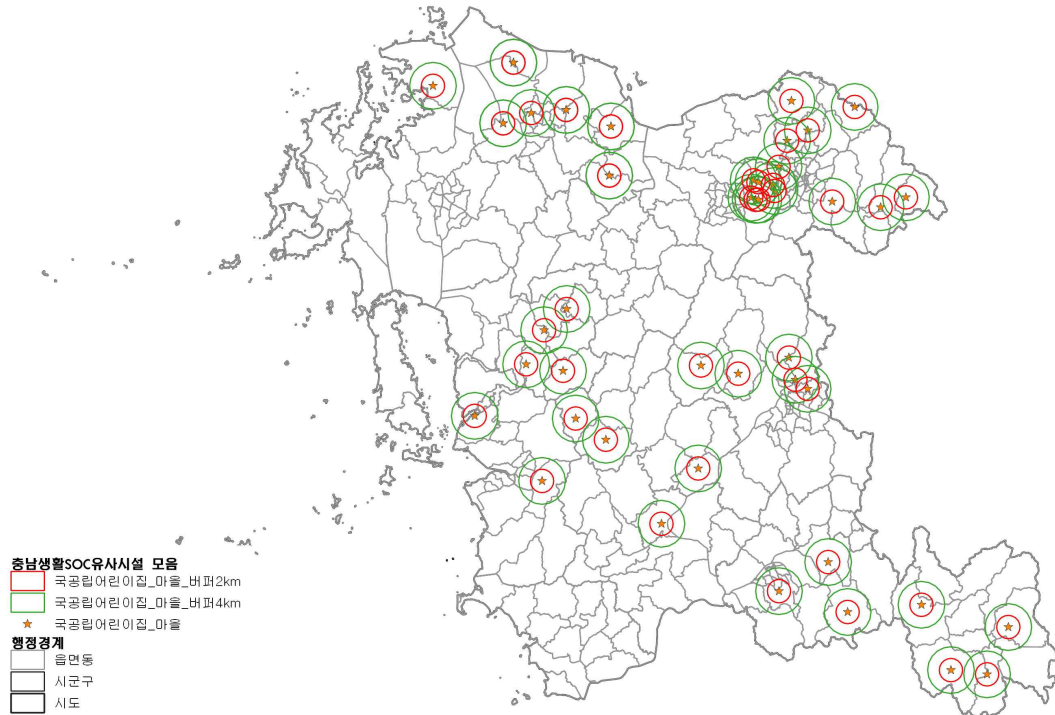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51	36	7	4	2	8	1	4		10	15	4	1	2	3	5		
동읍(소재)																		
비율(%)																		
일반읍면	51	36	7	4	2	8	1	4		10	15	4	1	2	3	5		
비율(%)	100	71	14	8	4	16	2	8		20	29	8	2	4	6	10		

마을(도보) 권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시·군 전체를 대표하는 수위지역(동·읍소재지)은 아니지만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거점인 읍·면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 특성 상 영유아 비중이 높은 지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읍·면 중심지역에서 영유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른 생활 SOC 시설과 달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영유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읍·면 중심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입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로 인해 주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생활 및 교육서비스 전달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농어촌지역은 민간어린이집 등을 통해 보완도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시·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유아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이나 시·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분포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생활서비스 수혜

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2] 국공립어린이집(마을) 서비스 범위 분석도

2) 지역거점(차량) 권역 내 생활 SOC 유사시설 현황

(1) 국공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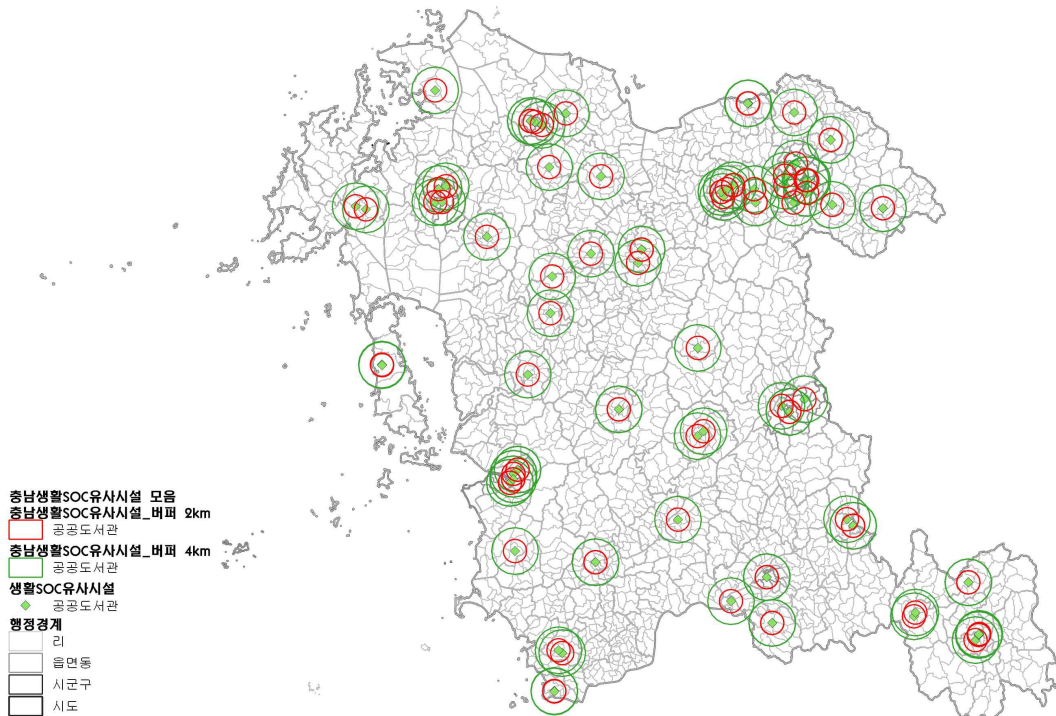
지역거점(차량) 권역에 입지하고 있는 국공립도서관은 총 90개소로 시지역에 59개소, 군지역에 3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 중 동지역이나 읍소재지와 같은 중심지역에 50개소(전체 56%), 일반 읍·면지역에 40개소(전체 44%)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금산군이 9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나머지 군에

서 3~4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4] 국공립도서관 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90	59	14	5	9	10	6	5	3	7	31	9	3	4	4	3	4	4	
동읍(소재)	50	34	8	4	6	4	4	2	2	4	16	5	1	2	2	1	3	2	
비율(%)	56	38	9	4	7	4	4	2	2	4	18	6	1	2	2	1	3	2	
일반읍면	40	25	6	1	3	6	2	3	1	3	15	4	2	2	2	2	1	2	
비율(%)	44	28	7	1	3	7	2	3	1	3	17	4	2	2	2	2	1	2	

국공립도서관의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모든 시·군에서 인구나 시설이 밀집된 동·읍소재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거점으로 역할 하는 읍·면지역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3] 공공도서관 서비스 범위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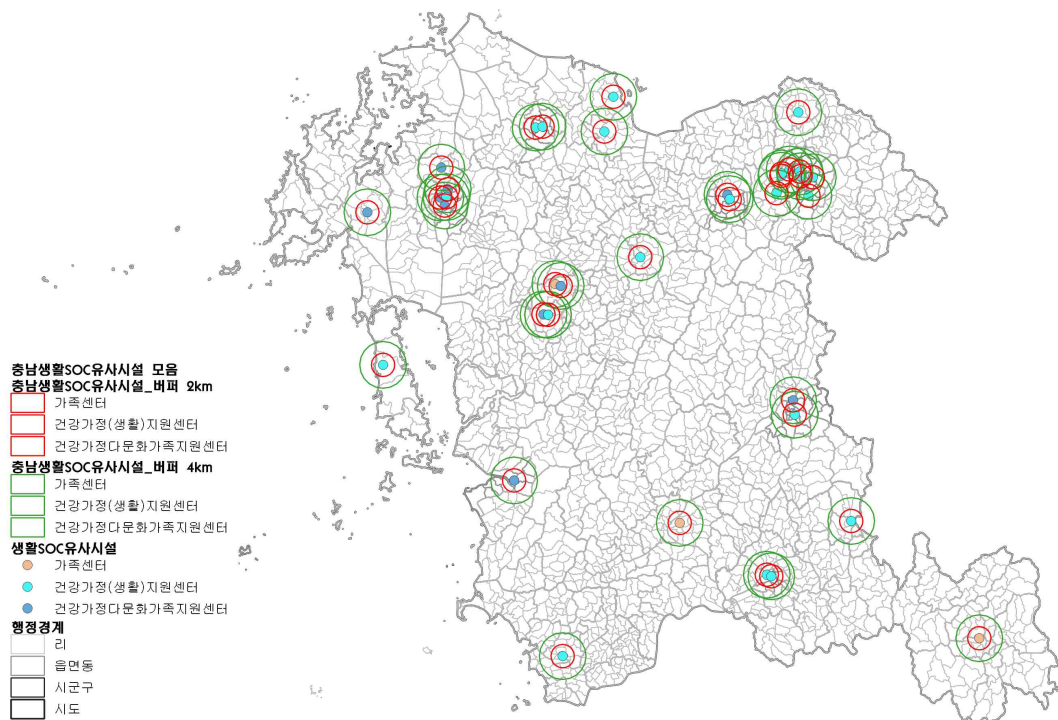
그러나 인구규모를 통한 단순비교 보다는 국공립도서관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이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국공립도서관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공립도서관이 생활서비스 시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등 시급도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큰 편으로 이들 지역의 경우 시·군청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읍·면·동지역도 읍·면 중심지에 국공립도서관이 입지하고 있어, 배후마을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중심지로 이동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생활)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충남에 총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지역에 26개소, 군지역에 1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 중 대부분(28개소, 76%)가 동지역이나 읍소재지와 같은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일반 읍·면지역에는 9개소(전체 24%)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에서는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홍성군이 5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나머지 군에서 1~2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센터 유형에 포함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 가족센터 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37	26	8	2	1	3	5	2	1	4	11	1	1	1		5	1	2	
동읍(소재)	28	20	7	2	1	2	4	2		2	8	1	1	1		3	1	1	
비율(%)	76	54	19	5	3	5	11	5		5	22	3	3	3		8	3	3	
일반읍면	9	6	1			1	1		1	2	3					2		1	
비율(%)	24	16	3			3	3		3	5	8					5		3	



[그림 3-4] 가족센터 서비스 범위 분석도

시설 수를 기준으로 한 단순비교에서는 현재의 가족센터 공급 수준이 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지나 지역 주민의 이용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급수준은 충분할지 모르나 실제 이용자의 이용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가족센터의 대부분이 동·읍소재지나 읍·면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배후 농어촌지역은 가족센터가 입지한 지역으로 이동해서야 관련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 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3) 돌봄 및 육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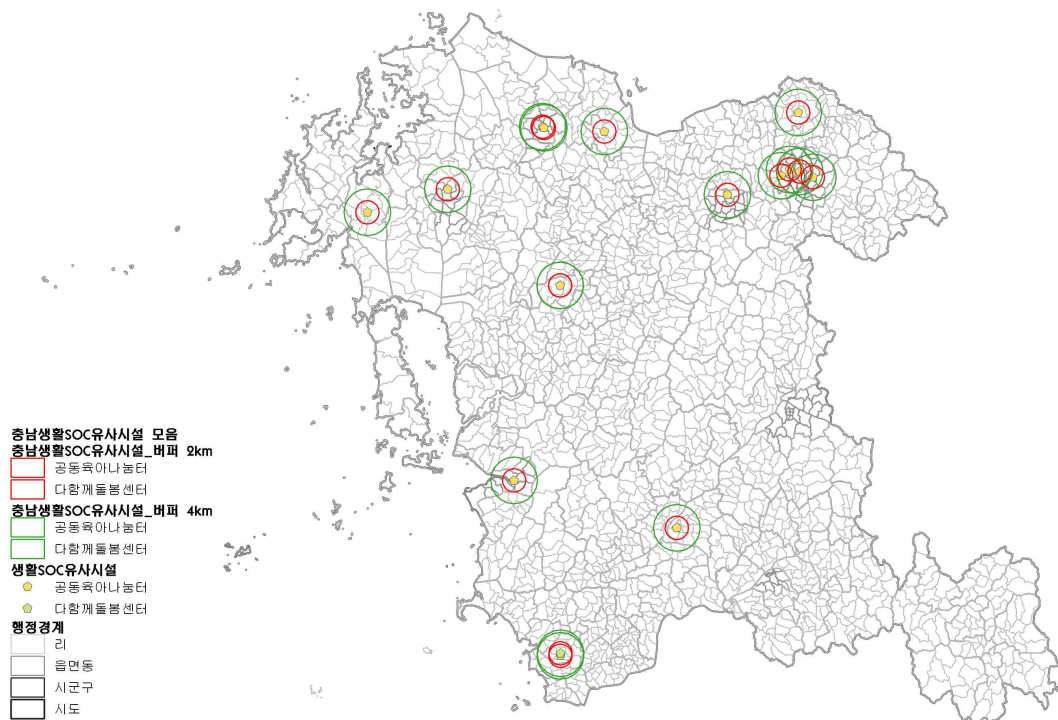
돌봄 및 육아센터는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충남

에 총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지역에 11개소, 군지역에 6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 중 대부분(13개소, 76%)가 동지역이나 읍소재지와 같은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일반 읍면지역에는 4개소(전체 24%)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에서는 천안시, 당진시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서천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에 1~2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및 육아센터 유형에 포함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돌봄 및 육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3-6] 돌봄 및 육아센터 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17	11	5		1	1	1			3	6		1	2		2		1
동읍(소재)	13	9	4		1	1	1			2	4		1	2				1
비율(%)	76	53	24		6	6	6			12	24		6	12				6
일반읍면	4	2	1							1	2					2		
비율(%)	24	12	6							6	12					12		

그러나, 이와 같이 시·군 내 시설의 존재 유무와 시설 수를 기준으로 한 단순 비교에서는 돌봄 및 육아센터가 설치된 시·군은 관련 생활서비스 공급 및 수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시·군은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저기준을 고려할 때 실제 생활서비스 전달 수준은 설치된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관련 생활서비스의 소외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이용자의 이용성을 고려할 때, 현재 인구 및 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뿐만 아니라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동·읍소재지나 읍면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시·군에서도 배후 농어촌지역은 돌봄 및 육아센터가 입지한 지역으로 이동해서야 관련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돌봄 및 육아센터 서비스 범위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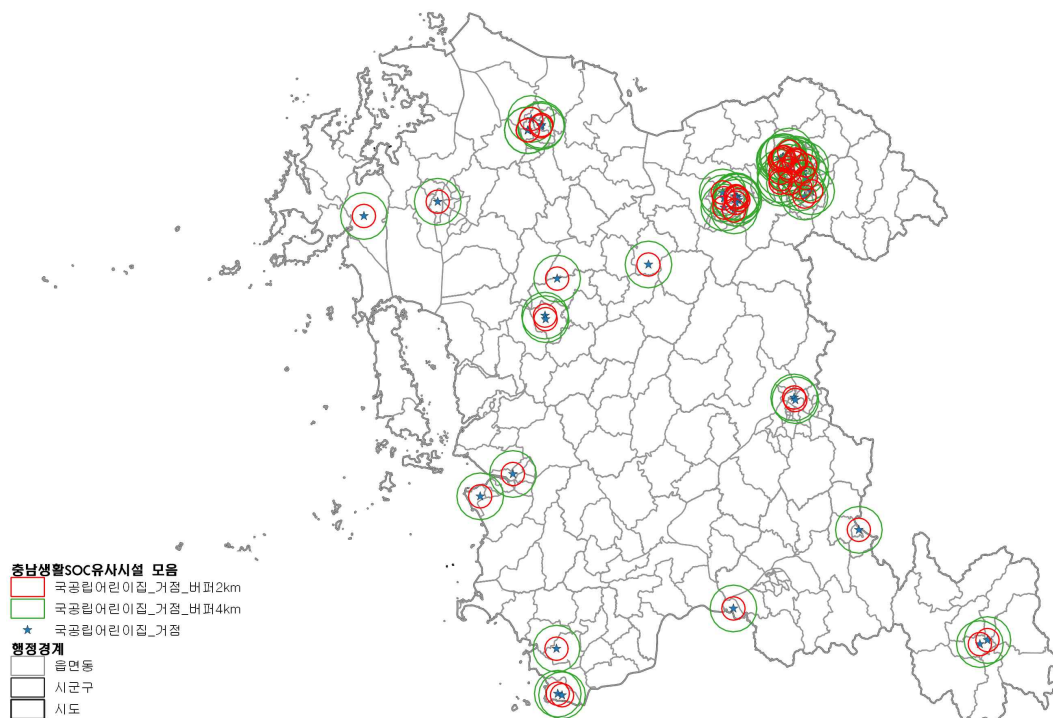
(4) 국공립어린이집(거점)

국공립어린이집 중 거점(차량) 권역에 입지한 것은 51개소로 시지역에 44개소, 군지역에 7개소이다. 천안시가 21개소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당진시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거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7] 국공립어린이집(거점) 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51	44	21	3	2	9	1		1	7	7	2		1		2	1	1
동읍(소재)	51	44	21	3	2	9	1		1	7	7	2		1		2	1	1
비율(%)	100	86	41	6	4	18	2		2	14	14	4		2		4	2	2
일반읍면																		
비율(%)																		

거점(차량) 권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 보면, 시·군 전체를 대표하는 수위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에 비해 영유아 비중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6] 국공립어린이집(거점) 서비스 범위 분석도

마을(도보) 권역 국공립어린이집에서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거점)은 영유아라는 명확한 목적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영유아 비중이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지니는 동·읍·소재지 중심지역 내에 입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생활 및 교육서비스 전달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농어촌지역은 민간어린이집 등을 통해 보완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부분 시·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미설치된 지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수위도시와 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기 설치된 지역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생활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5) 생활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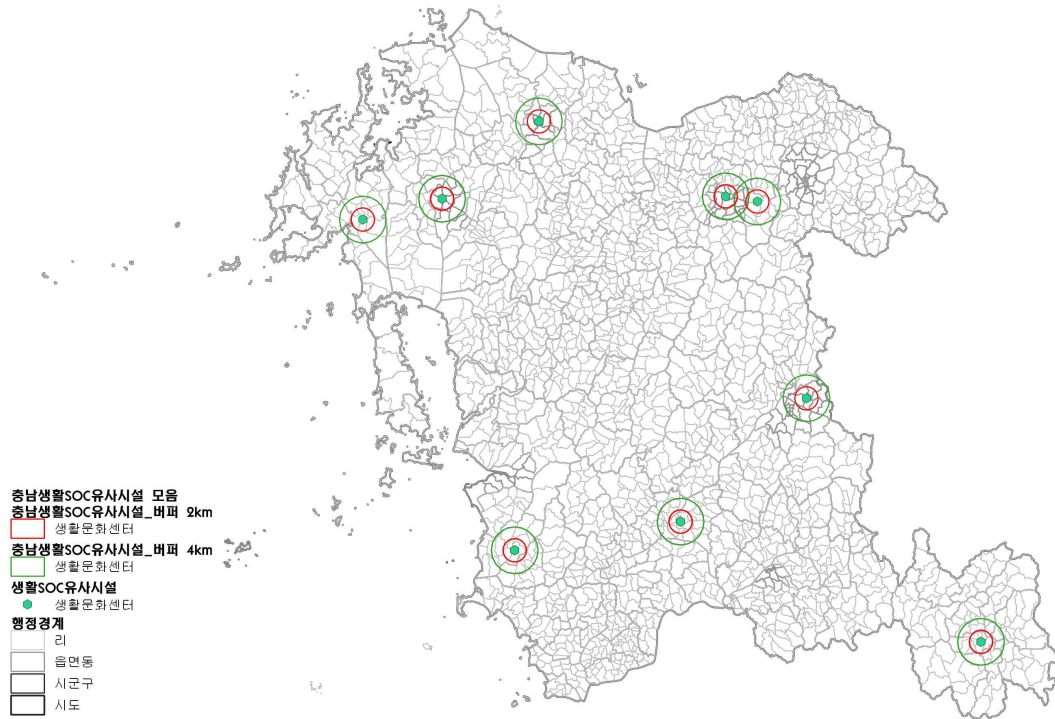
생활문화센터는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지역에 9개소, 군지역에 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 중 대부분(11개소, 79%)가 동지역이나 읍소재지와 같은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일반 읍·면지역에는 3개소(전체 21%)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에서는 아산시, 서산시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시, 논산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은 생활문화센터 유형에 포함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8] 생활문화센터 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14	9		1	2	3	2			1	5	2	2						1
동읍(소재)	11	6		1		2	2			1	5	2	2						1
비율(%)	79	43		7		14	14			7	36	14	14						7
일반읍면	3	3			2	1													
비율(%)	21	21			14	7													

시설 수를 기준으로 한 단순비교에서는 기 설치된 시·군에서의 생활문화센터 공급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동·읍소재지

나 읍·면 중심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주변지역이나 배후 농어촌지역에서는 생활 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생활문화센터 서비스 범위 분석도

(6)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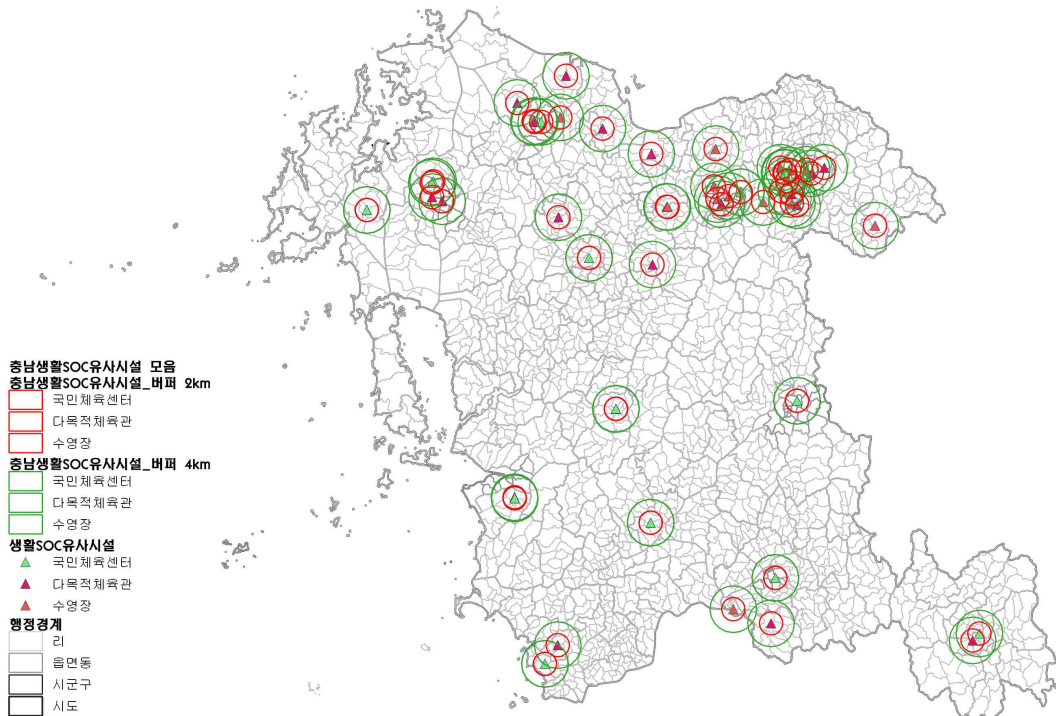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이 포함되며 현재 충남지역 내 총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지역에 46개소, 군지역에 16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 중 동지역이나 읍소재지와 같은 중심지역에 40개소(전체 65%), 일반 읍·면지역에 22개소(전체 35%)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순으로 많이 분포하며, 군지역은 대부분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계룡시, 홍성군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9] 체육시설 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62	46	13	2	3	12	5	4		7	16	2	2	3	3		4	2	
동읍(소재)	40	31	12	2		6	5	2		4	9	2		1	3		1	2	
비율(%)	65	50	19	3		10	8	3		6	15	3		2	5		2	3	
일반읍면	22	15	1		3	6		2		3	7		2	2			3		
비율(%)	35	24	2		5	10		3		5	11		3	3			5		

체육시설의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모든 시·군에서 인구나 시설이 밀집된 동·읍소재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거점으로 역할하는 읍·면지역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구규모를 통한 단순비교 보다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이용성을



[그림 3-8] 체육시설 서비스 범위 분석도

거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련 생활서비스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육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로 인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야 관련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2) 충남 생활 SOC 유사시설 분포 및 서비스 범위 분석 종합

생활 SOC 유사시설은 충남 지역에 총 369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83개소로 가장 많은 생활 SOC 유사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룡시가 5개소, 부여군, 예산군이 10개소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동지역·읍소재지는 총 206개소, 일반 읍·면지역은 163개소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지역별 생활 SOC 유사시설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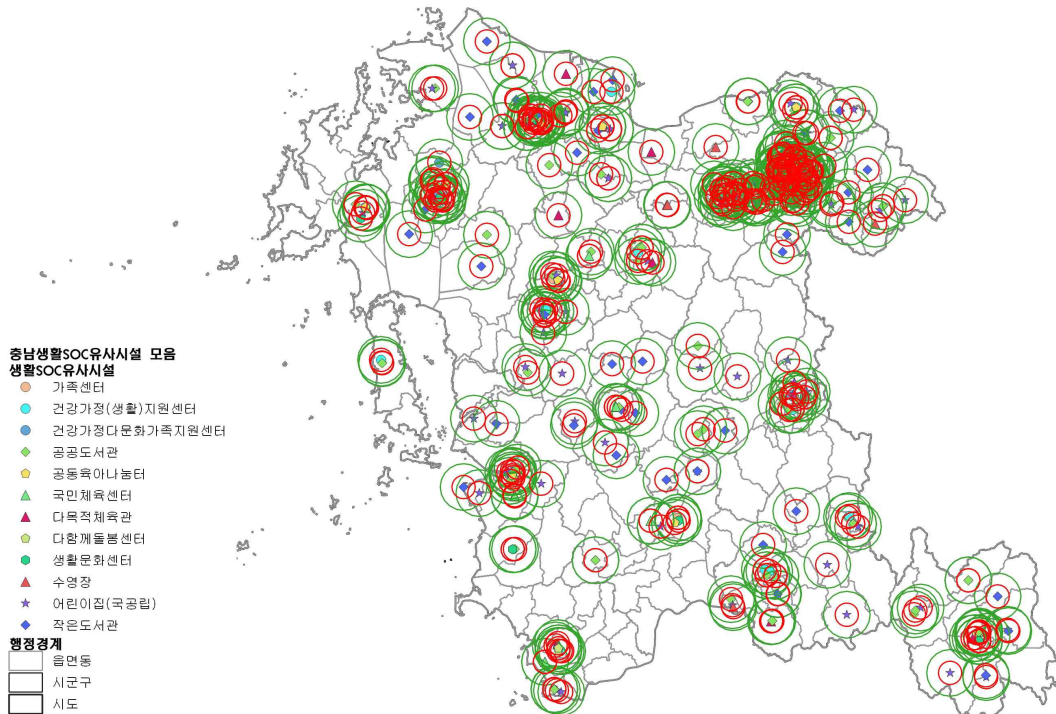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369	264	83	17	23	46	24	18	5	48	105	24	10	13	19	18	10	11	
동읍(소재)	206	154	59	12	12	24	17	6	3	21	52	13	5	7	6	7	6	8	
비율(%)	56	42	16	3	3	7	5	2	1	6	14	4	1	2	2	2	2	2	
일반읍면	163	110	24	5	11	22	7	12	2	27	53	11	5	6	13	11	4	3	
비율(%)	44	30	7	1	3	6	2	3	1	7	14	3	1	2	4	3	1	1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369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마을, 거점)이 총 102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공립도서관 90개소, 체육시설 62개소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이용계층이 영유아로 국한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SOC 유사시설은 267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1] 충남 생활 SOC 유사시설 분포현황

구분	합계	시 지역									군 지역							
		소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소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369	264	83	17	23	46	24	18	5	48	105	24	10	13	19	18	10	11
작은도서관	47	33	15		3		3	3		9	14	4			9	1		
어린이집(마을)	51	36	7	4	2	8	1	4		10	15	4	1	2	3	5		
국립도서관	90	59	14	5	9	10	6	5	3	7	31	9	3	4	4	3	4	4
가족센터	37	26	8	2	1	3	5	2	1	4	11	1	1	1		5	1	2
돌봄공동체센터	17	11	5		1	1	1			3	6		1	2		2		1
어린이집(가정)	51	44	21	3	2	9	1		1	7	7	2		1		2	1	1
생활문화센터	14	9		1	2	3	2			1	5	2	2					1
체육시설	62	46	13	2	3	12	5	4		7	16	2	2	3	3		4	2

생활 SOC 유사시설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구 및 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전반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인구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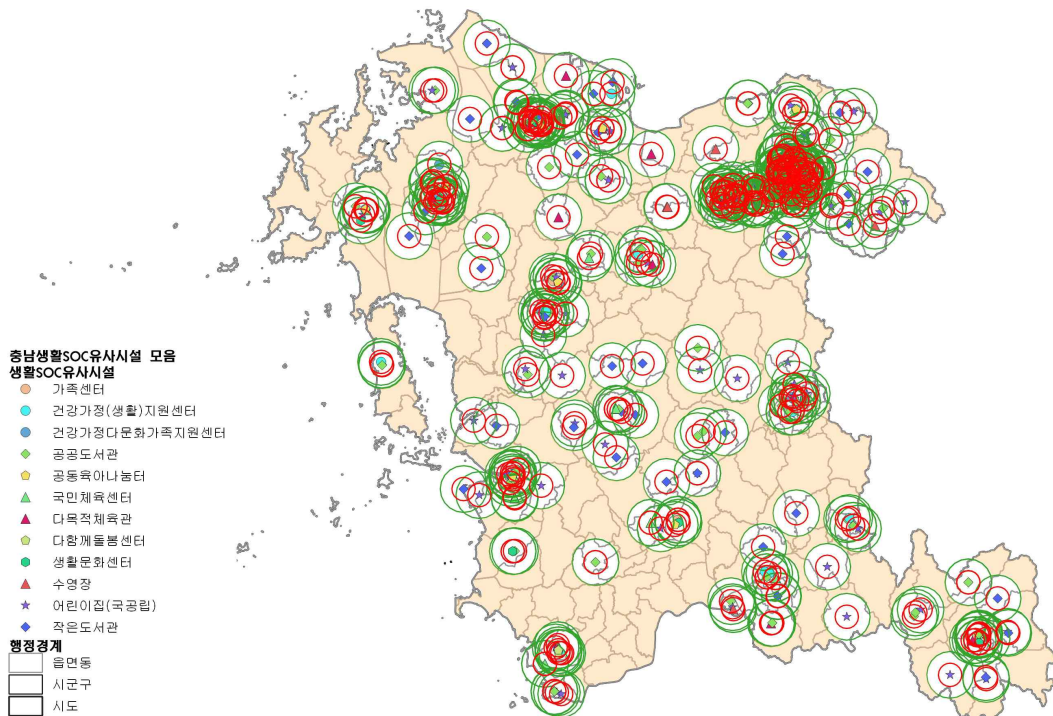


[그림 3-9] 충남 생활 SOC 서비스 범위 분석도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활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이러한 인구 및 시설 밀집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활서비스 공급이나 전달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3) 교통접근성 및 인구규모를 고려한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필요성

생활 SOC 유사시설이 입지하지 않거나 생활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인구나 시설 밀집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 SOC 유형별 취약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취약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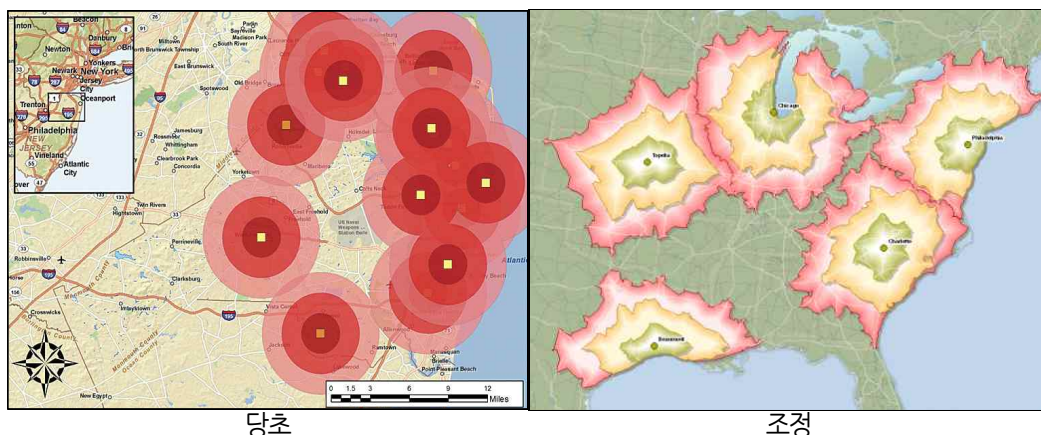


[그림 3-10] 직선거리를 활용한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결과

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많은 지역이 생활 SOC 취약지역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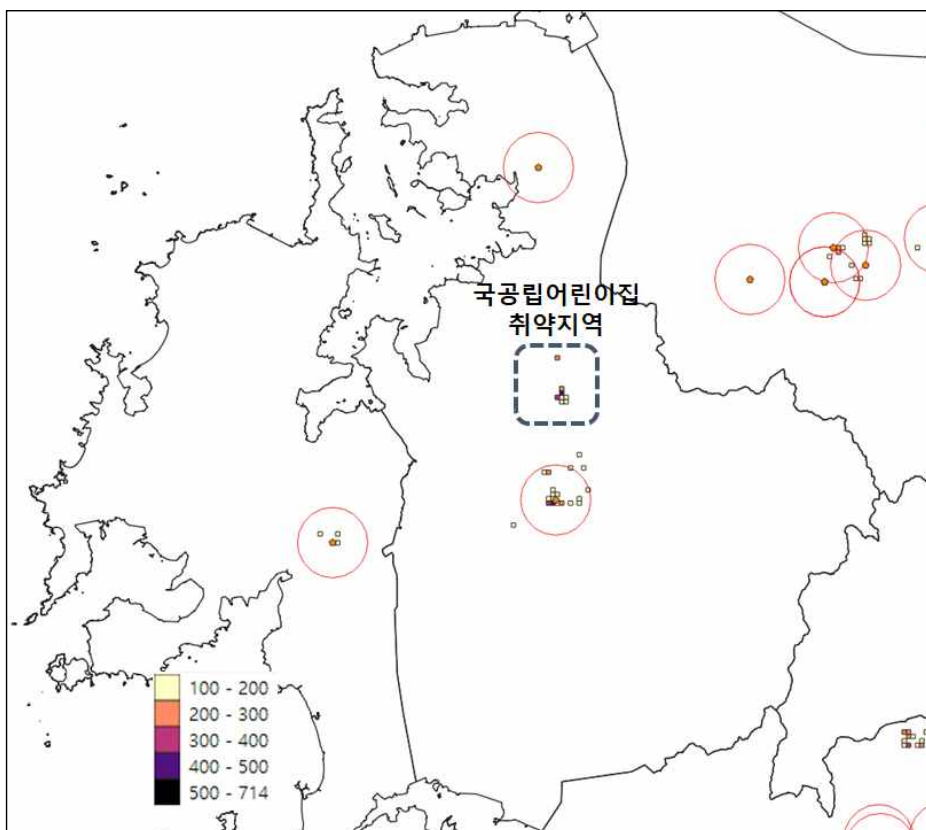
또한,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은 단순한 직선거리를 통한 분석만이 아닌, 교통접근성 및 서비스 인구 규모 등 국가에서 제시한 최저기준과 공급기준 등을 고려한 생활 SOC 유형별 분석과 그 결과의 중첩을 통해 취약지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유형을 중첩하는 것은 생활 SOC 사업이 복합화에 기초하여 2개 이상의 기능이나 서비스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유형별 최저기준 및 공급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최저기준이 도보와 차량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생활 SOC 시설 유형별 거리/시간 기준은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교통체계를 고려한 실제 사람들의 교통접근성을 시간으로 환산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생활 SOC 유사시설에 대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 반경에 입지한 지역은 동일 생활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교통체계나 지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한 생활서비스 범위에 대한 재검토 및 취약지역 발굴이 필요하다.



[그림 3-11]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예시

공급기준 측면에서도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위에서 제시된 모든 지역이 취약 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1,500명, 비도시지역은 500명의 인구 규모를 지닌 지역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인구규모가 이보다 적은 지역은 우선 공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공급기준에 부합되는 인구 규모를 지닌 지역만을 취약지역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분석 결과, 아래 그림에서 같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서산시 동부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격자 250m 당 영유아 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서산시 일부 지역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인구규모를 고려한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예시

3. 교통접근성을 활용한 생활 SOC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

1) 학습 분야 취약지역

(1)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총 47개소이며 공급기준은 1개소당 7.6천명이다. 현재 설치현황을 기준으로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인구수를 비교(설치 기준)하며, 청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규모가 큰 천안시, 아산시의 공급기준에 따라 약 70.6개소, 43.1개소의 작은도서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구규모가 작은 금산군, 계룡시, 서천군 등은 추가설치가 필요하나 그 수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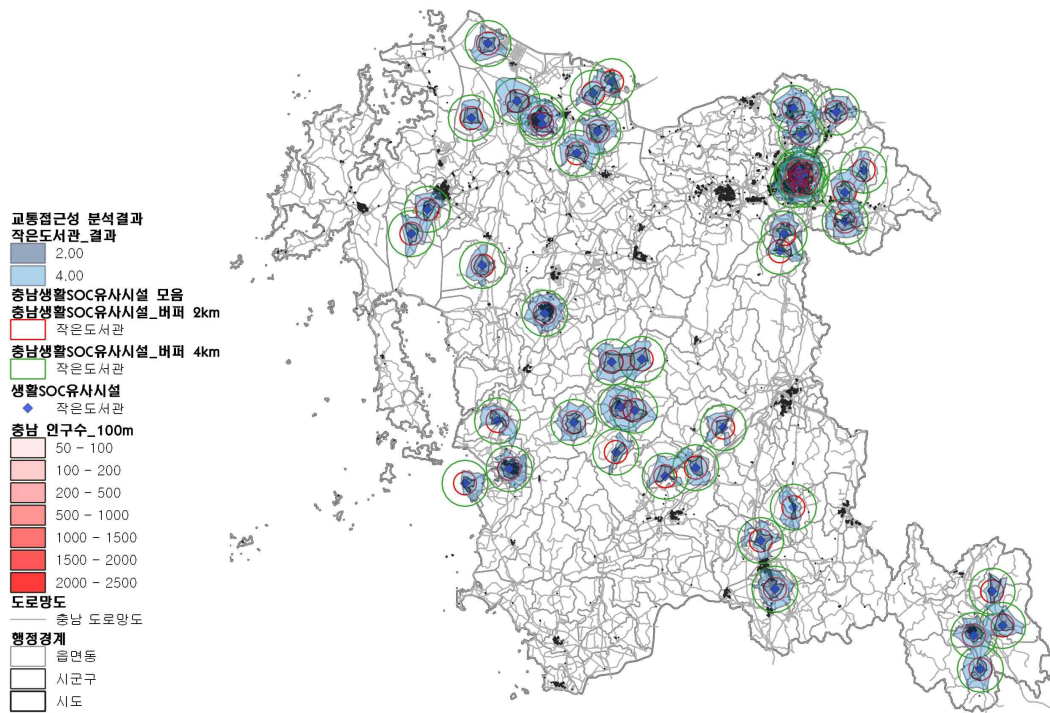
[표 3-12] 인구규모 기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과 현황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설치기준	85.6	14.5	13.9	43.1	23.1	16.6	5.8	22.7	7.3	9.2	7.4	4.4	13.7	10.9	8.6
설치현황	15	0	3	0	3	3	0	9	4	0	0	9	1	0	0
과/부족	-70.6	-14.5	-10.9	-43.1	-20.1	-13.6	-5.8	-13.7	-3.3	-9.2	-7.4	4.6	-12.7	-10.9	-8.6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의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도출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생활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실제 분석에서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관련 생활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모든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모든 지역이 아닌 이용수가 있는 적정 인구규모를 지닌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이 마을 단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나 시설 밀집도가 높은 동지역·읍소재지, 일반 읍·면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마을 지역에 대한 분

포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작은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분류되는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부여군 등 7개 시·군의 경우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생활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3] 작은도서관 교통접근성 분석도

(2) 국공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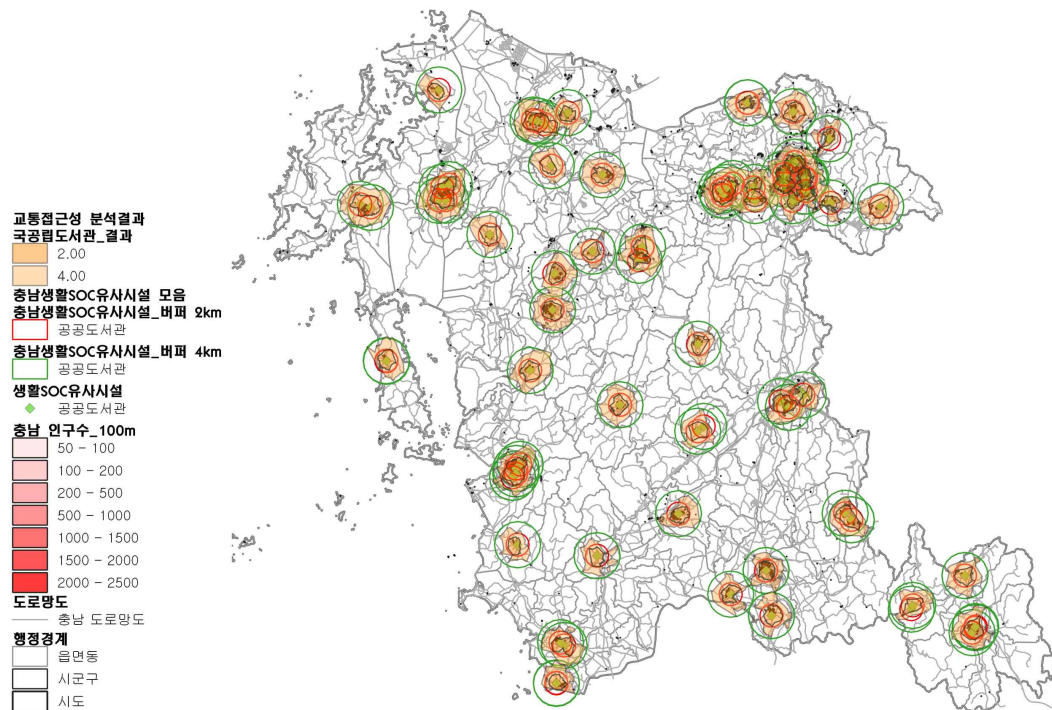
국공립도서관은 총 51개소로 공급기준은 1개소당 4.3만명으로, 현재 설치현황을 기준으로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인구수를 비교(설치 기준)하며, 현재 충남의 시·군 당 인구 규모가 평균 145,395명으로 국공립도서관은 시·군 당 3.4개소가 설치되면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안시와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15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인구가 적은 청양군 등은 0.8개소만 설치되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구규모와 설치 현황을

비교하면, 15개 시·군 중 천안시는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약 15.1개소의 국공립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14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약 1.1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나머지 시·군은 현재 수준에서도 충분한 생활 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3] 인구규모 기준 국공립도서관 설치 기준과 현황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설치 기준	15.1	2.6	2.5	7.6	4.1	2.9	1.0	4.0	1.3	1.6	1.3	0.8	2.4	1.9	1.5
설치 현황	14	5	9	10	6	5	3	7	9	3	4	4	3	4	4
부족 현황	-1.1	2.4	6.5	2.4	1.9	2.1	2.0	3.0	7.7	1.4	2.7	3.2	0.6	2.1	2.5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국공립도서관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기준으로 도출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생활서비스 공급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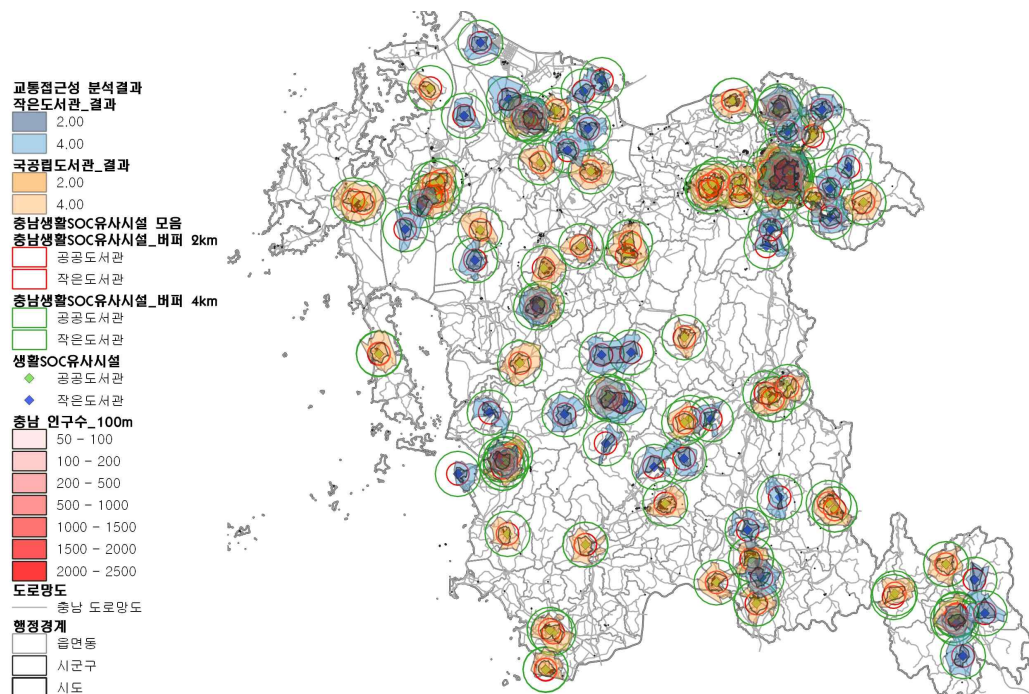
[그림 3-14] 국공립도서관 교통접근성 분석도

루어지는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실제 분석에서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관련 생활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인구 밀도를 지닌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국공립도서관이 중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시·군에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생활서비스를 배후마을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천안시와 당진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일부지역에 생활서비스 범위가 중첩되어 생활서비스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직선거리와 비교해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학습 분야 취약지역 종합

학습 분야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과 국공립도서관을 종합하여 두 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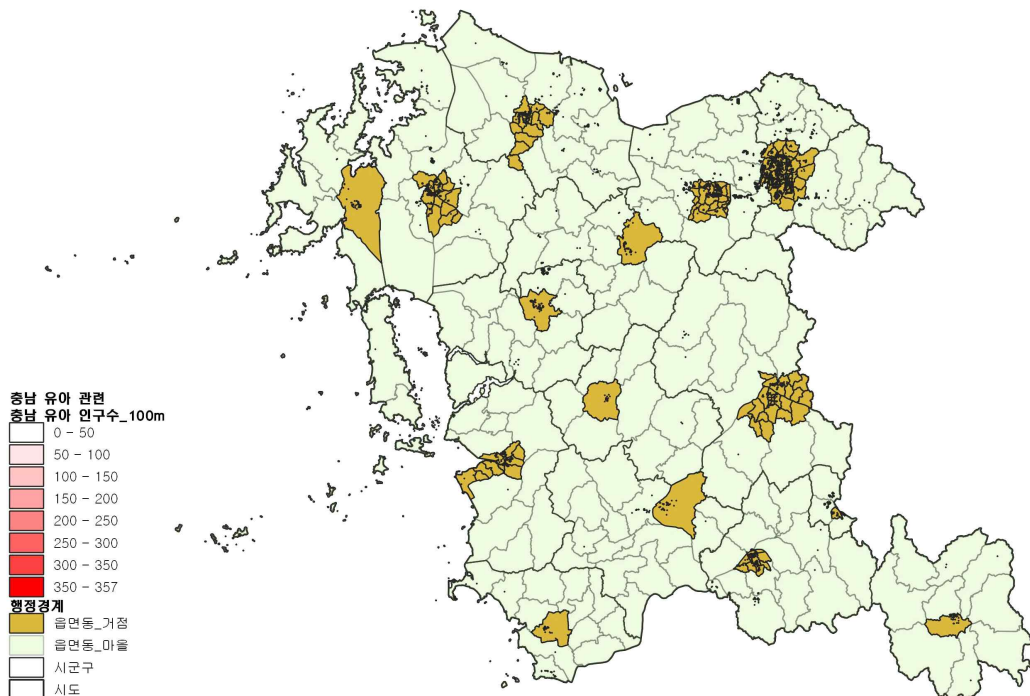
[그림 3-15] 학습분야 교통접근성 분석 종합도

먼저, 시지역에서는 작은도서관과 국공립도서관이 대부분 동지역·읍소재지에서 중첩되어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시설이 차이가 있으나 생활서비스 공급의 중첩성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역이나 군지역에서는 국공립도서관을 통해 관련 생활서비스를 보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은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역은 국공립도서관을 통해 관련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공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돌봄 분야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02개로 공급기준은 마을지역은 2km 내 소외영유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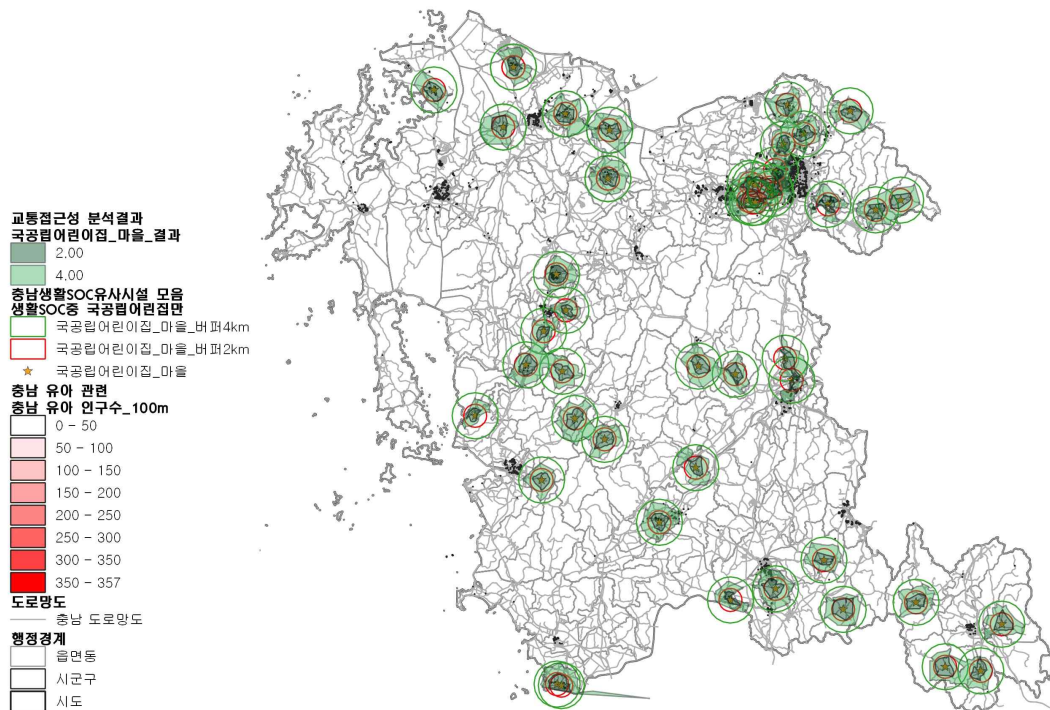


[그림 3-16] 돌봄 분야 취약지역 분석도

인 이상, 지역거점지역은 2km 내 소외영유아 1,500인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영유아 인구의 규모를 국토통계지도(2019) 상의 인구격자 중 영유아 인구를 100m 단위로 살펴보면, 지역거점지역은 영유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천안시 서북지역과 홍성군 연접지역, 서산시 북부지역 등을 제외하고 마을지역에서의 영유아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1) 국공립어린이집(마을)

국공립어린이집(마을)은 총 51개소로 공급기준은 2km 내 소외영유아 500인 이상, 도보 기준 5분(250m)으로,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마을)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영유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거점지역(동지역·읍소재지)과 연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며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인구밀도가 높은 천안시, 아산시 지역거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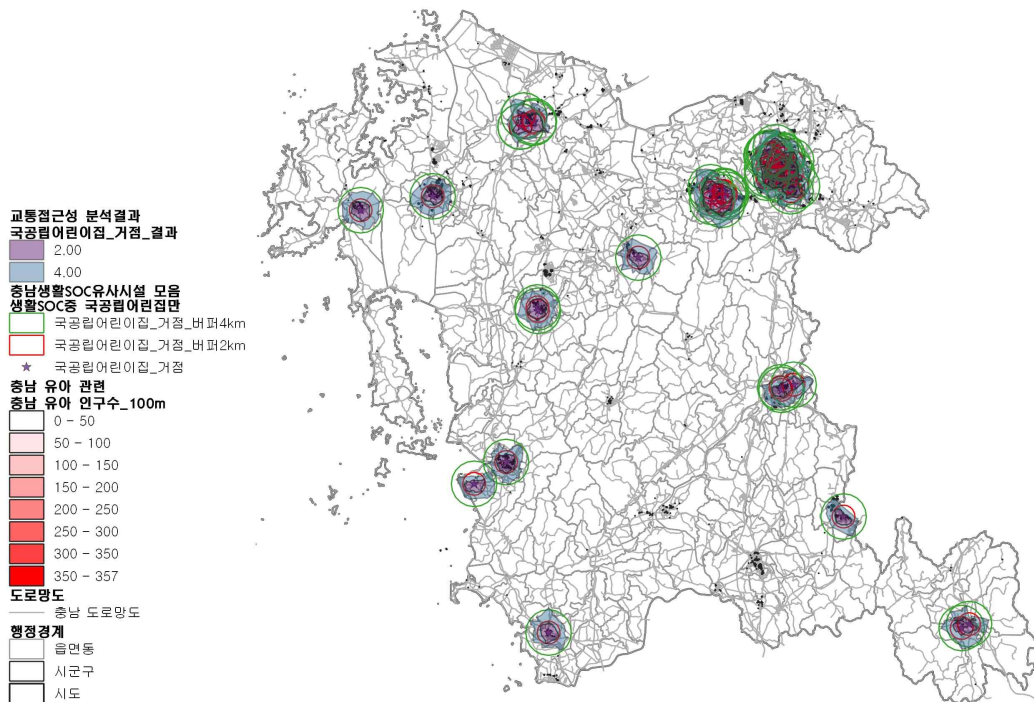


[그림 3-17] 국공립어린이집(마을) 교통접근성 분석도

인근에 집중되어 일부 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편중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며, 당진시나 홍성군, 금산군 등 영유아 인구가 읍·면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국공립어린이집(거점)

국공립어린이집(거점)은 총 51개소로 공급기준은 2km 내 소외영유아 1,500인 이상, 차량 기준 5분(2km)으로,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거점)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영유아 인구 뿐만 아니라 기존 인구 및 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거점지역(동지역·읍소재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인구밀도가 높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는 비교적 많은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1~3개 정도의 시설이 입지하여 관련 생활서비스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 21개 시설이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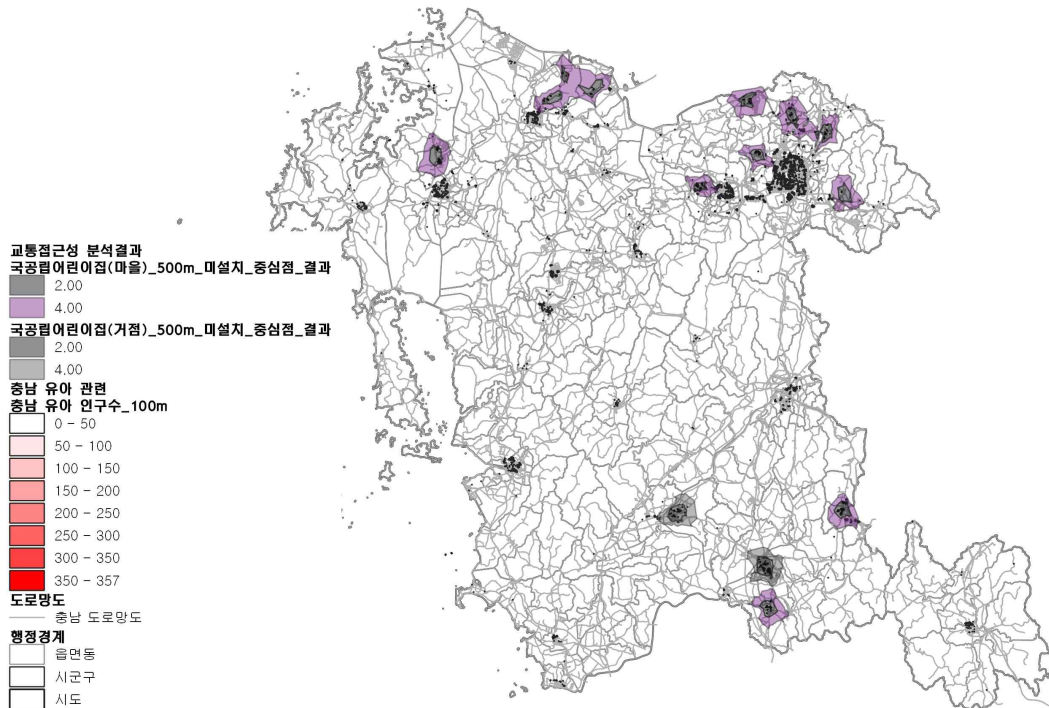
[그림 3-18] 국공립어린이집(거점) 교통접근성 분석도

한 지역에 편중되어 생활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국공립어린이집 분석 종합 및 취약지역 도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역거점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목적계층이 영유아이기 때문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의료 및 복지, 교육 등이 밀집된 지역거점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지역거점지역에 비해서는 적지만 비교적 많은 영유아 인구가 거주하는 읍·면지역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진시나 홍성군과 같은 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활성화 등으로 마을지역에 영유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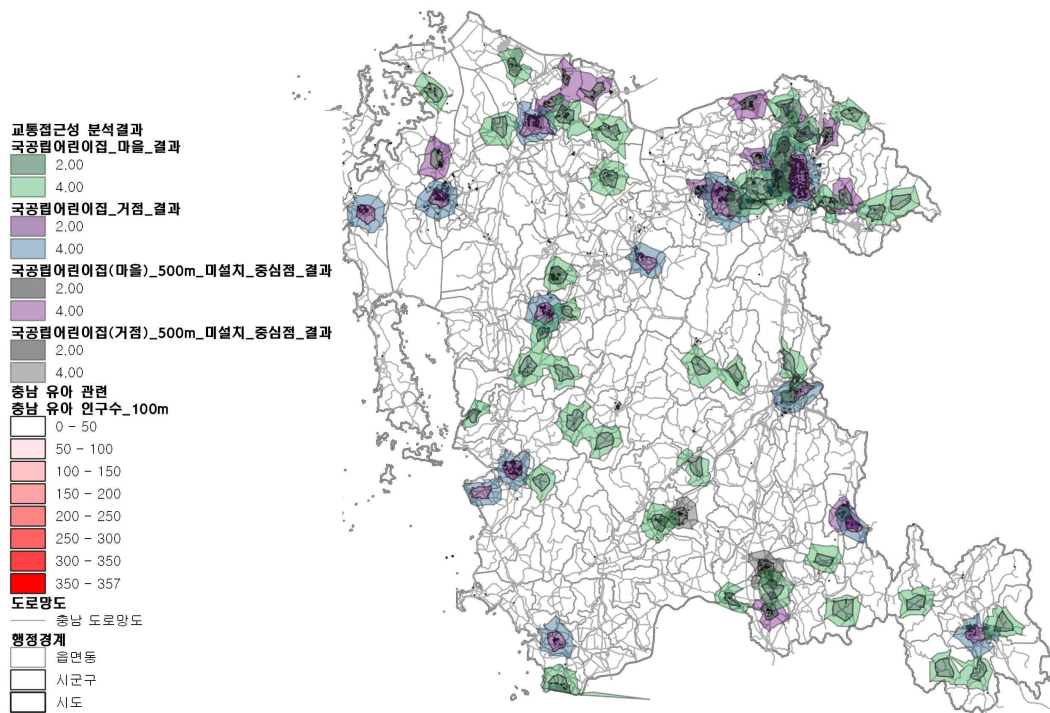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지역은 영유아 인구 밀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



[그림 3-19] 영유아 인구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서비스 필요 범위

을 고려하여, 충남에서 영유아 인구 밀도가 공급기준을 상회하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 즉 취약지역을 분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을지역에서 12개소, 거점지역에서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을지역은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 계룡시에서 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거점지역은 논산시와 부여군에서 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취약지역은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지역은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지역 인접부에서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천안시나 서산시의 경우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요구되는 취약지역도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3-20]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및 생활서비스 필요 범위 중첩

3) 돌봄 분야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관련 취약지역

(1)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총 37개소이며 공급기준은 시·군 당 평균 0.5개소 이상, 거리기준 20분(8km) 이내로 제시되어 있다. 현재 시·군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청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공급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7.5개소로 가족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 90% 이상이 동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중심지역 집중은 당진시와 홍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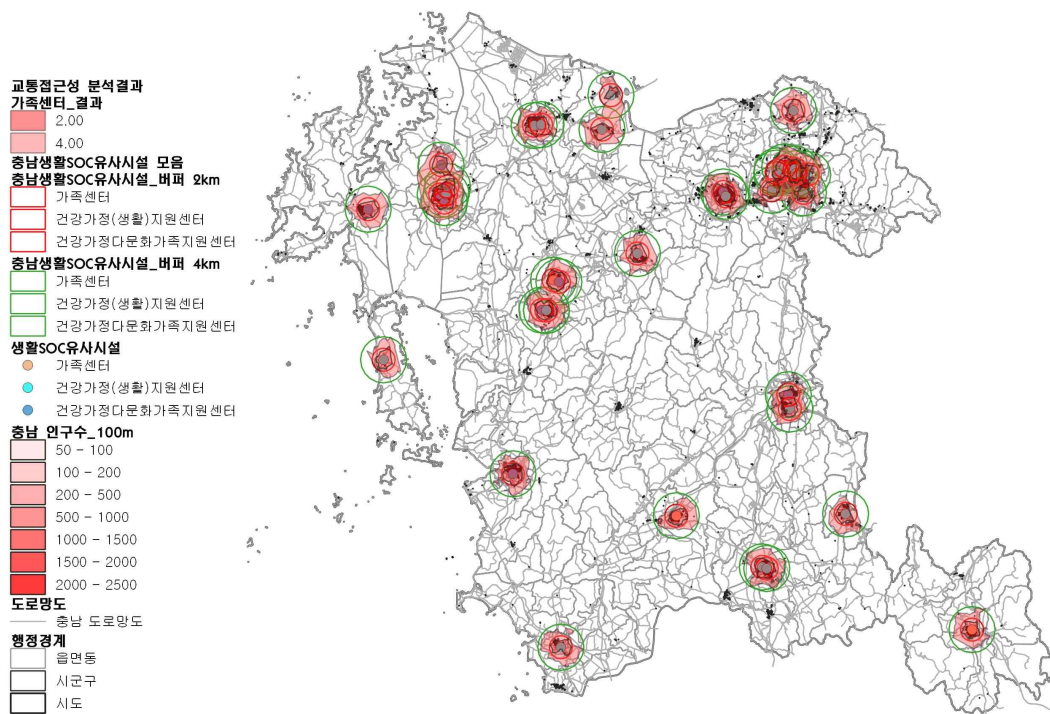
[표 3-14] 공급기준 대비 가족센터 설치 현황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설치 기준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설치 현황	8	2	1	3	5	2	1	4	1	1	1	0	5	1	2
부족 현황	7.5	1.5	0.5	2.5	4.5	1.5	0.5	3.5	0.5	0.5	0.5	-0.5	4.5	0.5	1.5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센터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와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할 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공급기준에 대부분 부합되지만 관련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이용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시설 밀도가 높은 천안시 등 일부지역은 생활서비스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2) 돌봄 및 육아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는 총 17개소이며 공급기준은 가족센터와 마찬가지로 시·군 당 평균 0.5개소 이상, 거리기준 20분(8km) 이내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9개 시·군은 공급기준을 충족하지만 돌봄 및 육아센터가 미설치된 6개 시·군은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개소 중 동지역·



[그림 3-21] 가족센터 교통접근성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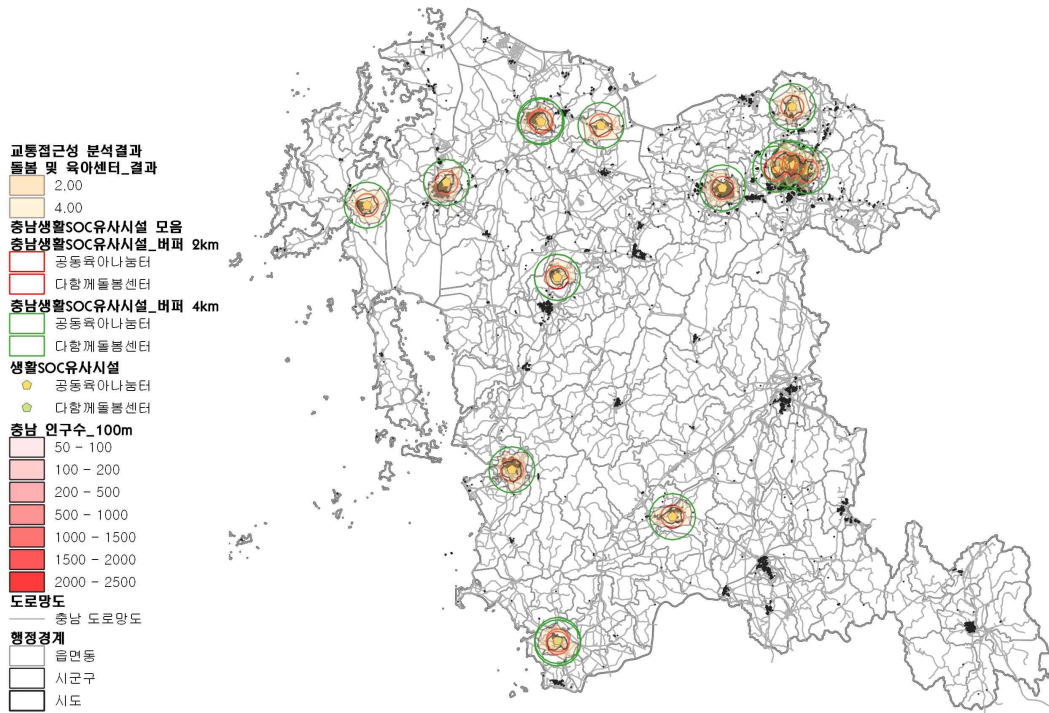
읍소재지에 13개소, 일반 읍·면지역에는 4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다. 가족센터와 마찬가지로 중심지역의 집중현상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5] 공급기준 대비 돌봄 및 육아센터 설치 현황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설치 기준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설치 현황	5	0	1	1	1	0	0	3	0	1	2	0	2	0	1
부족 현황	4.5	-0.5	0.5	0.5	0.5	-0.5	-0.5	2.5	-0.5	0.5	1.5	-0.5	1.5	-0.5	0.5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돌봄 및 육아센터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와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할 때 차이가 있으며, 기존에 생활서비스 공급지역의 일부가 취약지역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미 설치 지역은 공급기준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설치 지역에서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이용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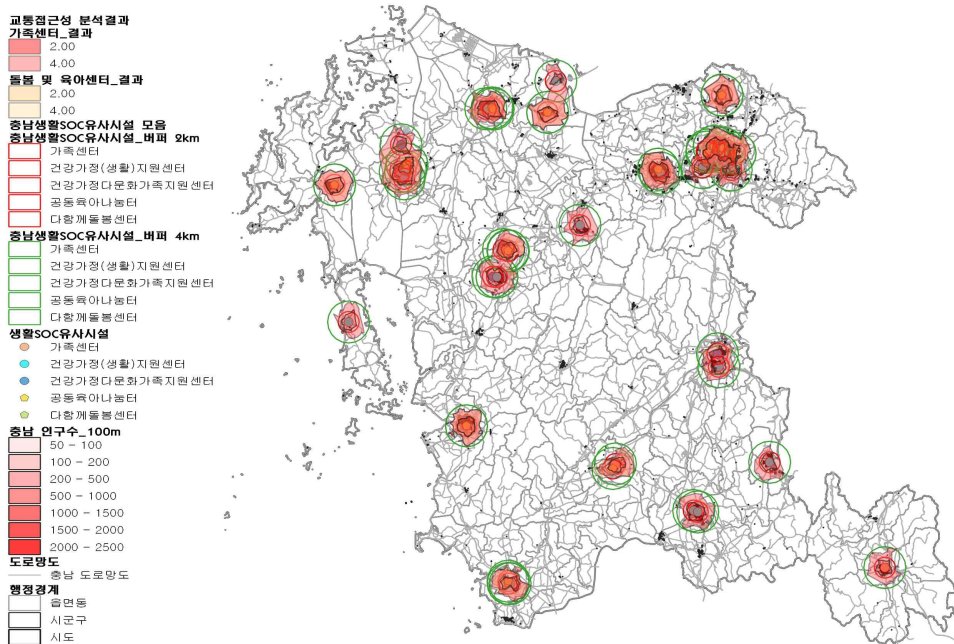


[그림 3-22] 돌봄 및 육아센터 교통접근성 분석도

(3)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분석 종합

돌봄과 관련된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와 관련한 취약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관련 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대부분 중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며, 시설이 미설치된 청양군의 경우 모든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가족센터 등에 대한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

다만, 가족센터 등은 인접 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기 보다 입지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생활서비스가 편중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23]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교통접근성 분석 종합

4) 생활문화센터 취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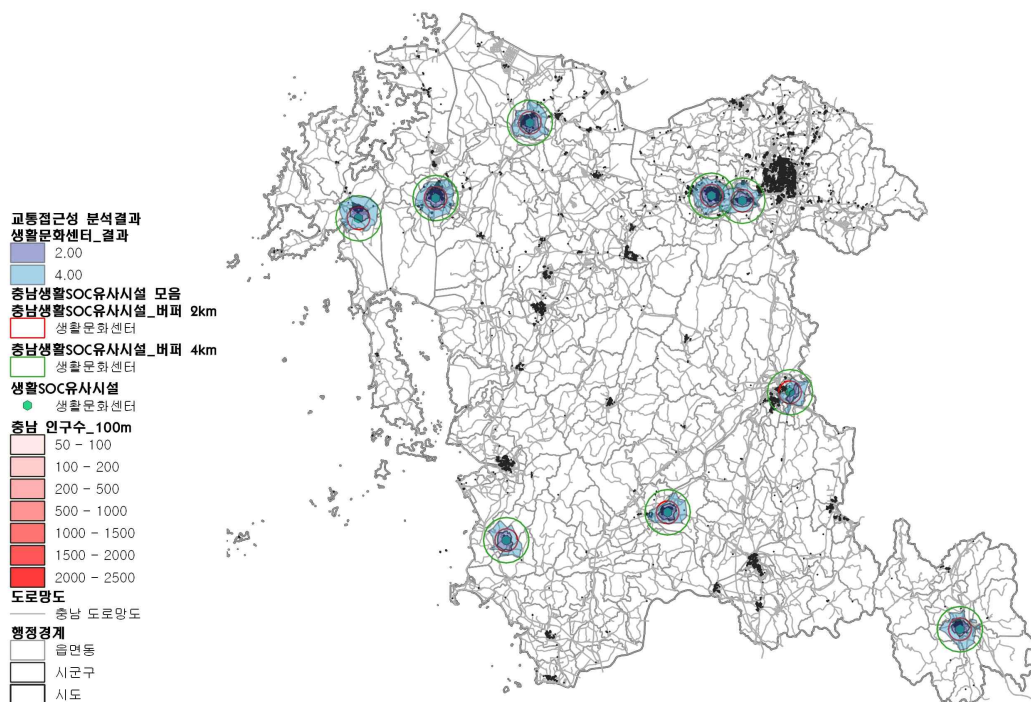
생활문화센터는 총 14개소이며 공급기준은 시·군 당 평균 1.3개소 이상, 거리 기준 10분(4km) 이내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기 설치된 지역 중 공주시, 당진시, 태안군은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은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안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은 생활문화센터가 미설치되어 있어 관련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6] 공급기준 대비 생활문화센터 설치 현황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설치 기준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설치 현황	0	1	2	3	2	0	0	1	2	2	0	0	0	0	1
부족 현황	-1.3	-0.3	0.7	1.7	0.7	-1.3	-1.3	-0.3	0.7	0.7	-1.3	-1.3	-1.3	-1.3	-0.3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분석하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도출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생활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실제 분석에서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관련 생활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역 중 이용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분류 상 지역거점에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마을이나 소규모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다. 이로 인해 중심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필요하나 배후지역에 대한 충실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급기준과 별도로 지역 전체에 고른 분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관련 시설이 미설치된 7개 시·군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시·군에서도 생활문화센터의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취약지역을 해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4] 생활문화센터 교통접근성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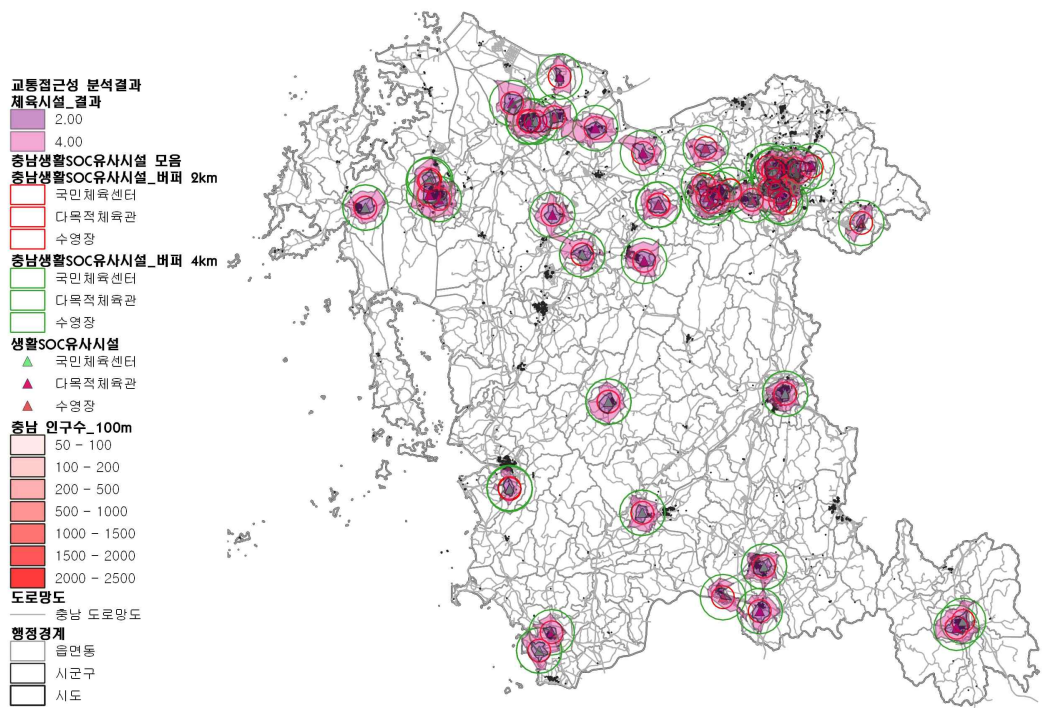
5) 체육시설 취약지역

체육시설의 공급기준을 살펴보면 1개소 당 4만명의 인구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리 기준으로 10분(4km)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천안시와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13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인구가 적은 청양군 등은 0.8개소만 설치되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구규모와 설치 현황을 비교하면, 천안시는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약 16.3개소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13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약 3.3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미설치된 2개 시·군은 1.1~2.6개소의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시·군은 현재도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7] 인구규모 기준 국공립도서관 설치 기준과 현황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설치 기준	16.3	2.8	2.7	8.2	4.4	3.2	1.1	4.3	1.4	1.8	1.4	0.8	2.6	2.1	1.6
설치 현황	13	2	3	12	5	4	0	7	2	2	3	3	0	4	2
부족 현황	-3.3	-0.8	0.3	3.8	0.6	0.8	-1.1	2.7	0.6	0.2	1.6	2.2	-2.6	1.9	0.4

체육시설에 대해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역 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분석하면, 앞 선 다른 생활 SOC 유사시설과 마찬가지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가 직선거리 기준 분석결과와 교통접근성 기준 분석 결과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생활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실제 분석에서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육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며, 기 설치된 지역도 이용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3-25] 체육시설 교통접근성 분석도

4. 충남 생활 SOC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 종합

(1)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 차이

교통접근성 기준의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 결과 직선거리를 통해 생활서비스 범위를 분석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6]과 같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생활 SOC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가 생활서비스 범위로 분석되지만, 교통접근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 내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생활서비스 범위가 축소되거나 부정형적 생활서비스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선거리와 교통접근성 분석 결과 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생활 SOC 유사시설에서 동일거리에 입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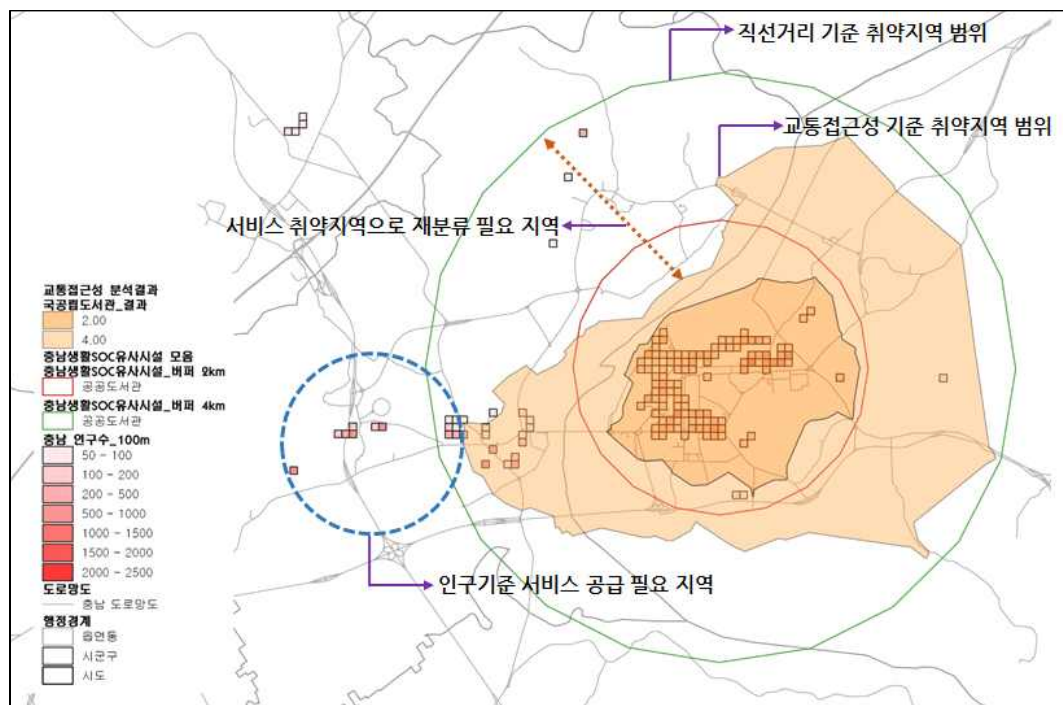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준에 대한 부합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급기준이 실제 이용성과 관련성이 적다는 점(국공어린이집은 별도)에서 참고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나 취약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통접근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유사시설별 최소기준과 현재 지역별 교통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급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실제 이용수요를 명시한 경우는 이들을 고려한 교차분석과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 선 연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먼저 현재 생활 SOC 유사시설의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를 교통접근성을 통해 분석하고, 다음으로 공급기준에 따른 이용계층인 영유아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생활서비스 공급 범위를 도출하였다. 두 번의 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와 생활서비스 공급 범위 간 차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취약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질적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도출은 교통접근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활서비

스 전달 범위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생활 SOC 유사시설의 경우 공급기준에서 제시된 기준을 활용한 공급범위 분석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모든 지역을 취약지역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사례에서와 같이 목적계층의 인구밀집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취약지역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량적인 개념으로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일정 수준의 인구 밀집도를 나타내는 지역은 물리적 취약지역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물리적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취약지역(예, 인구과소지역 등)은 서비스 수혜 취약지역으로 분류한다. 물리적 취약지역은 생활 SOC 시설 확충을 통해 취약지역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서비스 수혜 취약지역은 중심지역이나 생활 SOC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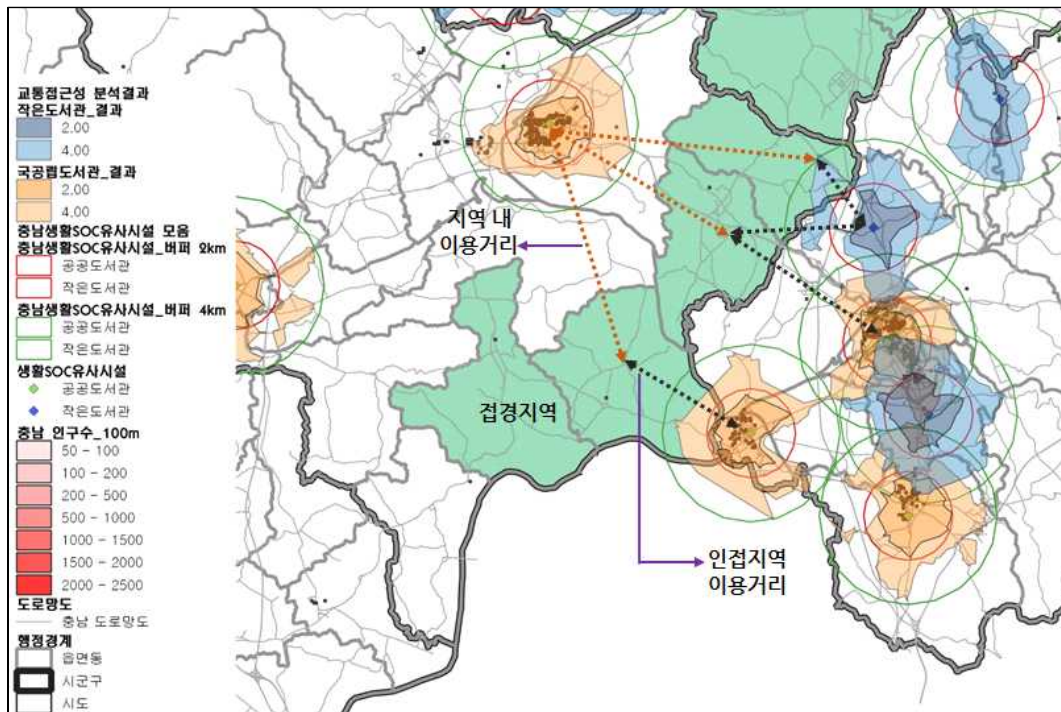


[그림 3-26] 직선거리와 교통접근성 분석 간 생활서비스 전달 범위 차이

(2) 연접지역의 생활 서비스 이용성 문제

분석결과, 대부분의 생활 SOC 유사시설이 인구나 시설 밀집도가 높은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의 이용성이나 운영성 등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배후지역에서는 이용성이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중심지역과 원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시·군 내 연접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한계가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하다. 이들 연접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서비스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달 서비스 체계가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한다고 하여도, 시·군 내 중심지역보다 인접 시·군의 중심지역이나 생활 SOC 유사시설이 입지 지역이 더 가까운 일부 연접지역의 경우는 시·군 내에서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보다 인접한 시·군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시·군 내



[그림 3-27] 연접지역 생활서비스 이용범위 분석

관련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거리/비용 보다 인접 시·군을 이용할 때의 시간거리/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접지역의 경우 시·군 간 연계·협력 등을 통해 공동 이용할 수 있거나, 인접 시·군에서 관련 생활 서비스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신규 사업을 통한 생활서비스 보완 및 중복 문제

생활 SOC 취약지역의 개선을 위해 충남에서는 22개 생활 SOC 신규시설을 복합화(2가지 이상 시설)를 통해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수준 생활서비스 전달 및 수혜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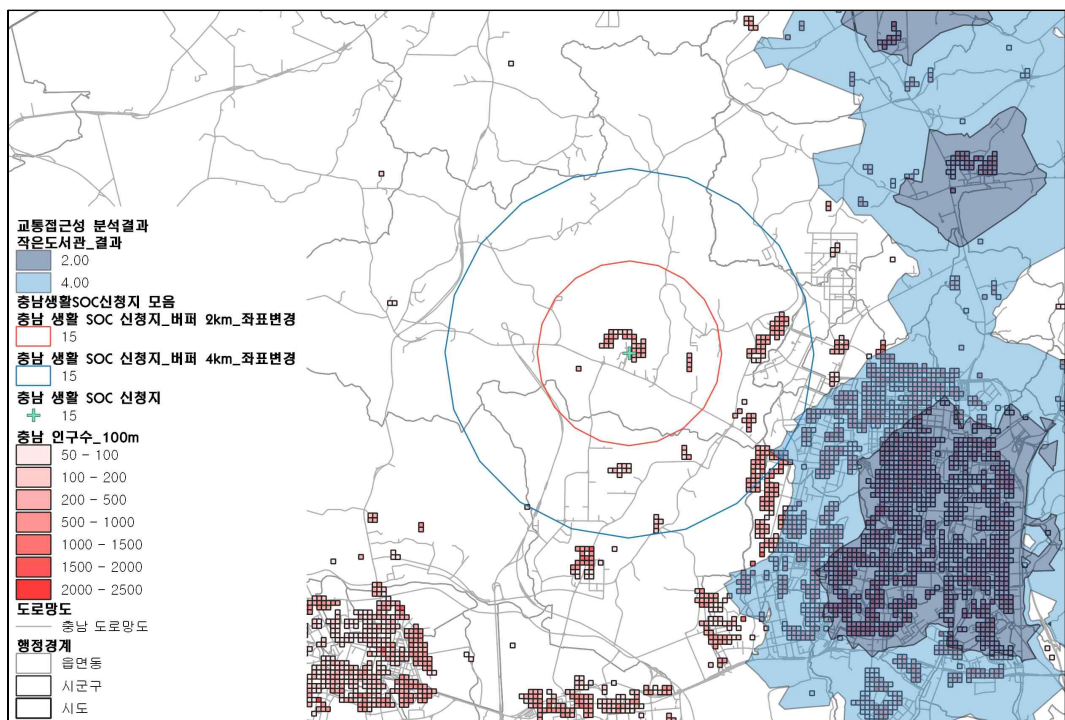
[표 3-18] 19년 충남 생활 SOC 신규사업 중복현황 검토

구분	온양 원도심 문화복합 시설	예산 1100 년 기념관	청양군 가족 문화센터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서천 BRIDGE + 문화센터 복합센터	문북 문화센터	서산시 가족센터	수청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홍성군 건강생활 교통소 센터	태안군 복합 문화센터	천안북 복합센터
마을	작은도서관	○ x			○ ●	○ x	○ x		○ ●		○ x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도서관										
거점	가족센터	○ ●		○ x			○ ●		○ ●	○ ●	○ ●
	돌봄맞춤아센터		○ x	○ x			○ ●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 x	○ x	○ x	○ x		○ ●		○ ●	○ x
	체육시설		○ ●					○ ●			
구분	공주시 복합유 년센터	보령시 가족센터	모종 복합유 년센터	음봉 복합유 년센터	상서 복합유 년센터	연무 복합유 년센터	배방 복합유 년센터	직산 도서관 (신축)	홍성군 문화복합 커뮤니티 센터	서천군 문화복합 커뮤니티 센터	중양 도서관 (리모델링)
마을	작은도서관	○ x		○ x	○ x	○ ●		○ x	○ ●		
	국공립어린이집									○ ●	
	국공립도서관										○ ●
거점	가족센터		○ ●								
	돌봄맞춤아센터		○ ●					○ x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 x		○ ●		○ x	○ x		○ x	○ x	○ x
	체육시설	○ ●					○ ●				

주 : 도입시설(기능) ○, 미중복 x, 중복 ●

생활서비스 전달 및 수혜수준 제고를 위한 생활 SOC 신규시설 도입 방식은 첫째, 생활서비스 중복이 없는 신규시설 도입 방식, 둘째, 아래 그림과 같이 복합화를 전제로 부분적인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신규시설 도입 방식이 있다.

첫째는 음봉복합커뮤니센터나 청양군 가족문화센터와 같이 생활서비스 중복 없이 관련 신규시설 도입을 통해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가 정책이나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식으로, 현재 신규사업을 통해 일부 추진되어 지역의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3-28] 신규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보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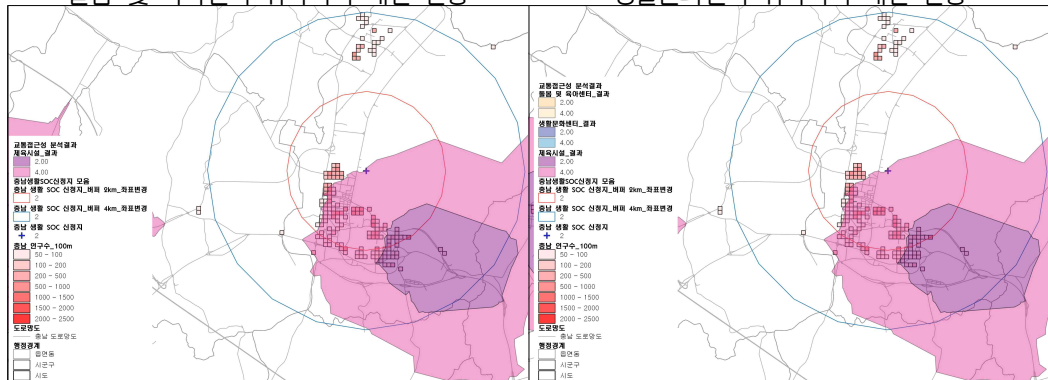
첫 번째 방식이 최선이지만 생활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식도 필요하다. 생활 SOC 정책이 복합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화를 통해 도입되는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분적으로 중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성이

Figure 2 consists of two maps of Seoul, South Korea, compar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10th and 15th National Censuses. Both maps show the same geographical area, but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s different. The left map is titled '10th National Census' and the right map is titled '15th National Census'. Both maps include a legend for population density (people per square kilometer) and a scale bar (0 to 10 km). The legend for both maps is as follows:

- Population density (people per square kilometer):
 - 0 ~ 200
 - 200 ~ 500
 - 500 ~ 1000
 - 1000 ~ 1500
 - 1500 ~ 2000
 - 2000 ~ 2500
- Administrative boundaries:
 - City boundary
 - City district boundary
 - City street

The maps show that the population has become more dispersed in the 15th National Census compared to the 10th National Census. The population density in the central area has decreased, while the population density in the surrounding areas has increased.

생활문화센터 취약지역 개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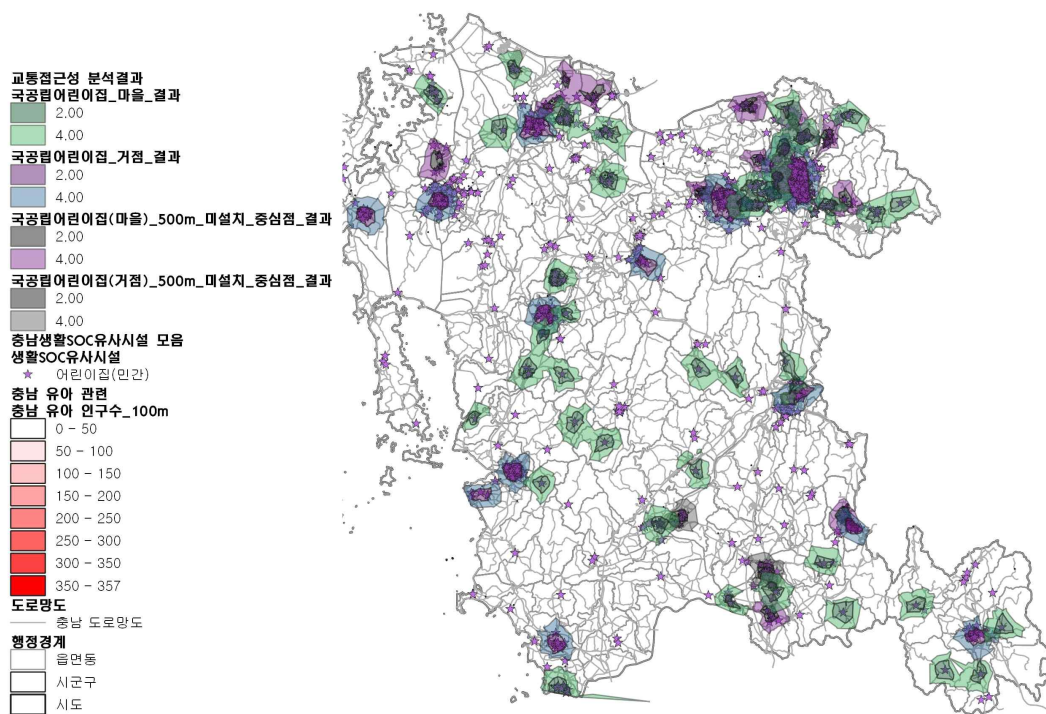
도입시설 취약지역 개선 및 중복현황 종합

(4) 민간시설에 의한 생활 SOC 유사시설 취약지역 보완 문제

70

그러나, 분석대상이 생활 SOC 10대 중점투자시설만으로 국한되면서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로 실질적인 취약지역 분석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거점시설 성격을 지닌 국공립어린이집의 한계를 민간이나 가정, 직장 등에서 보완하는 구조로 연계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분석에서는 [그림 3-20]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이 취약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민간, 가정, 직장 등 포함)을 포함한 [그림 3-30], [그림 3-3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취약지역 혹은 추가 필요지역으로 도출된 지역을 포함하여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 까지 민간어린이집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돌봄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지역이 도출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관련 취약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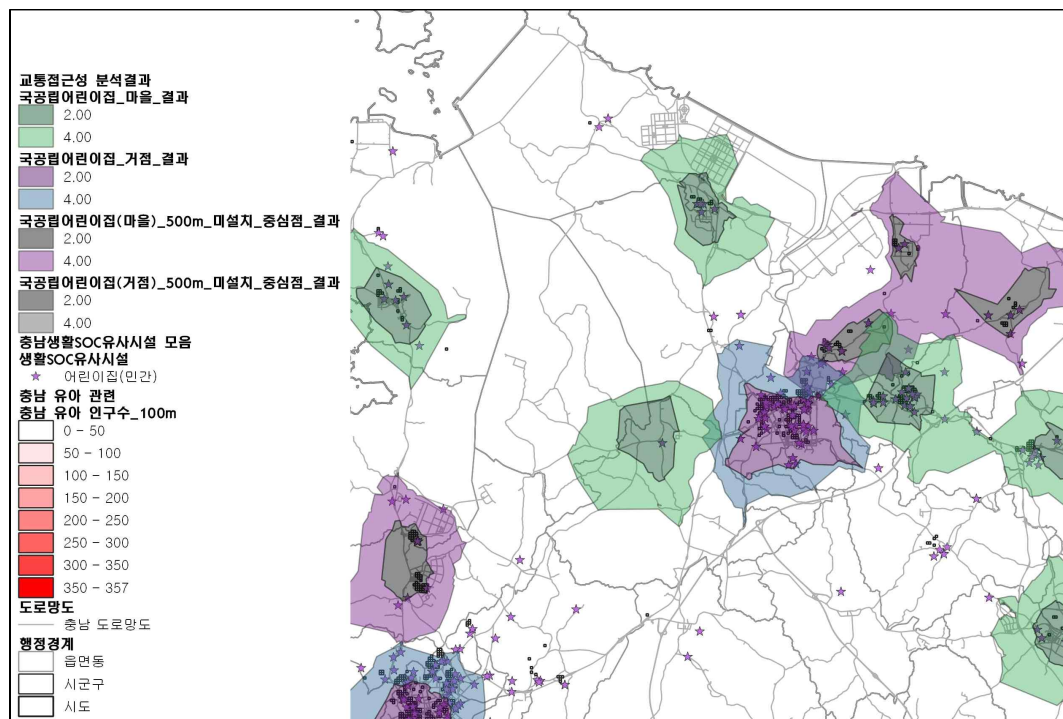


[그림 3-30] 민간시설에 의한 생활서비스 보완 사례(어린이집 사례)

충남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주체별 보완 및 연계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거나 추가적인 시설이 시급히 조성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아래 그림과 같이 어린이집 관련 생활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재의 분석 결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된 생활 SOC 10대 중점투자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정책이나 예산 관련 한계로 인한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으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취약지역 분석은 현재보다 세분화된 지표를 갖고 분석될 필요가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림 3-31] 민간시설에 의한 생활서비스 보완 사례(세부지역)

제4장 충남 생활 SOC 서비스 연계방안

1. 추진방향

충남 생활 SOC를 통한 생활서비스 연계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 SOC 도입 및 공급과 서비스 지원체계가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도입 및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취약지역 및 수혜지역 분석 및 도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위계를 고려한 공급 방안,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 공급 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SOC 공급을 확대를 위해 정부 생활 SOC 정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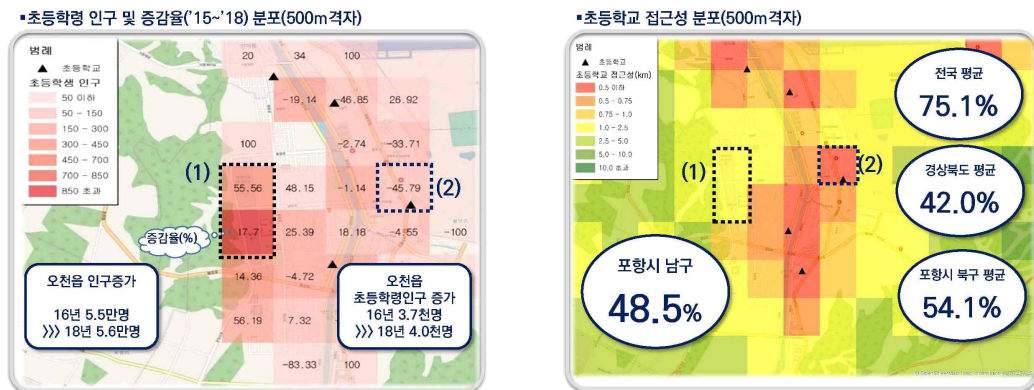
생활 SOC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교통체계 개선과의 연계성 제고, 국가정책과의 연계 및 지원방식 개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시·도 및 시·군·구 정책과 연계한 단계적 생활 서비스 전달 및 교통체계 개선과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생활 SOC 지원방식으로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생활 SOC 도입 및 공급 방안

1)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비격자형 취약지역 분석

생활 SOC 시설 유형별로 국가기준을 활용한 취약지역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생활 SOC 시설 유형별 취약지역 발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토

정보플랫폼 및 지표 서비스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 단위로 생활 SOC 시설 유형별 목적인구 기준 접근성 분석도를 제시하고 있다. 500m 인구 격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밀집도와 교통접근성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 국토정보플랫폼 기반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사례
출처 : 이제연, 생활 속(SOC) 균형발전, LHI 협치포럼 발표자료, 2019, p.31

교통접근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있으나, [그림 3-26]에서와 같이 일정 지역을 동일화시키는 격자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도시지역에서 실제로는 구분될 수 밖에 없는 수해지역과 취약지역이 공존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약지역 도출을 위해, 교통접근성에 기반한 격자형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실제 교통체계와 지형을 반영한 부정형적 거리 접근성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별 생활서비스 범위를 비격자형태로 분석하고, 격자형으로 분석된 목적인구 접근성을 비교·분석하여 생활 SOC 시설별 취약지역을 발굴하는 분석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생활 SOC 도입 및 공급의 계층화 전략 마련

앞 선 연구에서, 생활 SOC 공급전략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의 현

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 및 시설 밀집성이 높은 중심지역에 집중되어, 현재도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배후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활 SOC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수혜 인원이 충분한 지역에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집중형 공급 방식과 더불어 지역별 계층화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 중심지역과 배후지역에 대한 균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규모나 서비스 공급 혹은 전달 패턴을 고려할 때 중심지역(시가화지역 등)과 그렇지 못한 배후지역의 규모나 역할에 따라 동일 시설이라도 요구되는 시설의 형태나 규모가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생활 SOC 시설의 도입 형태나 규모의 차별화·계층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위계에 따른 생활 SOC 도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심지역과 배후지역에 대한 생활 SOC 도입의 계층화 방안을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정책은 대도시와 지방도시, 중·산간 지역(작은거점), 주변집락을 구분하고 Compact와 Network 전략에 기초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규모나 시설의 밀집성, 배후지역에 대한 거점성이 높은 중심지역(동·읍소재지 등)은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대규모 혹은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 유형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인구규모나 시설의 밀집성 등이 미흡한 배후지역(일반 읍·면지역, 마을지역 등)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규모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 SOC 유형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역 위계에 따라 도입 가능한 생활 SOC 유형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생활 SOC 유형만이 아닌 유사한 개념의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광선·이규천(2012)³¹⁾은 연구에서 마을-읍면-시·군 단위로 도입이 필요한 커뮤니티시설을 제시하였다. 지역 위계에 따른 구분을 위해 제시된 커뮤니티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분류

31) 김광선·이규천,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체계(교육, 학습, 돌봄 등 9가지)를 고려하여 중심지역(동·읍소재지), 배후지역(일반 읍·면지역, 마을단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시설의 경우 중심지역은 중등교육기관 이상, 배후지역은 초등교육기관 이하, 마을단위는 평생교육시설을 계층화하여 도입하는 형태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4-1] 지역 위계를 고려한 생활 SOC 분류체계(안)

분류	중심지역 (동·읍소재지)	배후지역	
		일반 읍면지역	마을 단위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노인교실 등)
학습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돌봄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놀이터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의료	보건소, 병원, 약국	보건지소, 병원, 약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관리실, 보건진료소
체육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생활체육시설(간이체육시설 등)
문화	공공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전시관, 박물관 등)	마을회관
휴식	지역거점공원	근린공원(도시공원)	생활문화공원
생활편의	우체국, 은행, 주민자치센터 등	우체국, 은행, 주거편의시설(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소매점, 주민자치센터	주거편의시설(폐기물수거시설 등)
교통	공동주차장	공동주차장	마을주차장

자료: 김광산·이규천, 2012,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구성

3) 생활서비스 수혜 수준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

생활 SOC 시설의 특성 상 이용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중심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 생활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서비스 수혜 수준에 있어 중심지역과 배후지역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배후지역 대부분이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그래서 생활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균형적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 참여를 전제한 공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 SOC는 공급을 위한 정량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부족한 생활 SOC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역의 필요성이나 요구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공급 과잉 혹은 불필요 시설의 도입, 필요 시설의 후 순위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정량적인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생활 SOC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기준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수요나 요구를 고려한 공급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지역 위계를 고려한 생활 SOC 유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은 현재와 같은 공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을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의 경우 일부 생활 SOC 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량적 기준만을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수요나 요구를 반영한 생활 SOC 공급기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과 함께 병행되어 생활 SOC 공급에 대한 주민 주도의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균형적 생활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활 SOC 시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만 예산의 한계성이나 집행의 효율성, 시설 운영성 등으로 인해 지역적 편중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취약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균형적 생활 SOC 공급을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생활 SOC 유사시설의 생활서비스 수혜 수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내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한 도입 가

능한 생활 SOC 시설을 발굴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나 예산 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에 대한 지역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 SOC 우선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인접 생활 SOC 시설에 대한 이용성 제고를 위한 도로 연계성 제고, (대중)교통체계 접근성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수혜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시설을 포함한 생활서비스 범위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도출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생활 SOC 유사시설의 생활서비스 범위는 국가에서 제시한 10종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생활 SOC 유사시설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예, 운영주체, 시설유형 일부 미고려). 이러한 한정된 분석은 생활 SOC 유사시설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분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활 SOC 유사시설 유형별 분석대상을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지원 대상인 국공립만이 아닌 민간도 함께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설유형에서도 체육시설과 같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만이 아닌 생활체육시설, 경기장 등 다양한 시설 유형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공급지역과 취약지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활서비스 수혜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령자, 여성인구, 다문화가족, 1인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생활서비스 수혜수준 제고를 위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SOC 시설 유형과 범위가 확대·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이들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제공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자를 위한 시설(예, 경로당, 노인회관, 노인교실 등), 여성인구를 위한 여성회관, 여성경로당 등,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시설의 도입, 편의시설 확충 등을 생활 SOC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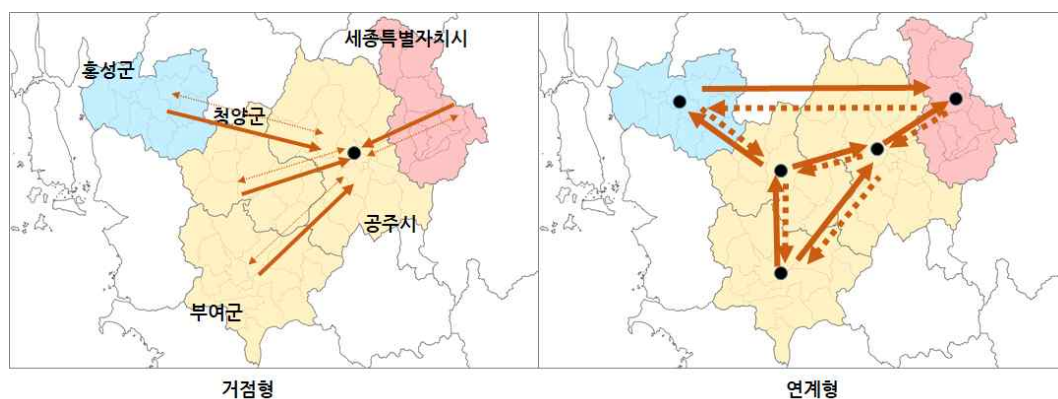
4) 생활 SOC 신규사업 확대 및 복합화 방안

현재의 생활 SOC 시설 공급은 행정경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시설과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시설의 공급이나 향후 운영·관리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은 생활 SOC 시설 공급의 효율성, 예산 활용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반면에 행정경계를 중심으로 도입됨에 따라 유사중복시설의 난립, 행정경계 지역 주민의 이용 불편성 가중, 수직적 복합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간의 효율성 저하, 불필요한 시설의 활용 및 도입 등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생활 SOC 신규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생활 SOC 신규사업은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수준 제고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생활 SOC 신규사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분적 중복성을 고려하더라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의 개선을 도모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전달 및 수혜수준 제고를 위한 생활 SOC 신규시설 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취약지역에서 요구되는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충남 생활 SOC 신규시설 계획에서와 같이 부분적이라도 취약지역 개선이 도움이 되도록 생활 SOC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연계·협력에 기반한 지역 간 복합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활 SOC 시설의 공급 주체가 대부분 해당 시·군이고, 운영·관리의 현실성, 행정경계 내 주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행정경계를 중심으로 한 생활 SOC 공급 방식(독립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신규 시설의 도입에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는 시·군, 생활 SOC 시설의 특성 상 하나의 시·군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광역적 이용시설(예, 종합병원, 대학

교 등)의 경우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간 복합적 이용방식(거점형, 연계형)으로의 도입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점형은 하나의 거점을 공동 형성하고 주변 지역과 함께 운영·관리하는 방식(예, 공주나래원 등)이며, 연계형은 유사 시설의 기능적 분산 배치를 통해 상호 이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히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일 시설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 양호한 인접 시·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역 간 복합적 이용방식(거점형, 연계형)은 시설의 공급 측면과 더불어 운영·관리 등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공동 활용,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이용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 자체 사업이나 생활 SOC 정책만이 아닌 중앙 및 충남도 균형발전정책, 과거부터 되어 온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발굴 단계부터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군 간 공동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4-2] 연계협력에 기반한 생활 SOC 복합화 개념도

셋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복합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 SOC 복합화는 수직적 복합화 방안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에서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한 증·개축이나 신축을 통해 2층 이상 규모의 생활 SOC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서는 활용가

능한 규모 있는 유희시설이 적거나 노후화가 심한 편으로 대부분 신축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어 정책 취지에 부합성이 떨어지고 개발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하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복합화를 위한 유형도 몇 개 타입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설 간의 복합화를 유도하는데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합화를 위한 개발 방식의 다양화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수직적 복합화만이 아닌 지역 내 입지하고 있는 유사시설 간 연계 활용을 전제로 부족한 시설의 도입을 통한 기능적 복합화 방안이나, 부족한 시설을 수평적으로 신규 조성하여 연계하는 기능적 복합화 방안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복합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심지역이나 배후 지역 모두의 “가로”영역을 대상으로 가로영역 내 빈건물 등을 활용한 생활 SOC 시설과 기능의 도입을 통해 점적인 활성화가 아닌 선적·면적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국가정책에서 추진되는 사업과의 연계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생활 SOC 수평적 복합화 개념도

다음으로, 복합화를 위한 기능적 연계에 있어, 현재 생활 SOC 유형에 포함된 시설 간 복합화만이 아닌, 상업시설, 정주시설 등 지역 내 필요한 시설과 생활 SOC를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시설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설 특성 상 많은 사람들의 유동이나 이용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입지한 지역은 지역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기존 시설이 밀집된 지역 내 생활 SOC를 도입하는 방안만이 아닌 생활 SOC를 중심으로 주변에 상업, 정주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복합화 방안은 수직적인 복합화 시 생활 SOC와 상업, 정주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³²⁾이나 혹은 수평적으로 생활 SOC를 중심으로 주변을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여 상업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단순히 행정의 지원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만이 아닌 행정 지원과 연계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4] 다양한 기능 간 수평 복합화 사례(일본 오가루 프로젝트)

출처 : 김진범, 생활 SOC 사업의 이해, p.83, 2019

32) 카다와현 타카마츠시 타카마츠마루 상점가(高松丸亀商店街)는 “医食住”를 활용하여, 빌딩 내 병원 조성, 지산지소점포(丸亀町丸井戸水神市場), 고령자 아파트를 복합화하여 조성한 사례가 있음

3. 생활 SOC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1)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

생활 SOC 정책은 최근에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 SOC를 통해 도입되는 시설 대부분이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수의 생활 SOC 시설이 지역에 입지하게 되었다. 현재도 다양한 국가 정책을 통해 생활 SOC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이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과 같이 생활 SOC 시설 유형을 핵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 SOC 시설의 공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관련 부서 간 생활 SOC 시설 확산에 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지역의 부족한 시설 등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거점 공간/시설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 SOC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발굴과 이를 도입하는 기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생활 SOC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는 생활 SOC 시설의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들의 기준에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진단”이나 “도입 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 공동체 활동과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 생활 SOC 시설은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공동체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히 부족한 시설의 확충이 아닌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시된 생활 SOC 유형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공동체를 활용한 이용 방안, 운영·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과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활 SOC 시설 유형 중 가족센터,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의 유형을 확대하여, 단순한 문화·활동의 거점이 아닌, 정주와 복지 등이 결합된 시설(예, 고령자공동생활홈+건강센터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를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유사시설 중복방지, 유지·관리의 지속성 확보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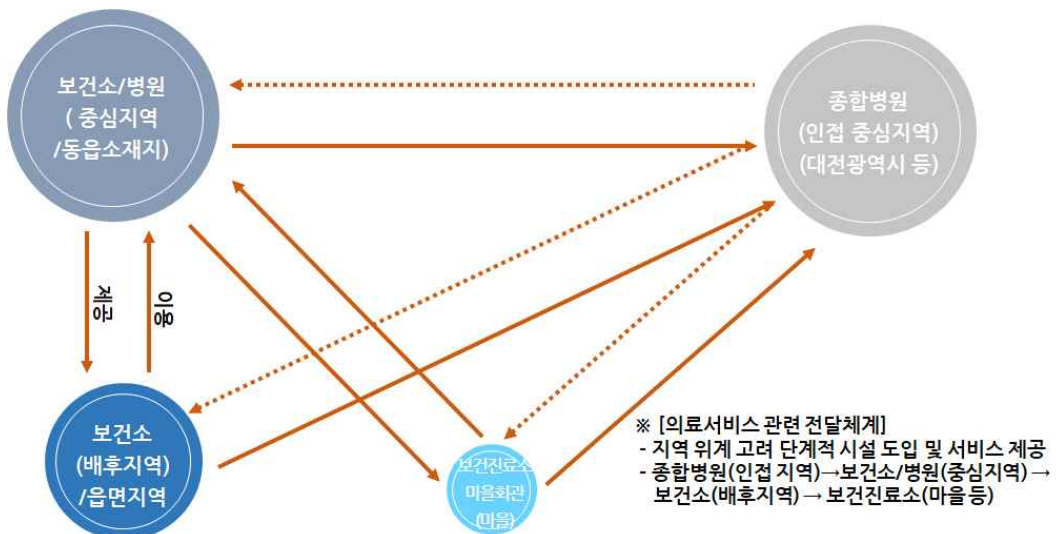
2) 단계적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생활 SOC 시설은 입지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SOC 시설의 생활서비스 범위 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활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서비스에 대한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균형적 생활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 SOC 시설의 지역별 계층화와 함께 기능적 서비스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위계를 고려한 생활 SOC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심지역(동·읍소재지), 배후지역(읍·면소재지-마을단위)와 같이 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도입되는 생활 SOC 시설을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중심지역에 도입되는 생활 SOC 시설은 지역 거점시설로서의 광역적 기능과 규모를 갖추도록 하며, 배후지역에 입지하는 생활 SOC 시설은 중심지역 생활 SOC 시설의 기능의 보조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작은 거점으로서의 지역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두 시설 간에는 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둘째, 지역 위계에 따라 설치된 생활 SOC 시설 간 생활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심지역 내 광역시설(예, 보건소, 병원 등)에서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력이나 장비를 배후마을 내 작은 거점시설(예,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로 전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벗어나는 지역(예, 과소지역 마을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생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생활 SOC 시설의 추가 확보나 생활서비스 배달서비스, 순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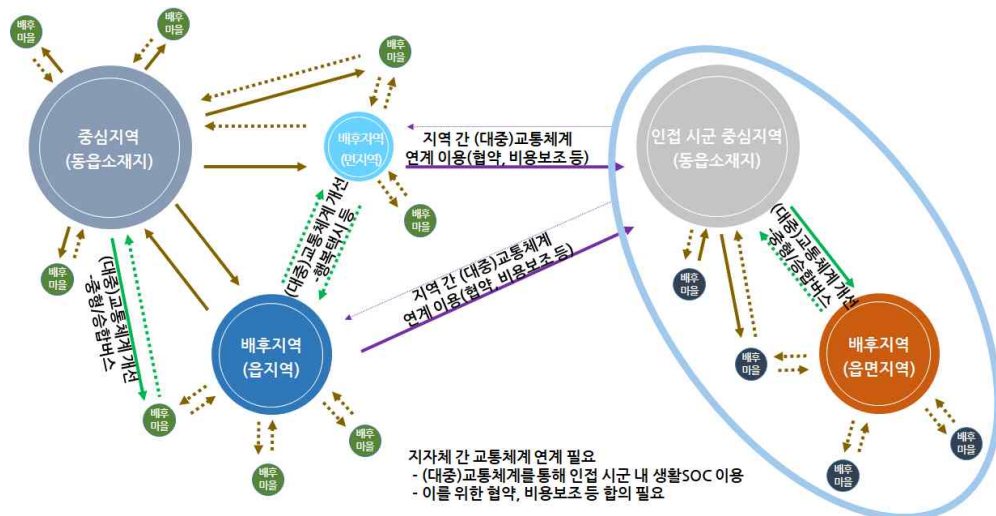


[그림 4-5] 지역 위계 고려 생활 SOC 서비스 전달체계

3)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 SOC 시설을 통한 생활서비스 수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의 확립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시설을 통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변지역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시적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응급상황 시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생활 SOC 시설에 대한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이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생활 SOC 시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거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용인구가 적거나 교통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중형/승합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행복택시와 같이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확충하여 운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 시 지역 내의 교통체계 개선만이 아닌 인접 지역과 연계한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6]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한 생활 SOC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개념도

4) 생활 SOC 지원방식 개선

생활 SOC 시설 공급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자치단체에서 공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모사업 방식은 단기간 내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획일적인 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의 한계성, 계획수립 기간의 단기성 등으로 인해 계획의 충실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의 참여와 제안을 전제로 한 주민 제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공모사업 방식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한정된 의견수렴 방식이 아닌, 주민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SOC 시설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 스스로 작성하여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제안방식은 첫째,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주민 스스로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을 발굴하고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주



[그림 4-7] 생활 SOC 지원체계 개선(안)

민 간 협의와 소통,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맞춤형 생활 SOC 시설 도입을 도모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서는 제한된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 이외의 도입이 어려워 전국적인 획일화 우려가 있으나, 주민제안방식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태가 됨에 따라 보다 폭 넓고 다양하면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제안방식의 생활 SOC 지원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모방식과 달리 상시적인 주민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행정조직과 기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주민제안에 대한 전문성, 계획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지원과 협의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 지원을 통해 주민제안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관련 부서 간 협의도 함께 함으로써 생활 SOC 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민제안방식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생활 SOC 공급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주체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활 SOC 공급 단계에서 공급이 필요한 생활 SOC 발굴과 계획 수립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생활 SOC 유형과 관련된 부서 담당자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조달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활 SOC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시설의 소유자는 행정이지만, 실제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주체나 그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주민의 역할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소유와 운영·관리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제안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 SOC 공급 방안이라는 측면만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 도시지역 중심의 인프라 확충 등으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 도시발전은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 도시화가 둔화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과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필수 인프라(국무조정실, 2019)”로 교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에 투자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 SOC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SOC 중점투자시설에 포함된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도서관, 가족센터(주민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가족센터, 가족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외 다른 생활 SOC는 기초자료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생활 SOC 확충은 현재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인구 및 시설의 밀집도가 높거나 생활 SOC 유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역(동·읍소재지 등)에 추가적인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 SOC 시설을 통한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 SOC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생활서비스 수혜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지역 생활 SOC 시설 공급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생활 SOC 유형별로 공급/최저기준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결과, 현재 대부분의 생활 SOC 유사시설이 인구 및 시설 밀집도가 높은 중심지역(동·읍소재지)나 일부 배후지역(읍·면소재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 체육시설과 같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SOC 시설은 이러한 거점 중심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와 같이 일정 지역 혹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러한 거점 중심의 편중 현상은 생활서비스 제공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생활 SOC 시설이 중심지역에 편중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서 제공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배후지역 주민은 생활 SOC 시설의 이용이나 생활서비스 수혜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더불어, 동일한 중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교통체계, 지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활 SOC 시설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생활 SOC 유형을 확대하고, 지역 위계에 따른 계층화된 도입기준과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성격이 유사한 커뮤니티시설을 고려하여 생활 SOC 유형을 확대 제시하였으며, 거점성이 높은 중심지역과 그렇지 못한 배후지역에서 도입가능한 생활 SOC 시설에 대한 공급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활 서비스 수혜수준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등 주민 수요 반영 방안, 균형적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생활 SOC 복합화 방안(독립형, 거점형, 연계형)과 시설 자체의 효율적 복합화를 위한 수평적·기능적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 SOC 공급이 단순히 거점시설의 조성이 아닌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지역 연계·협력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 SOC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생활 SOC 시설 간 단계적 생활서비스 전달·이용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 SOC 이용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 SOC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예,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의 생활 SOC 공급을 도모하고 주민 역량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 SOC 공급을 위해 지원 방식을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 방식이 아닌 주민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민제안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 SOC 시설의 생활서비스 전달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SOC 시설 도입 및 공급을 위한 우선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대상에 대한 범위 확대와 분석이 필요하다. 생활 SOC 유형을 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생활 SOC 유형에 대해 생활서비스 범위를 분석하여 유형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발굴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연구범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0대 중점투자시설에 포함된 생활 SOC 시설별 세부 유형(예, 어린이집은 주체별로 국공립, 민간, 법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생활 SOS 유사시설 유형별 취약지역 발굴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확대된 생활 SOC 유형별로 적정한 공급/최저기준을 설정하고 현재와 같은 생활서비스 범위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시설 공급의 우선지역과 공급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 SOC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 확대, 참여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민주도형, 주민제안형 생활 SOC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제안된 “주민제안제도”의 도입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 및 서비스 공급의 현실성, 운영·관리의 지속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 SOC 공급 및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역할 설정과 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확대, 참여 주체 역할 분담을 통해 생활 SOC 공급의 효율성과 공급성의 상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이 우려되는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기준만이 아닌,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확산, 도시·농촌 격차 심화, 사회적 양극화 등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 SOC 공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생활 SOC 시설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 SOC 시설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부록 1] 연심회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1. 착수연심회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 일시 : 2019년 9월 2월
- 내용 : 사전회의 및 착수연심회 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협의

구분	조건내용	조치내용	비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성 검토 시 1개 지역이라도 “교통비용, 인구이동”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서비스 접근성 고려 방안 모색 인구이동은 인구유형별의 “거리기준”을 차등화하여 제시 방안 모색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어떤 기능 도입이 필요한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SOC 유형별 취약지역 분석 및 시설별 도입 방안/필요성 제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SOC는 그 지역 거점/중심시설로 시장형성 등을 위한 생활 SOC 분산 배치 방안도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지역과 배후마을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도입 가능한 생활 SOC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정책 대안에서 생활 SOC를 중심으로 거점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복합화를 통한 선적면적 지역활성화 필요성 제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이용성을 위해 공급해야만 한다는 내용도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기준에서 주민 수요와 이용을 고려한 정성적 기준 마련에 대한 정책제안 서비스 전달 체계와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의 정책제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서비스 전달방안 연구”로 변경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및 배치 방안 제안 필요 서비스 전달체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SOC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모색 입지별 배치방안(기존시설 강화 혹은 다기능 분산화 등) 제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시설 중복성 분석결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분석결과 축소조정하여 제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화지역을 제외한 취약지역 발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대안에 취약지역 우선 배치 제안 일부 생활 SOC 시설(예, 국공립어린이집)은 목적 계층의 특성 상 시기화지역도 취약지역으로 분류 수 있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요구시설을 발굴하여 분석 대상에 추가 포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위계,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한 생활 SOC 유형 확대 필요성 제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별 노후도/규모/서비스 유형을 고려한 분석 필요(유사시설 현황 파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대상의 구체적 분석 및 세분화는 향후 연구를 통해 추진하도록 제안 	

2. 최종연심회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 일시 : 2019년 11월 26일
- 내용 : 최종연심회 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협의

구분	조건내용	조치내용	비고
1	▪ 개선과제 중심의 정책제언 제시	▪ 개선필요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제언 제시	
2	▪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사례 포함	▪ 이론적 고찰에서 일부 포함	
3	▪ 취약지역을 서비스 수혜지역으로 명칭 변경 필요	▪ 본 연구의 목적 상 취약지역 발굴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취약지역 명칭을 활용하는 것으로 함	
4	▪ 민간과 공공 연계 분리 방안 모색	▪ 민간·공공 연계·분리 필요성은 4장 정책 제언에서 제시하였음 ▪ 향후 연구과제로 참여주체 역할 정립 연구 필요성 제시	
5	▪ 사군 활용을 위해, 면단위 취약지역 발굴 및 제시 필요	▪ 부록에서 면단위 취약지역을 제시하였음	
6	▪ 저출산 등 인구감소 대응 SOC시설 도입 및 활용방안 제시 필요	▪ 정책제언에서 지역 위계 등을 고려한 생활 SOC 도입 방안을 제시함 ▪ 인구감소 등에 대응 필요성 제시	
7	▪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확대 적용 방안 연구 필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 SOC 확충 필요성 제시 ▪ 향후 연구과제로 추가 제시	
8	▪ 생활 SOC 유형별 개별 입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은지?(복합화는 서비스 공급이 한정됨)	▪ 생활 SOC 도입에 대해, 종류별 분라·복합화 가능성을 제시함 ▪ 효율성과 서비스 공급성 상충에 대한 문제도 제시함	
9	▪ 3장3절의 분석 내용이 너무 많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3장 3절을 분리하여 3절과 4절로 제시함	
10	▪ 4장에서 제언된 정책제언에서 담당 주체를 명시하는 방안 모색	▪ 추진 주체가 명확한 부분에서 담당 주체 명시 ▪ 향후 연구과제로 참여주체 역할 정립 연구 필요성 제시	
11	▪ 제목 변경	▪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연구”로 변경	
12	▪ P.43 연구분석 방법은 앞으로 이전하고, 3장3절 분리 필요	▪ 연구 내용을 의견에 맞춰 조정함	
13	▪ 이론적 고찰 포함	▪ 이론적 고찰 포함	
14	▪ 연구목차 및 내용적 보완 필요	▪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실시	

[부록 2] 자문회의 의견서

1. 연구 설계 자문 및 협의

- 일시 : 2019년 8월 5일 ~ 9일
- 내용 : 제안 과제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협의

■ 자문위원

- [용어 정리] “사회서비스(시설)”과 생활 SOC 사업 간 차별성 검토 필요
- [연구 주제] 현재 추진되는 생활 SOC 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보다 분석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10대 생활 SOC 시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연구 추진이 필요함
- [연구 범위] 연구는 지자체 내에서의 적용 방안으로 검토 필요
 - 사회서비스(시설)은 공급이나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자체 내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이용 목적계층도 지자체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연구내용] 충남의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필요
 - 생활 SOC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적 편중이 우려됨에 따라, 충남 전체에 대한 생활 SOC 사업의 균형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필요

■ 자문 및 협의 의견 반영 방향

- [연구 주제] 연구는 생활 SOC 사업(시설)에 초점을 맞춰 추진함
- [연구 내용] 균형적 생활 SOC 시설(서비스) 확보 및 제공 방안으로 변경
 - 충남 생활 SOC 시설(서비스) 취약지역 발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변경
- [연구 제목]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로 변경
 - 당초 “충남도민의 균형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연계·협력 방안”에서 연구 범위와 주제를 생활 SOC로 압축하여 재정리함

2. 전문가 자문의견

- 일시 : 2019년 11월 7일~13일
- 내용 : 최종연심회 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협의

구분	조건내용	조치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지역거점(공동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 자료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안된 중점투자시설 10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연구범위와 연구한계에서 제시하고 있음 제시하신 의견은 본 연구 관련 향후 연구 및 본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도 종합계획”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인 취약지역 판단 필요 필요 시 도서관에 한정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 병설도서관 대상 분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외 운영주체(민간, 가정, 직장 등) 세분화 결과를 포함한 비교 분석 실시(p.65) 이를 통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이 실제로는 민간에서 생활서비스 보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분석의 한계를 제시함 향후 연구과제에서 운영주체, 시설유형 세분화를 통한 분석의 확대 및 보완 내용 포함(p.7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목 변경: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로 변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구 성격을 고려한 제목으로 수정 :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활성화 기초연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장은 SOC의 지리적 입지 및 가로망과의 거리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면 좋겠음 서비스 전달 방안 보다 서비스 연계방안으로 변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접근성에 기초한 실태분석 필요성과 주변지역 간 연계 필요성 제시 4장 제목 변경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 유형별로 일부시설만 분석하는 것은 이해되나, 일부지역만 취약지역을 발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SOC 실태분석 및 취약지역 발굴은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생활 SOC 유형별 취약지역은 자료 구득이나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투자시설 10종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 취약지역 현황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을 표로 함께 제시함(부록)

[부록 3] 충청남도 생활 SOC 유사시설 수혜지역 및 취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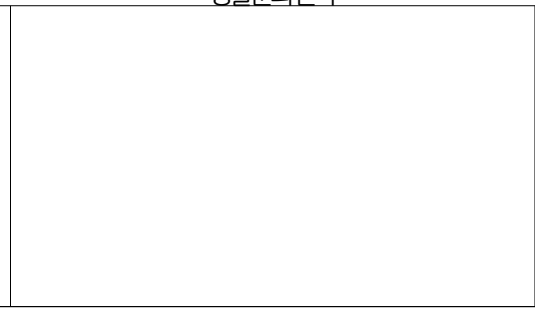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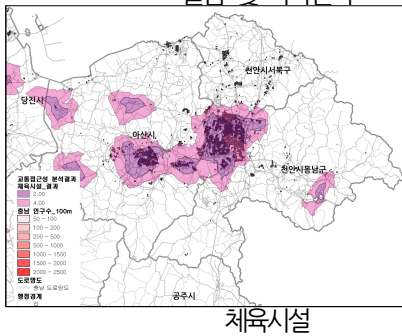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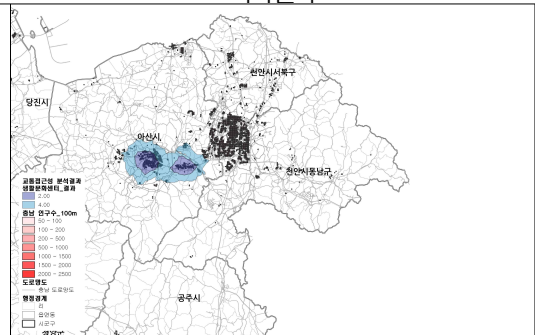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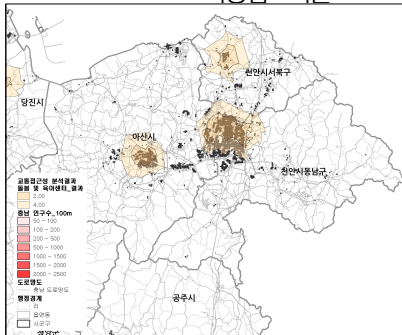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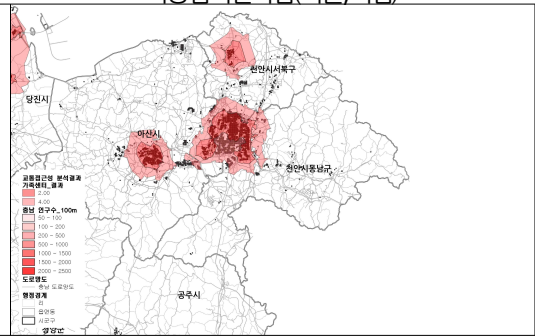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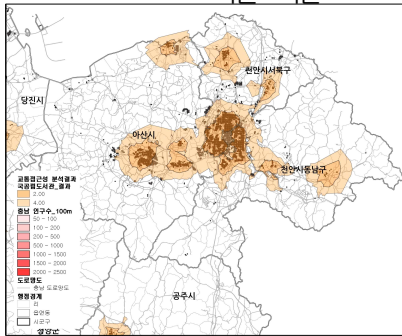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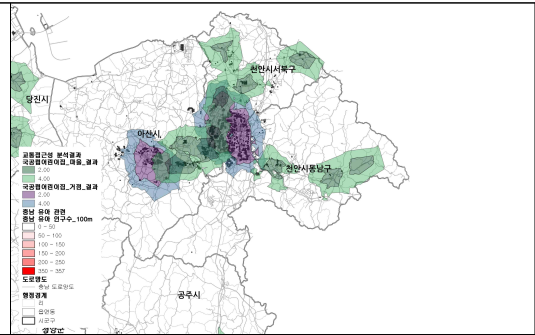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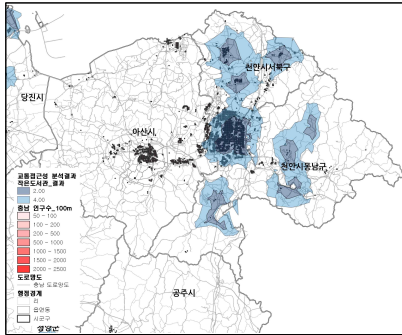
1. 천안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동,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두정동, 목천읍(교천리, 삼성리, 응원리, 지산리), 문화동, 백석동, 봉명동, 부대동, 불당동, 사직동, 삼룡동, 성거읍(석교리, 요방리), 성성동, 성정동, 성환읍(대흥리, 도하리, 매주리, 복모리, 성월리, 성환리, 송덕리, 수항리, 신방리, 어룡리, 외룡리, 왕림리, 우신리, 울금리, 학정리), 성황동, 신당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외촌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직산읍(군동리, 군서리, 모시리, 삼은리, 상덕리, 수혈리, 신갈리, 양당리, 판정리), 차암동, 청당동, 청수동, 풍세면(남관리)
국공립 도서관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동면(광덕리, 구도리, 화계리), 두정동, 목천읍(교천리, 남화리, 도장리, 동평리, 삼성리, 신계리, 운전리, 응원리, 지산리, 천정리), 문화동, 백석동, 병천면(가전리, 도원리, 매성리, 병천리, 송정리, 탑원리), 봉명동, 부대동, 복면(상동리, 연춘리, 은지리), 불당동, 사직동, 삼룡동, 성거읍(모전리, 문덕리, 석교리, 소우리, 송남리, 오목리, 오색당리, 요방리, 저리, 정춘리, 천흥리), 성남면(석곡리, 신사리, 용원리), 성성동, 성정동, 성환읍(대흥리, 매주리, 복모리, 성월리, 성환리, 송덕리, 수항리, 신방리, 어룡리, 왕림리, 우신리, 울금리, 학정리), 성황동, 수신면(속창리, 신평리), 신당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외촌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입장면(시장리), 직산읍(군동리, 군서리, 모시리, 삼은리, 상덕리, 수혈리, 신갈리, 양당리, 판정리), 차암동, 청당동, 청수동, 풍세면(남관리, 보성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동,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두정동, 문화동, 백석동, 봉명동, 부대동, 불당동, 사직동, 삼룡동, 성성동, 성정동, 성황동, 신당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외촌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직산읍(모시리, 신갈리, 양당리), 차암동, 청당동, 청수동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면(광덕리, 구도리, 동산리, 송연리), 목천읍(교천리, 도장리, 신계리, 응원리, 천정리), 백석동, 병천면(가전리, 도원리, 병천리, 탑원리), 불당동, 성거읍(소우리, 신월리), 성남면(용원리, 화성리), 성성동, 성환읍(대흥리, 매주리, 성환리, 송덕리, 신방리, 어룡리, 왕림리, 우신리, 울금리), 수신면(장산리), 신당동, 업성동, 입장면(기로리, 도림리, 독정리, 양대리, 하장리, 홍천리), 직산읍(마정리, 모시리, 부송리, 삼은리, 수혈리, 신갈리, 양당리, 자은가리), 차암동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돌봄 및 육아센터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두정동, 문화동, 백석동, 봉명동, 부대동, 불당동, 사직동, 삼릉동, 성거읍(석교리, 요방리), 성성동, 성정동, 성환읍(대흥리, 매주리, 복모리, 성월리, 성환리, 송덕리, 수향리, 신방리, 어룡리, 왕림리, 우신리, 울금리, 학정리), 성향동, 신당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외촌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직산읍(군동리, 군서리, 모시리, 삼은리, 상덕리, 수혈리, 신갈리, 판정리), 차암동, 청당동, 청수동
생활문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도서관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덕면(대덕리, 매당리, 무학리, 신덕리),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두정동, 목천읍(남화리, 동리, 동평리, 서리, 서흥리, 운전리), 문화동, 백석동, 봉명동, 북면(매송리, 명덕리, 사담리), 불당동, 사직동, 삼릉동, 성거읍(모전리, 소우리, 신월리, 오목리), 성남면(대정리, 대화리, 석곡리, 신사리, 용원리, 화성리), 성정동, 성환읍(대흥리, 매주리, 성월리, 성환리, 송덕리, 어룡리, 우신리, 울금리, 학정리), 성향동, 신당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외촌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입장면(기로리, 독정리, 사장리, 신두리, 유리, 하장리, 호당리, 홍천리, 효계리), 직산읍(군동리, 군서리, 모시리, 부송리, 삼은리, 수혈리), 청당동, 청수동, 풍세면(가송리, 보성리, 용정리, 풍서리)
체육시설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동,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두정동, 문화동, 백석동, 병천면(가전리, 병천리, 탑원리), 봉명동, 부대동, 불당동, 사직동, 삼릉동, 성거읍(석교리, 요방리), 성남면(대화리, 봉양리), 성성동, 성정동, 성향동, 수신면(발산리, 백자리, 속창리, 신평리, 장산리, 해정리), 신당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외촌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직산읍(신갈리), 차암동, 청당동, 청수동, 풍세면(남관리, 두남리, 보성리, 삼태리, 용정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덕면, 대흥동, 동면, 두정동, 문화동, 백석동, 병천면, 부대동, 북면, 성거읍, 성남면, 성성동, 수신면, 신부동, 쌍용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입장면, 직산읍, 차암동
국공립 도서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덕면, 대흥동, 두정동, 문화동, 백석동, 부대동, 성거읍, 성성동, 신부동, 쌍용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직산읍, 차암동
국공립 어린이집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덕면, 대흥동, 두정동, 문화동, 백석동, 부대동, 북면, 성성동,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직산읍, 차암동, 풍세면
돌봄 및 육아센터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덕면, 대흥동, 동면, 두정동, 목천읍, 문화동, 백석동, 병천면, 부대동, 북면, 성거읍, 성남면, 성성동, 수신면, 신부동, 쌍용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입장면, 직산읍, 차암동, 풍세면
생활문화 센터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덕면, 구성동, 다가동, 대흥동, 동면, 두정동, 목천읍, 문화동, 백석동, 병천면, 봉명동, 부대동, 북면, 불당동, 사직동, 삼룡동, 성거읍, 성남면, 성성동, 성정동, 성환읍, 성황동, 수신면, 신당동, 신방동,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외촌동, 용곡동, 원성동, 유량동, 입장면, 직산읍, 차암동, 청당동, 청수동, 풍세면
작은 도서관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흥동, 동면, 두정동, 문화동, 백석동, 병천면, 부대동, 성성동, 수신면, 신부동, 쌍용동, 안서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직산읍, 차암동
체육시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덕면, 대흥동, 동면, 두정동, 목천읍, 문화동, 백석동, 부대동, 북면, 성거읍, 성성동, 성환읍, 신부동, 쌍용동, 업성동, 영성동, 오룡동, 입장면, 직산읍, 차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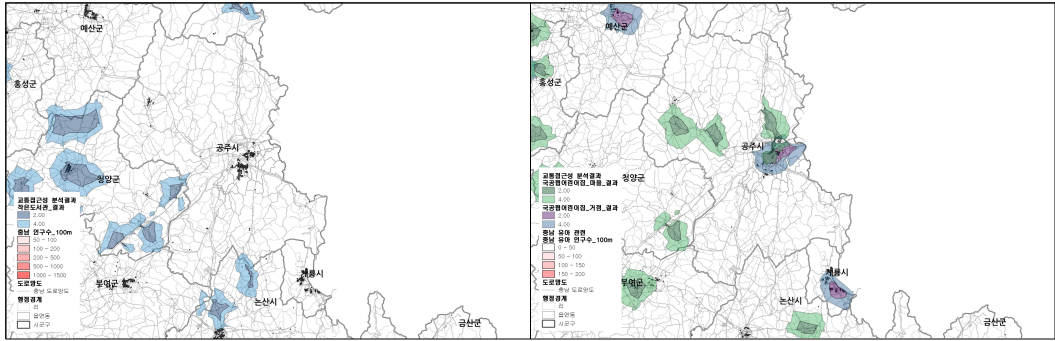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공주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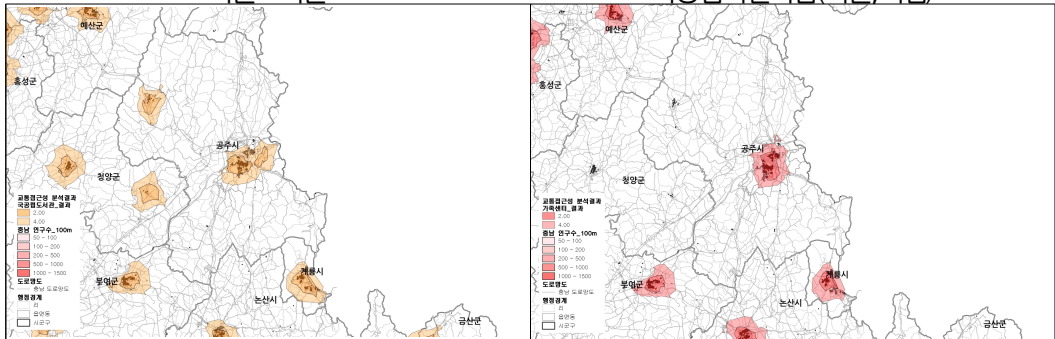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동, 금성동, 금학동, 금흥동, 무릉동, 반죽동, 봉정동, 봉황동, 산성동, 상왕동, 소학동, 송선동, 신관동, 신기동, 쌍신동, 옥룡동, 우성면(귀산리, 도천리, 목천리, 상서리, 신웅리, 평목리), 웅진동, 월미동, 월송동, 의당면(청룡리), 주미동, 중동, 중학동
국공립 도서관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상동, 교동, 금성동, 금학동, 금흥동, 동현동, 무릉동, 반죽동, 봉정동, 봉황동, 산성동, 상왕동, 석장리동, 소학동, 송선동, 신관동, 신기동, 신평면(동원리, 산정리, 조평리), 쌍신동, 옥룡동, 우성면(도천리, 상서리, 신웅리, 평목리), 웅진동, 월송동, 유구읍(녹천리, 만천리, 백교리, 석남리, 신영리, 유구리), 의당면(청룡리), 주미동, 중동, 중학동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동, 금성동, 금흥동, 동현동, 송선동, 신관동, 쌍신동, 옥룡동, 웅진동, 월송동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흥동, 사곡면(계실리, 고당리, 신영리, 해월리, 호계리, 화월리), 신관동, 신평면(대룡리, 동원리, 백룡리, 영정리, 입동리), 쌍신동, 우성면(목천리), 유구읍(만천리), 의당면(두만리, 수촌리, 오인리, 요룡리, 울정리, 청룡리), 정안면(북계리, 상룡리, 화봉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성동, 금흥동, 동현동, 무릉동, 상왕동, 석장리동, 소학동, 송선동, 신관동, 신기동, 옥룡동, 월송동, 의당면(청룡리)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동, 금성동, 금학동, 금흥동, 무릉동, 반죽동, 봉황동, 산성동, 상왕동, 소학동, 송선동, 신관동, 쌍신동, 옥룡동, 우성면(목천리, 신웅리), 웅진동, 월미동, 월송동, 의당면(청룡리), 중동, 중학동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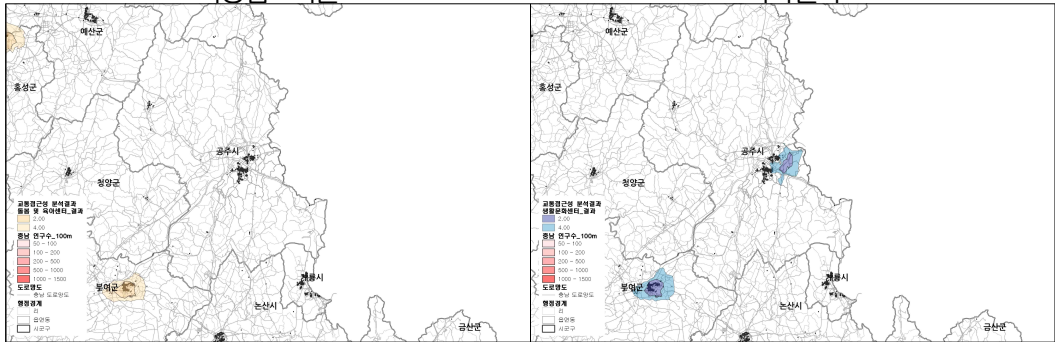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마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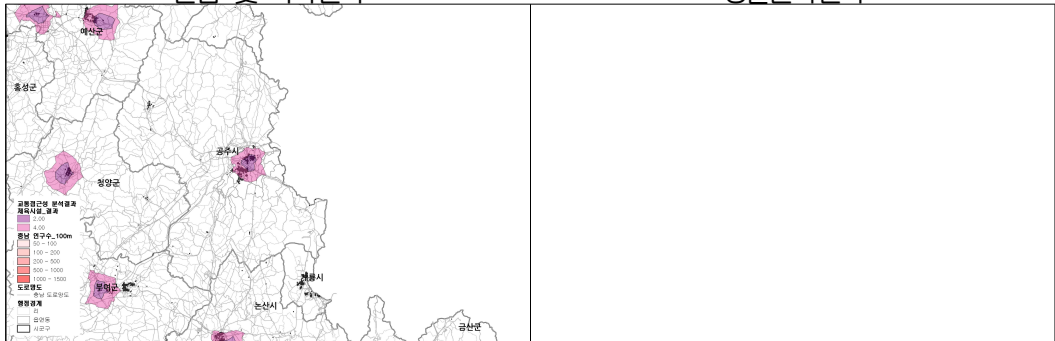
국공립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상동, 계룡면, 동현동, 반포면, 사곡면, 석장리동, 신평면, 오곡동, 유구읍, 이인면, 정안면, 탄천면, 태봉동
국공립 도서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면, 반포면, 사곡면, 오곡동, 월미동, 이인면, 정안면, 탄천면, 태봉동
국공립 어린이집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상동, 계룡면, 금학동, 무릉동, 반죽동, 반포면, 봉정동, 봉황동, 산성동, 상왕동, 석장리동, 소학동, 신기동, 오곡동, 월미동, 이인면, 주미동, 중동, 중학동, 탄천면, 태봉동
돌봄 및 육아센터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상동, 계룡면, 교동, 금성동, 금학동, 금흥동, 동현동, 무릉동, 반죽동, 반포면, 봉정동, 봉황동, 사곡면, 산성동, 상왕동, 석장리동, 소학동, 송선동, 신관동, 신기동, 신평면, 쌍신동, 오곡동, 옥룡동, 우성면, 웅진동, 월미동, 월송동, 유구읍, 의당면, 이인면, 정안면, 주미동, 중동, 중학동, 탄천면, 태봉동
생활문화 센터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상동, 계룡면, 교동, 금학동, 반죽동, 반포면, 봉정동, 봉황동, 사곡면, 산성동, 신평면, 쌍신동, 오곡동, 우성면, 웅진동, 월미동, 유구읍, 이인면, 정안면, 주미동, 중동, 중학동, 탄천면, 태봉동
작은 도서관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상동, 계룡면, 교동, 금성동, 금학동, 금흥동, 동현동, 무릉동, 반죽동, 반포면, 봉정동, 봉황동, 사곡면, 산성동, 상왕동, 석장리동, 소학동, 송선동, 신관동, 신기동, 신평면, 쌍신동, 오곡동, 옥룡동, 우성면, 웅진동, 월미동, 월송동, 유구읍, 의당면, 이인면, 정안면, 주미동, 중동, 중학동, 탄천면, 태봉동
체육시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상동, 계룡면, 동현동, 반포면, 봉정동, 사곡면, 석장리동, 신기동, 신평면, 오곡동, 유구읍, 이인면, 정안면, 주미동, 탄천면, 태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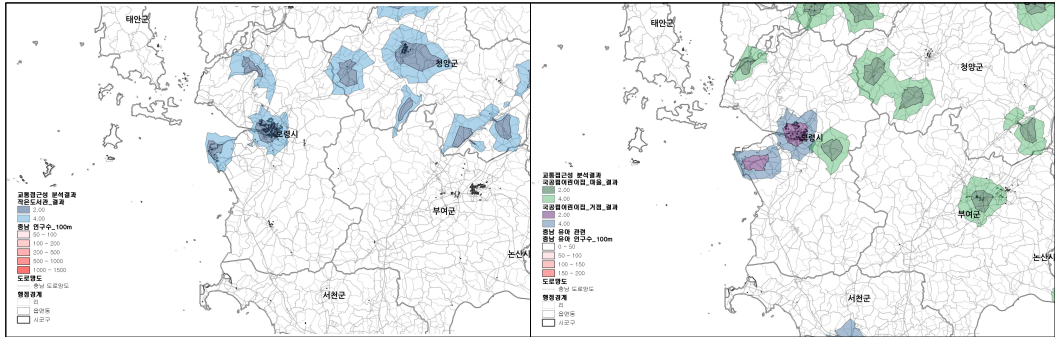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3. 보령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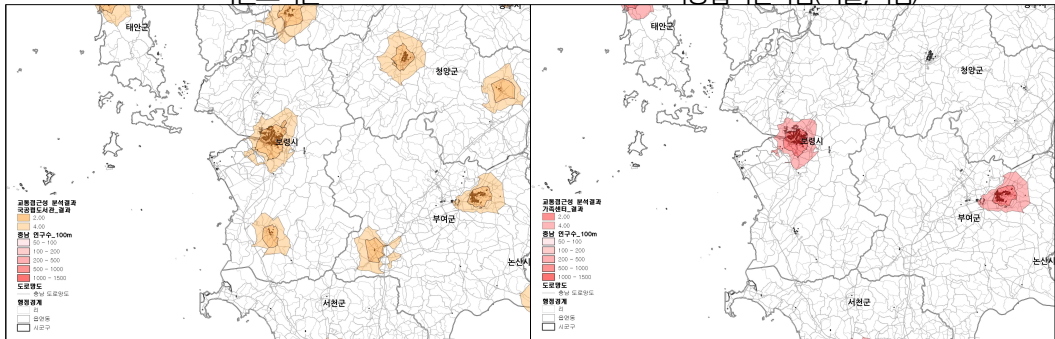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4	■ 궁촌동, 남곡동, 남포면(봉덕리, 옥동리, 제석리, 창동리), 내항동,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성주면(성주리), 주교면(관창리), 죽정동, 화산동
국공립 도서관	29	■ 궁촌동, 남곡동, 남포면(봉덕리, 소송리, 옥동리, 제석리, 창동리), 내항동,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요암동, 웅천읍(노천리, 대창리, 대천리, 두룡리, 수부리, 황교리), 주교면(관창리), 주산면(아룡리, 주야리, 증산리, 창암리, 화평리, 황율리), 죽정동, 천북면(낙동리, 신죽리), 화산동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10	■ 궁촌동, 남포면(삼현리, 제석리), 내항동,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신흥동, 요암동, 죽정동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4	■ 성주면(개화리), 오천면(소성리, 영보리), 천북면(하만리)
돌봄 및 육아센터	15	■ 궁촌동, 남곡동, 남포면(봉덕리, 옥동리, 제석리, 창동리), 내항동,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성주면(성주리), 주교면(관창리, 신대리), 죽정동, 화산동
생활문화 센터	14	■ 웅천읍(구룡리, 노천리, 대창리, 대천리, 두룡리, 성동리, 수부리, 황교리), 주산면(아룡리, 주야리, 증산리, 창암리, 화평리, 황율리)
작은 도서관	13	■ 궁촌동, 내항동,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신흥동, 오천면(갈현리, 교성리), 주포면(마강리, 보령리, 봉당리), 죽정동, 청소면(장곡리)
체육시설	12	■ 궁촌동, 남포면(달산리, 봉덕리, 소송리, 옥동리, 옥서리, 제석리, 창동리), 내항동,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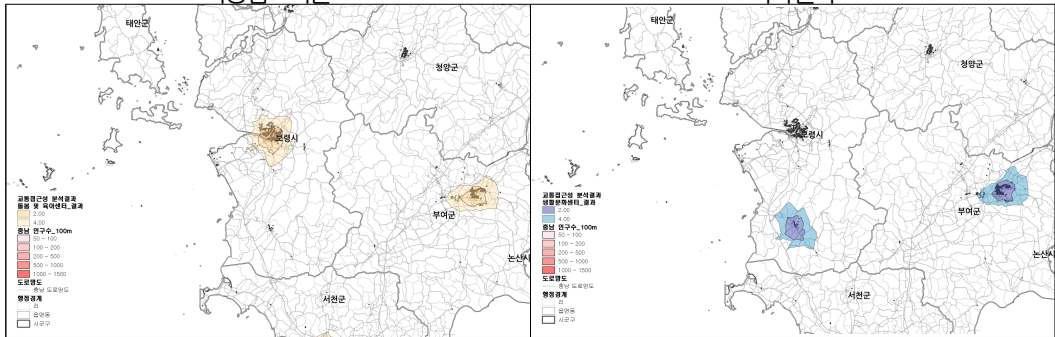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국립어린이집(마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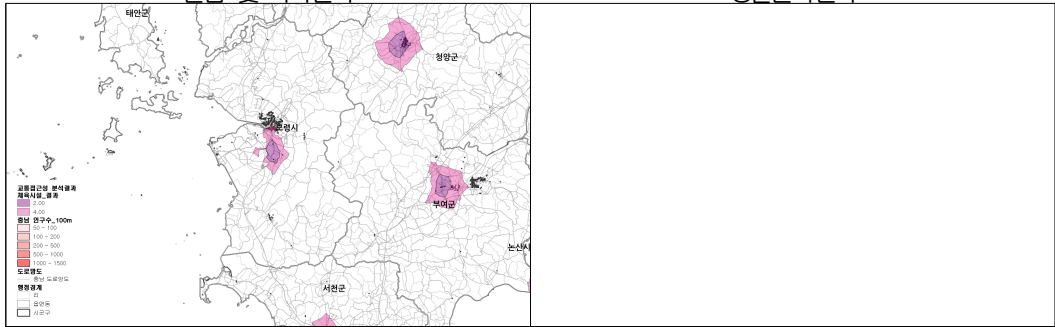
국립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곡동, 내항동, 미산면, 신흥동, 오천면, 요암동, 웅천읍, 주산면, 주포면, 천북면, 청리면, 청소면
국공립 도서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곡동, 남포면, 내항동, 미산면, 신흥동, 오천면, 요암동, 웅천읍, 주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곡동, 미산면, 신흥동, 요암동, 웅천읍, 주산면, 주포면, 천북면, 청리면, 청소면, 화산동
돌봄 및 육아센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곡동, 내항동, 미산면, 신흥동, 오천면, 요암동, 웅천읍, 주산면, 주포면, 천북면, 청리면, 청소면
생활문화 센터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촌동, 남곡동, 남포면, 내항동, 대천동, 동대동, 명천동, 미산면, 성주면, 신흥동, 오천면, 요암동, 주교면, 주포면, 죽정동, 천북면, 청리면, 청소면, 화산동
작은 도서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곡동, 남포면, 미산면, 성주면, 요암동, 웅천읍, 주산면, 천북면, 청리면, 화산동
체육시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곡동, 미산면, 성주면, 신흥동, 오천면, 요암동, 웅천읍, 주교면, 주산면, 주포면, 죽정동, 천북면, 청리면, 청소면, 화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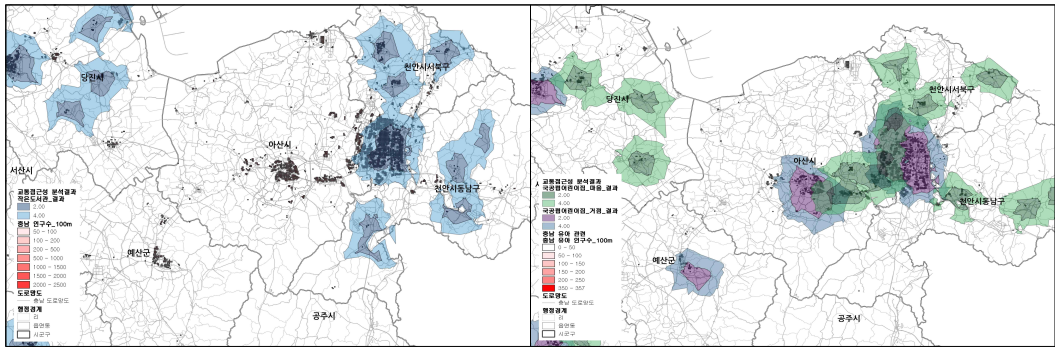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4. 아산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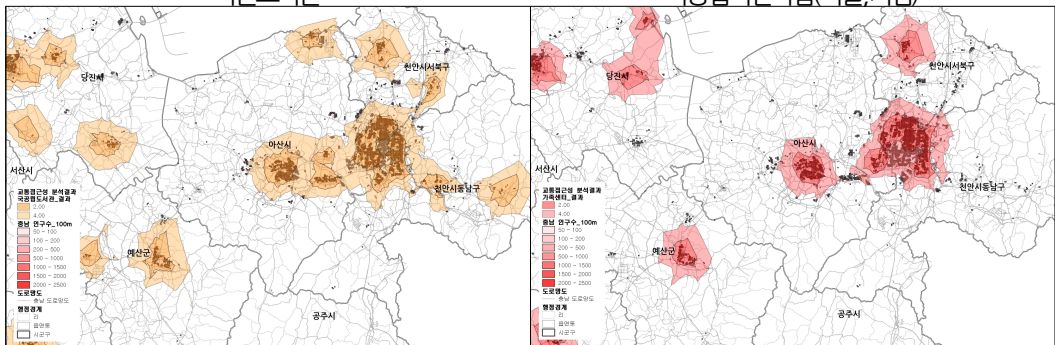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37	■ 권곡동, 기산동, 남동, 득산동, 모종동, 방축동, 배미동, 배방읍(갈매리, 공수리, 구령리, 복수리, 세교리, 장재리, 휴대리), 법곡동, 신동, 신인동, 신창면(남성리, 수장리, 행목리), 실옥동, 염치읍(곡교리, 방현리, 백암리, 석두리, 석정리, 송곡리, 염성리), 온천동, 용화동, 음봉면(덕지리), 장존동, 점양동, 좌부동, 탕정면(매곡리, 호산리), 풍기동
국공립도서관	52	■ 권곡동, 기산동, 남동, 득산동, 모종동, 방축동, 배미동, 배방읍(신흥리, 장재리), 법곡동, 신동, 신인동, 실옥동, 염치읍(곡교리, 석정리), 온천동, 용화동, 음봉면(덕지리, 산동리), 장존동, 좌부동, 탕정면(동산리, 매곡리, 호산리), 풍기동
국공립어린이집(거점)	25	■ 남동, 모종동, 배방읍(공수리, 구령리, 복수리, 세교리, 장재리, 휴대리), 신동, 염치읍(백암리), 음봉면(산동리), 읍내동, 좌부동, 탕정면(갈산리, 호산리), 풍기동
국공립어린이집(마을)	16	■ 권곡동, 남동, 둔포면(염작리), 모종동, 배방읍(갈매리, 공수리, 구령리, 복수리, 세교리, 장재리, 중리, 회룡리, 휴대리), 법곡동, 신동, 염치읍(백암리, 송곡리), 온천동, 용화동, 음봉면(덕지리, 산동리), 읍내동, 장존동, 좌부동, 탕정면(호산리), 풍기동
돌봄 및 육아센터	32	■ 권곡동, 기산동, 남동, 득산동, 모종동, 방축동, 배미동, 배방읍(구령리, 장재리), 법곡동, 신동, 신인동, 신창면(남성리, 수장리, 행목리), 실옥동, 염치읍(곡교리, 방현리, 백암리, 석두리, 석정리, 송곡리, 염성리), 온천동, 용화동, 음봉면(덕지리, 산동리), 점양동, 탕정면(동산리, 매곡리, 호산리), 풍기동
생활문화센터	38	■ 권곡동, 기산동, 남동, 득산동, 모종동, 방축동, 배미동, 배방읍(갈매리, 공수리, 구령리, 복수리, 세교리, 신흥리, 장재리, 중리, 회룡리), 법곡동, 신동, 신인동, 신창면(남성리, 수장리, 행목리), 실옥동, 염치읍(곡교리, 방현리, 백암리, 석두리, 석정리, 송곡리, 염성리), 온천동, 용화동, 장존동, 점양동, 좌부동, 탕정면(매곡리, 명암리), 풍기동
작은도서관		■
체육시설	80	■ 권곡동, 기산동, 남동, 도고면(금산리, 기곡리, 봉농리, 석당리, 시전리, 신언리, 신유리, 신통리, 외산리, 향산리, 효지리), 득산동, 모종동, 방축동, 배미동, 배방읍(갈매리, 공수리, 구령리, 복수리, 세교리, 세출리, 장재리, 회룡리, 휴대리), 법곡동, 선장면(가산리, 군덕리, 대정리, 둔포리, 선창리, 신동리, 신문리, 신성리, 채신언리, 홍곳리), 신동, 신인동, 신창면(남성리, 수장리, 신달리, 창암리, 행목리), 실옥동, 염치읍(곡교리, 동정리, 방현리, 백암리, 서원리, 석두리, 석정리, 송곡리, 쌍죽리, 염성리, 중방리), 영인면(성내리, 신운리, 아산리), 온천동, 용화동, 음봉면(덕지리, 동천리, 신수리, 월랑리), 인주면(갈매리, 관암리, 금성리, 대음리, 문방리, 밀두리, 해암리), 장존동, 점양동, 좌부동, 초사동, 탕정면(명암리, 호산리), 풍기동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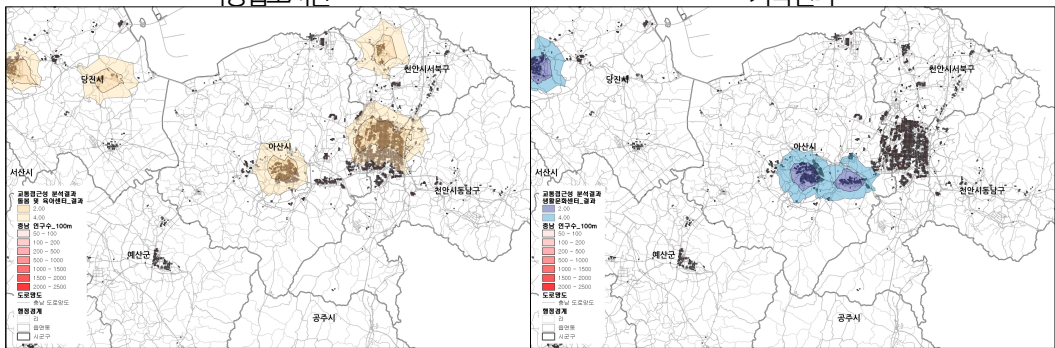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마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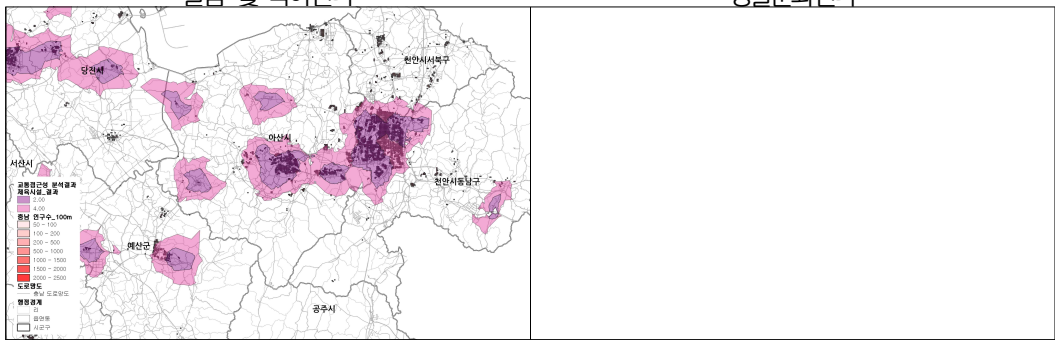
국공립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8	▪ 도고면, 둔포면, 모종동, 선장면, 송악면, 영인면, 인주면, 초사동
국공립 도서관	8	▪ 도고면, 모종동, 선장면, 송악면, 영인면, 음봉면, 인주면, 초사동
국공립 어린이집	10	▪ 도고면, 둔포면, 모종동, 선장면, 송악면, 신창면, 영인면, 인주면, 점양동, 초사동
돌봄 및 육아센터	10	▪ 도고면, 둔포면, 모종동, 선장면, 송악면, 영인면, 인주면, 장준동, 좌부동, 초사동
생활문화 센터	9	▪ 도고면, 둔포면, 모종동, 선장면, 송악면, 영인면, 음봉면, 인주면, 초사동
작은 도서관	28	▪ 권곡동, 기산동, 남동, 도고면, 둔포면, 득산동, 모종동, 방축동, 배미동, 법곡동, 선장면, 송악면, 신동, 신인동, 신창면, 실옥동, 염치읍, 영인면, 온천동, 용화동, 음봉면, 인주면, 장준동, 점양동, 좌부동, 초사동, 탕정면, 풍기동
체육시설	4	▪ 둔포면, 모종동, 선장면, 송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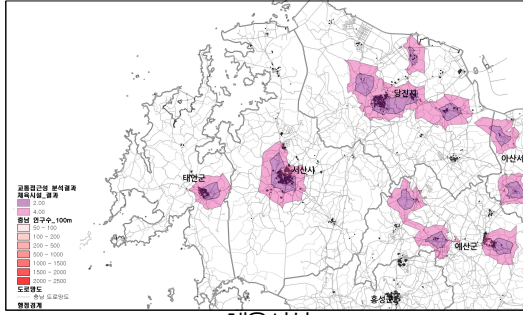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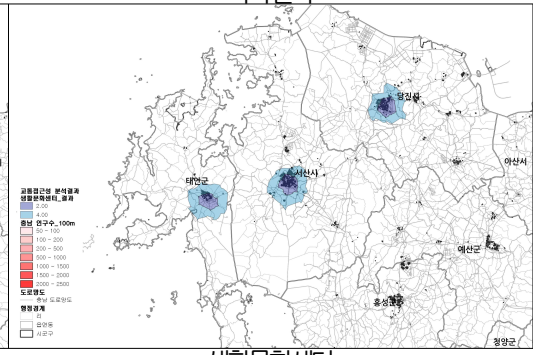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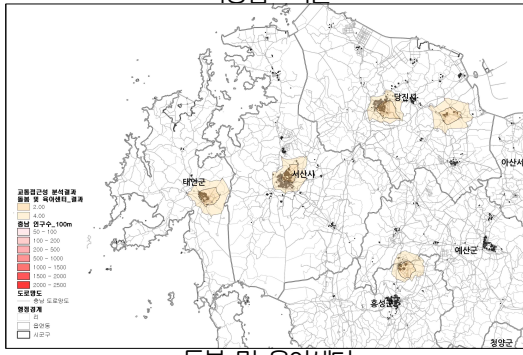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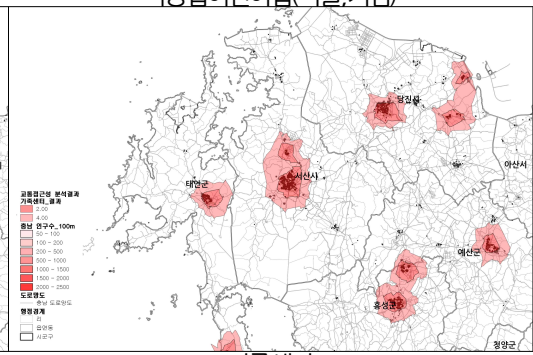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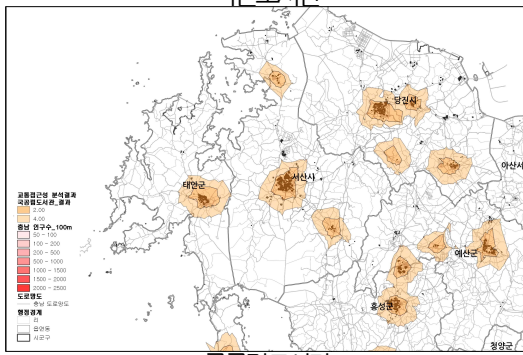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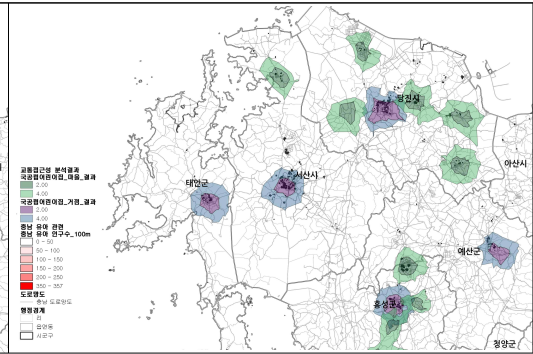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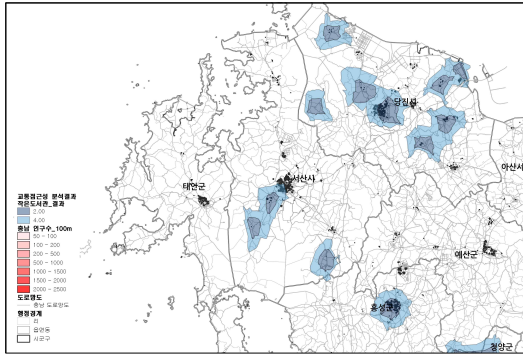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5. 서산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동문동, 부석면(가사리),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갈현리, 고남리, 명천리, 오사리, 왕정리, 일람리, 평리), 수석동, 양대동, 예천동, 오남동, 온석동, 음암면(부산리, 상흥리, 울목리), 읍내동, 인지면(둔당리, 성리, 야당리, 풍전리, 화수리), 잠흥동, 장동, 죽성동, 자곡면(무장리, 화천리), 팔봉면(금학리)
국공립 도서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고북면(신상리, 용암리), 대산읍(대로리, 대산리, 영탑리), 덕지천동, 동문동, 부석면(가사리, 강수리),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갈현리, 왕정리, 일람리), 수석동, 양대동, 예천동, 오남동, 온석동, 음암면(부산리, 상흥리, 유계리, 울목리), 읍내동, 인지면(남정리, 둔당리, 야당리, 풍전리, 화수리), 잠흥동, 죽성동, 자곡면(한성리), 해미면(귀말리, 기자리, 대곡리, 동암리, 반양리, 삼송리, 양림리, 억대리, 오학리, 웅소성리, 응평리, 저성리, 전천리, 조산리, 흥천리, 황락리, 휴암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동문동, 석남동, 석림동, 예천동, 읍내동, 인지면(풍전리, 화수리)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산읍(대로리, 대산리, 영탑리)
돌봄 및 육아센터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동문동, 부석면(가사리),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갈현리, 왕정리, 일람리), 수석동, 예천동, 온석동, 음암면(부산리, 상흥리, 울목리), 읍내동, 인지면(풍전리, 잠흥동)
생활문화 센터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동문동, 석남동, 석림동, 수석동, 양대동, 예천동, 오남동, 온석동, 읍내동, 인지면(둔당리, 성리, 야당리, 풍전리, 화수리), 잠흥동, 죽성동
작은 도서관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북면(가구리, 기포리, 신상리, 신송리, 양천리, 용암리, 정자리, 초록리), 부석면(갈마리, 대두리, 봉락리, 송사리, 월계리, 취평리), 예천동, 인지면(남정리, 둔당리, 모월리, 애정리, 야당리, 풍전리, 화수리)
체육시설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동문동, 부석면(가사리, 강수리),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고남리, 오사리, 왕정리, 일람리), 수석동, 양대동, 예천동, 오남동, 온석동, 운산면(와우리), 음암면(부산리, 상흥리), 읍내동, 인지면(남정리, 둔당리, 야당리, 풍전리, 화수리), 잠흥동, 죽성동, 팔봉면(금학리, 진장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고북면, 대신읍, 덕지천동,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 양대동, 예천동, 운산면, 음암면, 읍내동, 인지면, 죽성동, 해미면
국공립도서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 양대동, 예천동, 운산면, 음암면, 읍내동, 인지면, 장동, 죽성동, 팔봉면
국공립어린이집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고북면, 덕지천동, 동문동, 부석면,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 수석동, 양대동, 예천동, 오남동, 온석동, 운산면, 음암면, 읍내동, 잠흥동, 장동, 죽성동, 지곡면, 팔봉면, 해미면
돌봄 및 육아센터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고북면, 대신읍, 덕지천동,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 양대동, 예천동, 오남동, 운산면, 읍내동, 장동, 죽성동, 지곡면, 팔봉면, 해미면
생활문화센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고북면, 대신읍, 덕지천동, 동문동, 부석면,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 양대동, 예천동, 운산면, 음암면, 읍내동, 인지면, 장동, 죽성동, 지곡면, 팔봉면, 해미면
작은도서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대신읍, 덕지천동, 동문동,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 수석동, 양대동, 오남동, 온석동, 운산면, 음암면, 읍내동, 잠흥동, 장동, 죽성동, 지곡면, 팔봉면, 해미면
체육시설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동, 고북면, 대신읍, 덕지천동, 석남동, 석림동, 성연면, 양대동, 예천동, 운산면, 음암면, 읍내동, 인지면, 장동, 죽성동, 지곡면, 해미면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6. 논산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30	강산동, 관촉동, 광석면(광리, 산동리, 왕전리, 이사리, 천동리), 내동,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부적면(마구평리, 부인리, 아호리, 왕덕리), 부창동, 성동면(원남리, 원봉리, 원북리, 정지리, 화정리), 연산면(화악리), 은진면(교촌리, 성평리, 와야리), 지산동, 채운면(화산리), 취암동, 화지동
국공립 도서관	65	강경읍(남교리, 대흥리, 동흥리, 북옥리, 산양리, 서창리, 염천리, 중앙리, 채산리, 채운리, 태평리, 홍교리, 황산리), 강산동, 관촉동, 광석면(광리, 산동리, 이사리), 내동,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부적면(마구평리, 아호리, 왕덕리), 부창동, 성동면(개척리, 병촌리, 삼호리, 우곡리, 원봉리, 정지리), 연무읍(고내리, 금곡리, 동산리, 마산리, 마전리, 봉동리, 소룡리, 신화리, 안심리, 양지리, 죽본리, 죽평리, 황화정리), 연산면(천호리, 화악리), 은진면(교촌리, 남산리, 방축리, 성평리, 연서리, 와야리, 토양리), 지산동, 채운면(삼거리, 심암리, 아화리, 우기리, 장화리, 화산리, 화정리), 취암동, 화지동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국공립 어린이집 (미울)	37	강경읍(남교리, 대흥리, 동흥리, 산양리, 서창리, 염천리, 중앙리, 채산리, 채운리, 태평리, 홍교리, 황산리), 강산동, 내동, 양촌면(도평리, 모촌리, 반암리, 신기리, 양촌리, 인천리, 임화리, 채광리), 연산면(고양리, 관동리, 연산리, 임리, 청동리, 표정리, 한전리), 은진면(교촌리, 방축리, 성덕리, 연서리, 와야리, 용산리, 토양리), 채운면(삼거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22	강산동, 광석면(광리, 득윤리, 사월리, 신당리, 오강리, 이사리, 중리, 천동리), 내동, 상월면(산성리, 신촌리, 월오리, 주곡리, 지경리), 은진면(교촌리, 방축리, 성덕리, 연서리, 와야리, 용산리, 토양리)
체육시설	60	강경읍(남교리, 대흥리, 동흥리, 북옥리, 산양리, 서창리, 염천리, 중앙리, 채산리, 채운리, 태평리, 홍교리, 황산리), 강산동, 관촉동, 광석면(광리, 산동리), 내동,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부적면(마구평리, 부인리, 아호리, 왕덕리), 부창동, 성동면(개척리, 삼호리, 원봉리), 연무읍(고내리, 금곡리, 동산리, 마산리, 마전리, 봉동리, 소룡리, 신화리, 안심리, 양지리, 죽본리, 죽평리, 황화정리), 은진면(교촌리, 방축리, 성덕리, 성평리, 연서리, 와야리, 토양리), 지산동, 채운면(삼거리, 심암리, 아화리, 우기리, 장화리, 화산리, 화정리), 취암동, 화지동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7	▪ 가야곡면, 강경읍, 노성면, 벌곡면, 상월면, 양촌면, 연무읍
국공립 도서관	5	▪ 가야곡면, 노성면, 벌곡면, 상월면, 양촌면
국공립 어린이집	17	▪ 가야곡면, 관촉동, 광석면, 노성면,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벌곡면, 부적면, 부창동, 상월면, 성동면, 연무읍, 지산동, 취암동, 화지동
돌봄 및 육아센터	24	▪ 가야곡면, 강경읍, 강산동, 관촉동, 광석면, 내동, 노성면,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벌곡면, 부적면, 부창동, 상월면, 성동면, 양촌면, 연무읍, 연산면, 은진면, 지산동, 채운면, 취암동, 화지동
생활문화 센터	24	▪ 가야곡면, 강경읍, 강산동, 관촉동, 광석면, 내동, 노성면,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벌곡면, 부적면, 부창동, 상월면, 성동면, 양촌면, 연무읍, 연산면, 은진면, 지산동, 채운면, 취암동, 화지동
작은 도서관	18	▪ 가야곡면, 강경읍, 관촉동,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벌곡면, 부적면, 부창동, 성동면, 양촌면, 연무읍, 연산면, 지산동, 채운면, 취암동, 화지동
체육시설	6	▪ 가야곡면, 노성면, 벌곡면, 상월면, 양촌면, 연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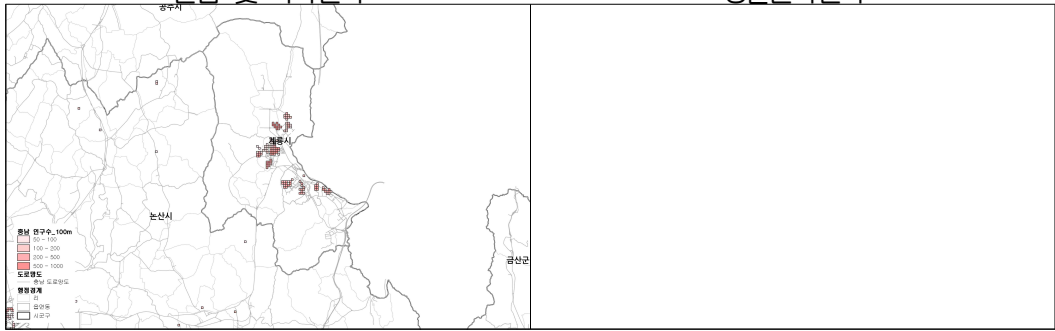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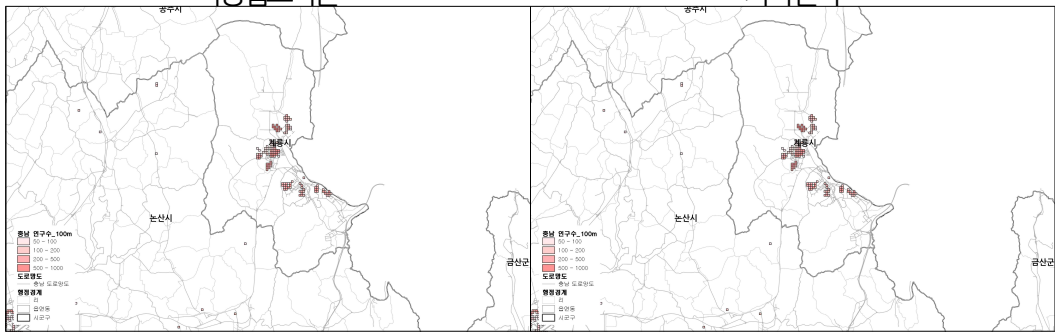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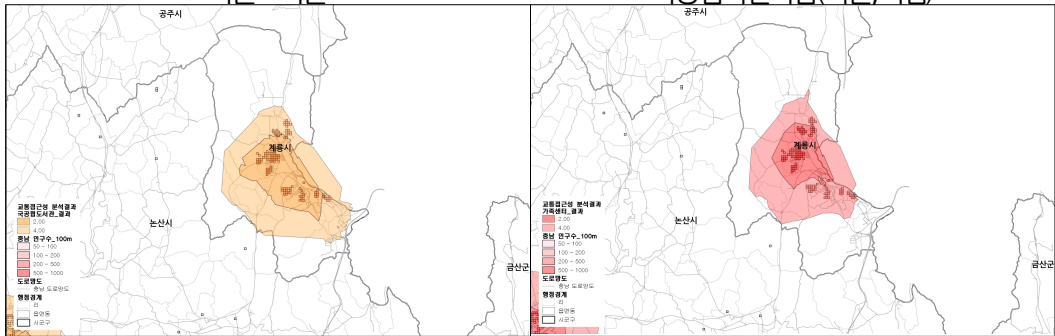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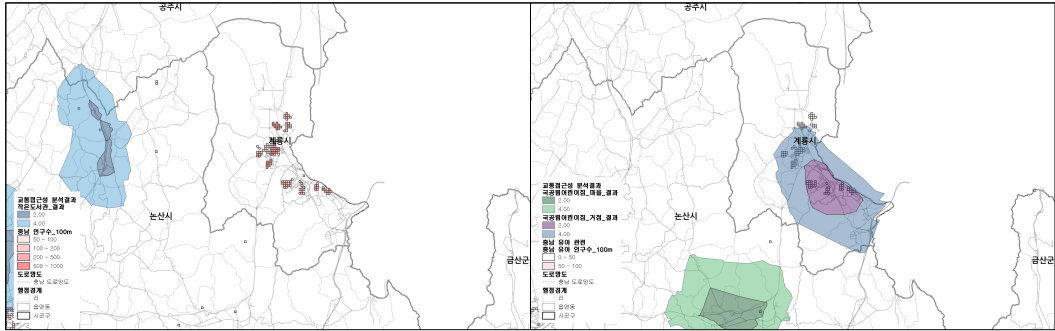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7. 계룡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2	■ 금암동, 두마면(농소리, 두계리), 신도안면(남선리,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정장리), 엄사면(광석리, 엄사리, 유동리, 향한리)
국공립 도서관	14	■ 금암동, 두마면(농소리, 두계리, 왕대리, 입암리), 신도안면(남선리,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정장리), 엄사면(광석리, 엄사리, 유동리, 향한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5	■ 금암동, 두마면(농소리, 두계리), 엄사면(엄사리, 유동리)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3	▪ 금암동, 두마면, 엄사면
국공립 도서관	3	▪ 금암동, 두마면, 엄사면
국공립 어린이집	4	▪ 금암동, 두마면, 신도안면, 엄사면
돌봄 및 육아센터	4	▪ 금암동, 두마면, 신도안면, 엄사면
생활문화 센터	4	▪ 금암동, 두마면, 신도안면, 엄사면
작은 도서관	4	▪ 금암동, 두마면, 신도안면, 엄사면
체육시설	4	▪ 금암동, 두마면, 신도안면, 엄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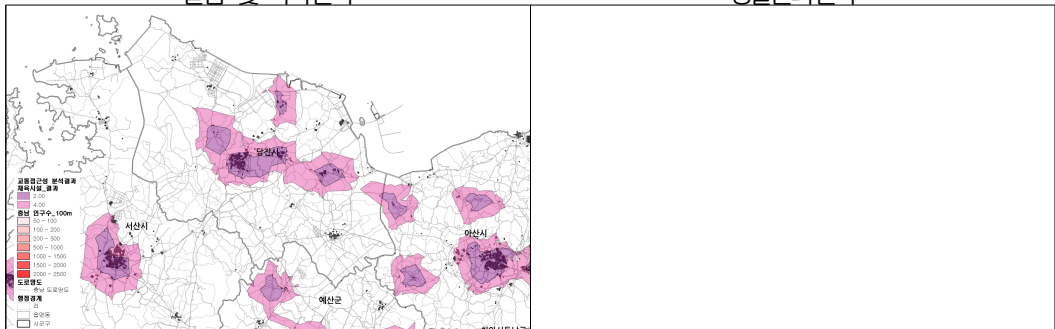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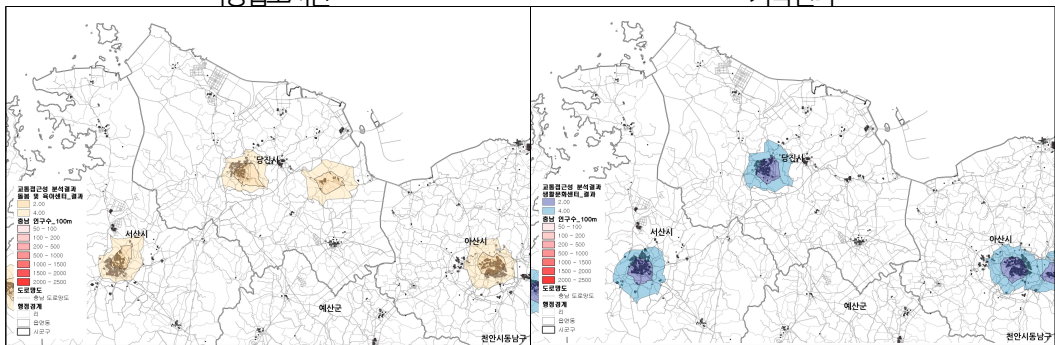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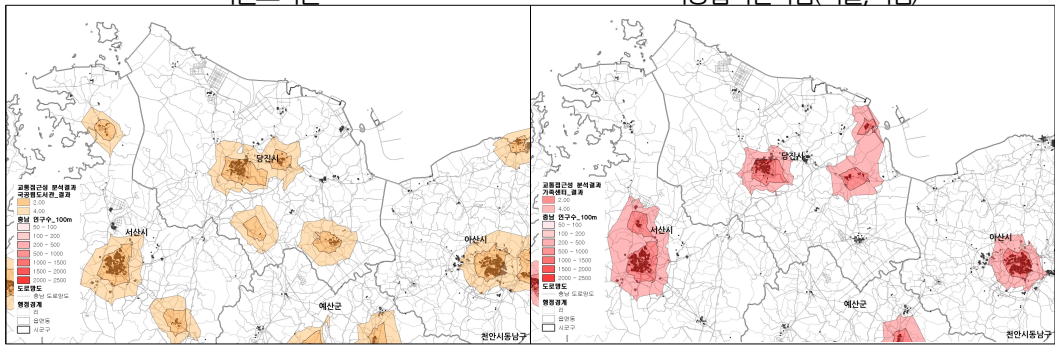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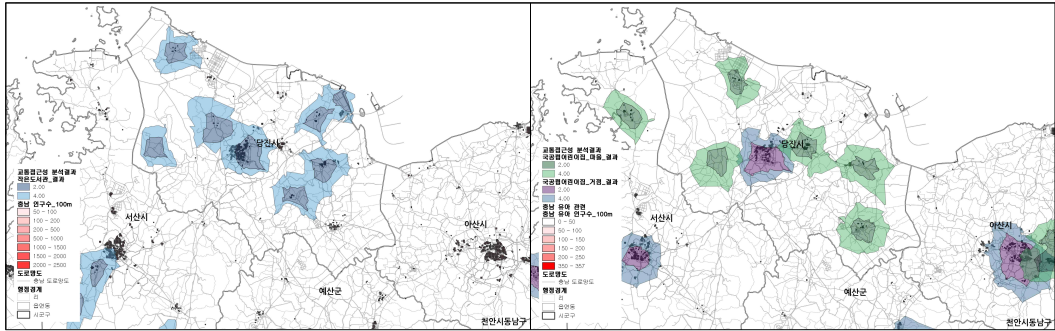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8. 당진시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용두리, 진관리, 향곡리), 대덕동, 송악읍(광명리, 도원리, 복운리, 본당리, 봉교리, 부곡리, 영천리, 오곡리, 월곡리, 전대리, 중흥리, 청금리, 한진리), 수청동, 순성면(갈산리, 아천리), 시곡동, 신평면(거산리, 금천리, 남산리, 도성리, 매산리, 상오리, 신당리, 신흥리, 초대리, 한정리), 용연동, 우두동, 원당동, 정미면(모평리, 봉생리), 채운동, 행정동
국공립 도서관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슬항리, 용두리, 진관리, 향곡리), 구룡동, 대덕동, 면천면(대차리, 문봉리, 시가소리, 삼웅리, 성상리, 상하리, 송학리, 원동리, 자개리, 죽동리), 시가소동, 송산면(금암리, 매곡리, 명산리, 부곡리, 삼월리, 상가리), 송악읍(가교리, 가학리, 광명리, 가지사리, 빈촌리, 방계리, 본당리, 석포리, 영천리), 수청동, 순성면(갈산리, 나산리, 백석리, 본리, 성북리, 양유리, 중방리), 시곡동, 신평면(거산리), 용연동, 우강면(성원리, 서류리, 송산리, 원차리, 창리), 우두동, 원당동, 정미면(모평리, 봉생리, 천외리), 채운동, 합덕읍(대합덕리, 도곡리, 도리, 석우리, 성동리, 소소리, 신석리, 운산리, 점원리, 합덕리), 행정동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향곡리), 대덕동, 수청동, 순성면(갈산리), 시곡동, 용연동, 우두동, 원당동, 정미면(모평리, 봉생리), 채운동, 행정동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성산리, 옥현리), 대호지면(두산리), 석문면(삼화리, 통정리), 송산면(부곡리), 송악읍(가교리, 가학리, 가지사리, 빈촌리), 시곡동, 신평면(거산리, 금천리, 남산리, 도성리, 신흥리, 초대리, 한정리), 우강면(송산리, 창리), 정미면(송산리, 천외리), 합덕읍(성동리, 소소리, 운산리, 점원리, 합덕리)
돌봄 및 육아센터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진관리, 향곡리), 대덕동, 송산면(금암리), 송악읍(광명리, 본당리, 봉교리, 영천리, 전대리, 청금리), 수청동, 순성면(갈산리, 아천리), 시곡동, 신평면(거산리, 금천리, 남산리, 도성리, 매산리, 상오리, 신당리, 신흥리, 초대리, 한정리), 용연동, 우두동, 원당동, 채운동, 행정동
생활문화 센터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용두리, 진관리, 향곡리), 대덕동, 송산면(금암리), 수청동, 순성면(갈산리), 시곡동, 용연동, 우두동, 원당동, 정미면(봉생리), 채운동, 행정동
작은 도서관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대촌리, 슬항리, 옥현리, 용두리, 진관리, 향곡리), 대덕동, 대호지면(두산리, 사성리, 송전리, 장정리, 조금리, 출포리), 석문면(교로리, 삼봉리, 장고항리, 초락도리), 송산면(금암리), 송악읍(금곡리, 복운리, 봉교리, 부곡리, 석포리, 오곡리, 월곡리, 중흥리, 청금리, 한진리), 수청동, 순성면(갈산리, 광천리, 본리, 봉소리, 아천리, 옥호리), 시곡동, 신평면(거산리, 금천리, 남산리, 상오리, 초대리), 우두동, 원당동, 읍내동, 채운동
체육시설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당진포리, 대촌리, 슬항리, 옥현리, 용두리, 장항리, 진관리, 향곡리), 대덕동, 송산면(가곡리, 금암리, 도문리, 동곡리, 매곡리, 명산리, 무수리, 부곡리, 삼월리, 상가리, 유곡리), 송악읍(가교리, 가학리, 광명리, 가지사리, 빈촌리, 방계리, 본당리, 봉교리, 영천리, 전대리, 청금리), 수청동, 순성면(갈산리, 아천리, 옥호리), 시곡동, 신평면(거산리, 금천리, 남산리, 도성리, 매산리, 상오리, 신당리, 신흥리, 운정리, 초대리, 한정리), 용연동, 우강면(부장리, 신촌리), 우두동, 원당동, 정미면(모평리, 봉생리), 채운동, 행정동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구룡동, 대덕동, 대호지면, 면천면, 사기소동, 석문면, 송악읍, 수청동, 순성면, 시곡동, 신평면, 용연동, 우강면, 원당동, 정미면, 채운동, 합덕읍
국공립 도서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대덕동, 대호지면, 면천면, 사기소동, 석문면, 송악읍, 수청동, 순성면, 시곡동, 용연동, 우강면, 원당동, 정미면, 채운동, 합덕읍
국공립 어린이집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구룡동, 대덕동, 대호지면, 면천면, 사기소동, 석문면, 송산면, 송악읍, 수청동, 순성면, 시곡동, 용연동, 우강면, 원당동, 정미면, 채운동, 합덕읍
돌봄 및 육아센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구룡동, 대덕동, 대호지면, 면천면, 사기소동, 석문면, 송악읍, 수청동, 순성면, 시곡동, 신평면, 용연동, 우강면, 원당동, 정미면, 채운동, 합덕읍
생활문화 센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구룡동, 대덕동, 대호지면, 면천면, 사기소동, 석문면, 송악읍, 수청동, 순성면, 시곡동, 신평면, 용연동, 우강면, 원당동, 정미면, 채운동, 합덕읍
작은 도서관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구룡동, 대덕동, 면천면, 사기소동, 송산면, 송악읍, 수청동, 순성면, 시곡동, 신평면, 용연동, 우강면, 원당동, 정미면, 채운동, 합덕읍, 행정동
체육시설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면, 구룡동, 대덕동, 대호지면, 면천면, 사기소동, 석문면, 송악읍, 수청동, 순성면, 시곡동, 용연동, 우강면, 원당동, 정미면, 채운동, 합덕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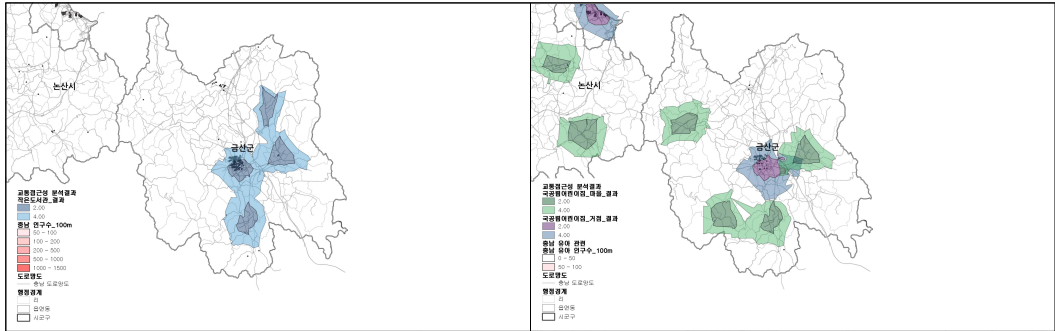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9. 금산군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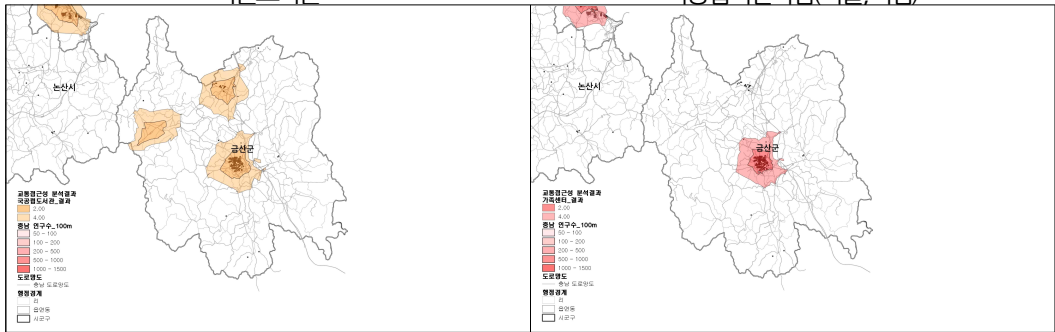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23	▪ 군북면(내부리, 외부리, 호티리), 금산읍(계진리, 상리, 상옥리, 신대리, 아인리, 양지리, 음지리, 중도리, 하옥리), 금성면(도곡리, 두곡리, 상가리, 양전리, 의총리, 파초리, 하류리), 남이면(성곡리), 남일면(황풍리), 부리면(창평리), 제원면(수당리)
국공립 도서관	42	▪ 군북면(내부리, 외부리, 호티리), 금산읍(계진리, 상리, 상옥리, 신대리, 아인리, 음지리, 중도리, 하옥리), 금성면(대암리, 마수리, 상가리, 양전리, 의총리, 파초리, 하류리, 하신리), 남이면(성곡리), 남일면(황풍리), 복수면(곡남리, 다북리, 묵소리, 수영리, 용진리), 부리면(창평리), 제원면(수당리), 진산면(두지리, 만악리, 묵산리, 부암리, 삼가리, 엄정리, 지방리, 행정리), 추부면(비례리, 요광리, 용지리, 자부리, 장대리, 추정리, 내부리, 호티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12	▪ 군북면(호티리), 금산읍(계진리, 상리, 상옥리, 신대리, 아인리, 중도리, 하옥리), 금성면(양전리), 남일면(황풍리), 부리면(창평리), 제원면(수당리)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22	▪ 남이면(대양리, 매곡리, 성곡리, 역평리, 하금리, 흑암리), 남일면(덕천리, 상동리, 신천리, 음대리, 초현리), 복수면(곡남리), 제원면(구역리, 동곡리, 명암리, 수당리, 저곡리, 제원리, 천내리), 진산면(묵산리, 부암리, 읍내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21	▪ 군북면(내부리, 호티리), 금산읍(계진리, 상리, 상옥리, 신대리, 아인리, 양지리, 음지리, 중도리, 하옥리), 금성면(도곡리, 양전리, 의총리, 하류리), 남이면(성곡리), 남일면(마장리, 상동리, 황풍리), 부리면(창평리), 제원면(수당리)
작은 도서관	27	▪ 군북면(동편리, 두두리, 산안리, 조정리, 천율리, 호티리), 금산읍(계진리, 상리, 상옥리, 아인리, 중도리, 하옥리), 남이면(매곡리, 성곡리), 남일면(덕천리, 상동리, 신천리, 음대리, 초현리), 제원면(구역리, 대산리, 동곡리, 명암리, 수당리, 저곡리, 제원리, 천내리)
체육시설	23	▪ 군북면(내부리, 외부리, 호티리), 금산읍(계진리, 상리, 상옥리, 신대리, 아인리, 음지리, 중도리, 하옥리), 금성면(도곡리, 마수리, 상가리, 양전리, 의총리, 파초리, 하류리, 화림리), 남이면(성곡리), 남일면(황풍리), 부리면(창평리), 제원면(수당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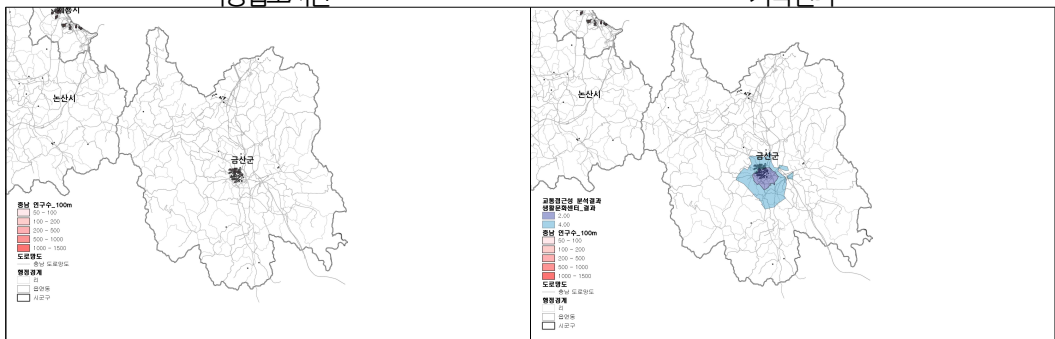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마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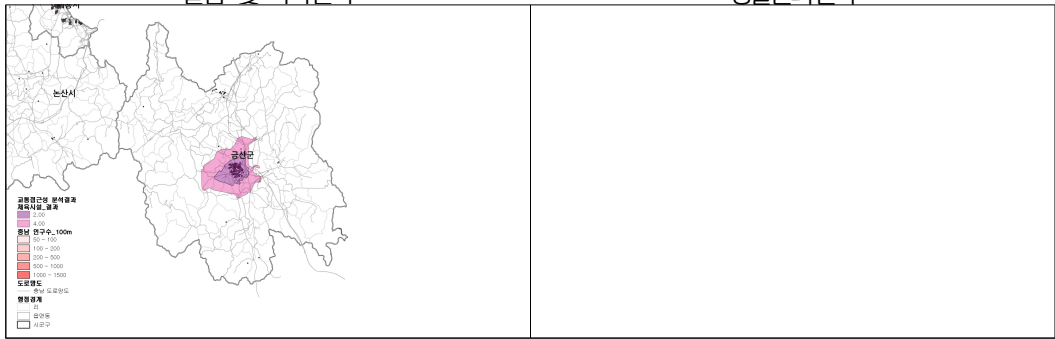
국공립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4	■ 금산읍, 복수면, 진산면, 추부면
국공립 도서관	1	■ 금산읍
국공립 어린이집	2	■ 금산읍, 추부면
돌봄 및 육아센터	10	■ 군북면, 금산읍, 금성면, 남이면, 남일면, 복수면, 부리면, 제원면, 진산면, 추부면
생활문화 센터	4	■ 금산읍, 복수면, 진산면, 추부면
작은 도서관	5	■ 금성면, 복수면, 부리면, 진산면, 추부면
체육시설	4	■ 금산읍, 복수면, 진산면, 추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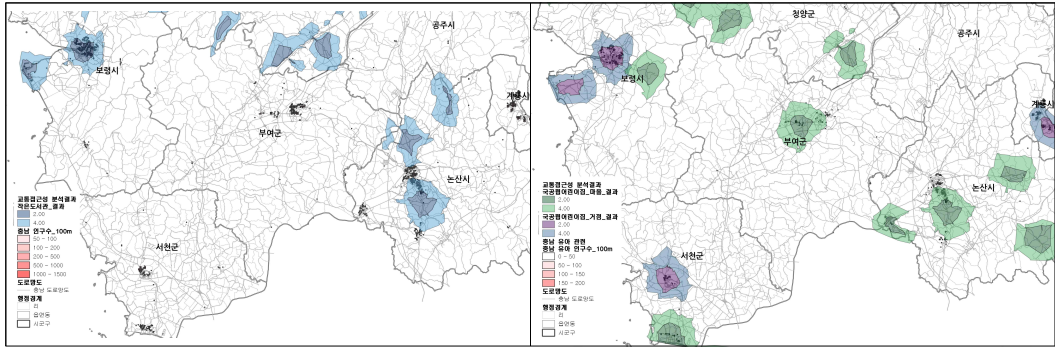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0. 부여군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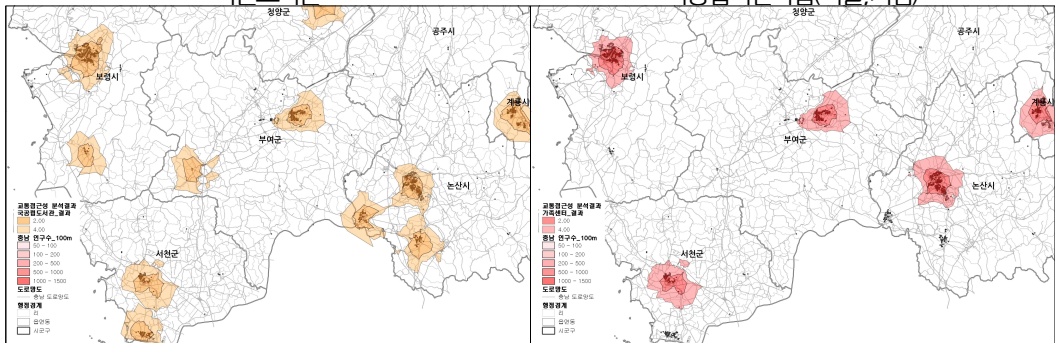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23	■ 규암면(규암리, 나북리, 내리, 반산리, 외리, 진변리, 합정리, 호암리), 부여읍(가증리, 가탑리, 관북리, 구교리, 구아리, 군수리, 능산리, 동남리, 석목리, 쌍북리, 염창리, 왕포리, 용정리, 정동리, 중정리)
국공립 도서관	48	■ 규암면(규암리, 나북리, 내리, 반산리, 외리, 진변리, 합정리, 호암리), 남면(금천리, 내곡리, 대선리, 삼용리, 신흥리), 부여읍(가증리, 가탑리, 관북리, 구교리, 구아리, 군수리, 능산리, 동남리, 석목리, 쌍북리, 염창리, 왕포리, 용정리, 정동리, 중정리), 세도면(가회리, 귀덕리, 장산리, 청포리), 옥산면(가덕리, 내대리, 봉산리, 상기리, 수암리, 안서리, 학산리, 홍연리), 홍산면(교원리, 남촌리, 북촌리, 상천리, 조현리, 좌흥리, 토정리, 홍양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10	■ 규암면(규암리, 나북리, 내리, 반산리, 외리, 진변리), 부여읍(구교리, 군수리, 동남리), 장암면(석동리)
돌봄 및 육아센터	22	■ 규암면(규암리, 나북리, 내리, 반산리, 외리, 진변리, 가증리, 가탑리), 부여읍(가증리, 가탑리, 관북리, 구교리, 구아리, 군수리, 능산리, 동남리, 석목리, 쌍북리, 염창리, 왕포리, 용정리, 정동리, 중정리), 장암면(석동리)
생활문화 센터	23	■ 규암면(규암리, 나북리, 내리, 반산리, 신리, 외리, 진변리, 호암리), 부여읍(가증리, 가탑리, 관북리, 구교리, 구아리, 군수리, 능산리, 동남리, 석목리, 쌍북리, 염창리, 왕포리, 용정리, 정동리, 중정리)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25	■ 구룡면(구룡리), 규암면(규암리, 나북리, 내리, 노화리, 모리, 반산리, 석우리, 수목리, 신리, 오수리, 외리, 진변리, 함양리, 합송리), 부여읍(구교리, 군수리, 동남리), 세도면(가회리, 청포리), 은산면(가중리, 경둔리, 은산리), 장암면(석동리, 원문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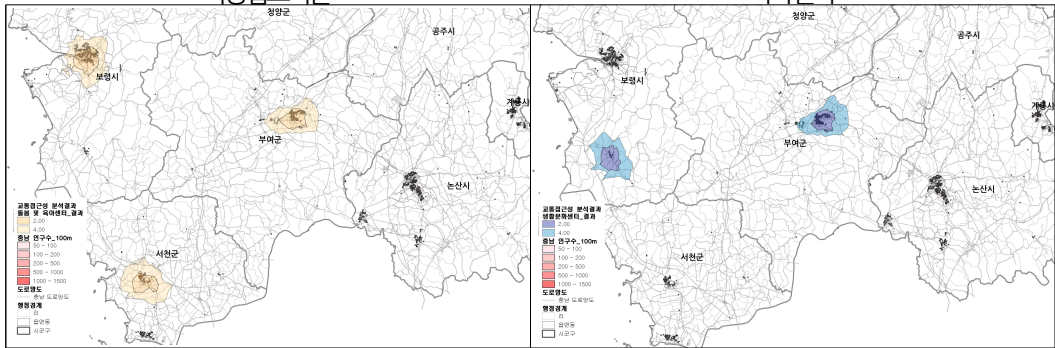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국립어린이집(마을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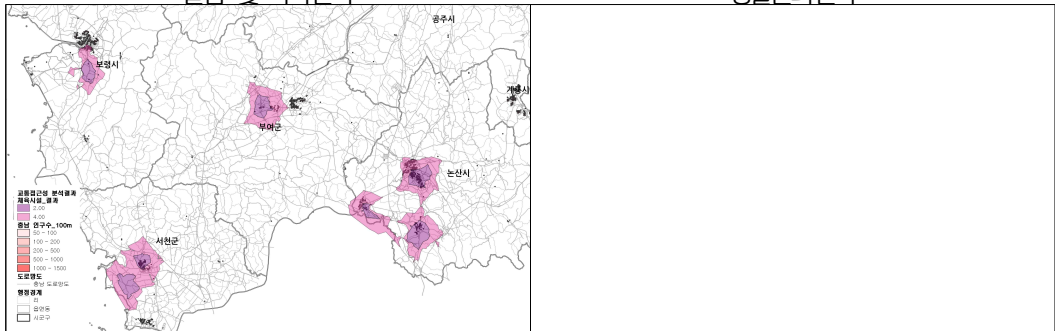
국립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치유시설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면, 남면, 내산면, 부여읍, 석성면, 세도면, 양화면, 옥산면, 외산면, 은산면, 임천면, 장암면, 초촌면, 충화면, 홍산면
국공립 도서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면, 남면, 내산면, 부여읍, 석성면, 양화면, 외산면, 은산면, 임천면, 장암면, 초촌면, 충화면
국공립 어린이집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면, 규암면, 남면, 내산면, 부여읍, 석성면, 세도면, 양화면, 옥산면, 외산면, 은산면, 임천면, 장암면, 초촌면, 충화면, 홍산면
돌봄 및 육아센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면, 규암면, 남면, 내산면, 부여읍, 석성면, 세도면, 양화면, 옥산면, 외산면, 은산면, 임천면, 장암면, 초촌면, 충화면, 홍산면
생활문화 센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면, 남면, 내산면, 부여읍, 석성면, 세도면, 양화면, 옥산면, 외산면, 은산면, 임천면, 장암면, 초촌면, 충화면, 홍산면
작은 도서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면, 규암면, 남면, 내산면, 부여읍, 석성면, 세도면, 양화면, 옥산면, 외산면, 은산면, 임천면, 장암면, 초촌면, 충화면, 홍산면
체육시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룡면, 규암면, 남면, 내산면, 부여읍, 석성면, 양화면, 옥산면, 외산면, 은산면, 임천면, 장암면, 초촌면, 충화면, 홍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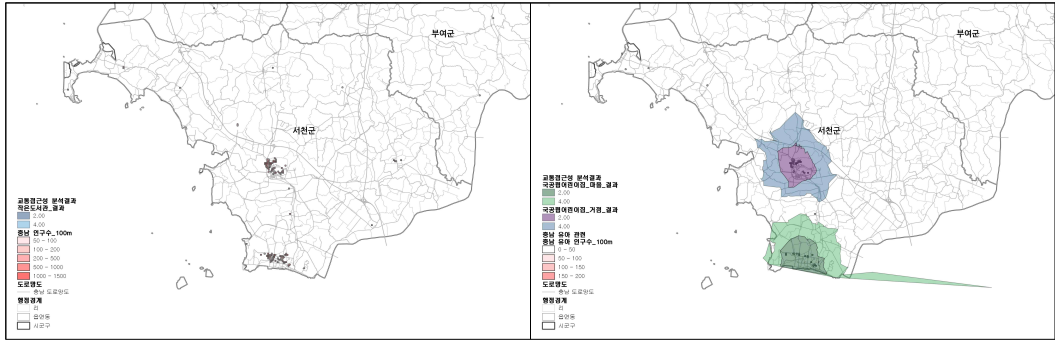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1. 서천군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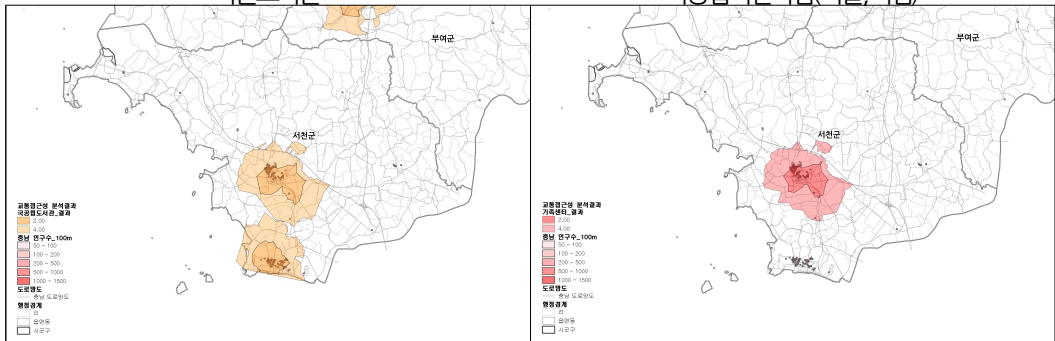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면(두남리, 두북리, 원길리), 마서면(계동리, 덕암리, 봉남리, 산내리, 어리, 옥북리, 옥산리, 장선리, 한성리), 서천읍(구암리, 군사리, 동산리, 두왕리, 둔덕리, 사곡리, 삼산리, 신송리, 오석리, 태월리, 화금리, 화성리), 종천면(도만리, 산천리, 장구리)
국공립 도서관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면(두남리, 두북리, 원길리), 마서면(계동리, 남전리, 덕암리, 봉남리, 산내리, 송내리, 어리, 옥북리, 장선리, 한성리), 서천읍(구암리, 군사리, 두왕리, 둔덕리, 사곡리, 삼산리, 신송리, 오석리, 태월리, 화금리, 화성리), 장항읍(성주리, 송림리, 신창리, 옥남리, 옥산리, 원수리, 장암리, 창선1리, 창선2리, 화천리), 종천면(도만리, 산천리, 장구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천읍(구암리, 군사리, 사곡리, 신송리, 오석리, 화금리), 종천면(화산리)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항읍(성주리, 송림리, 신창리, 옥산리, 원수리, 장암리, 창선1리, 창선2리, 화천리)
돌봄 및 육아센터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면(두북리, 원길리), 마서면(계동리, 남전리, 덕암리, 봉남리, 산내리, 어리, 옥산리, 월포리, 장선리, 한성리), 서천읍(구암리, 군사리, 두왕리, 사곡리, 삼산리, 신송리, 오석리, 태월리, 화금리, 화성리), 종천면(도만리, 산천리, 장구리, 화산리)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서면(계동리, 남전리, 봉남리, 어리, 옥북리, 옥산리, 월포리, 죽산리, 한성리), 서천읍(군사리, 두왕리, 사곡리, 삼산리, 신송리, 오석리, 태월리, 화금리, 화성리), 장항읍(송림리, 옥남리), 종천면(당정리, 도만리, 산천리, 석촌리, 장구리, 지석리, 금정리, 수석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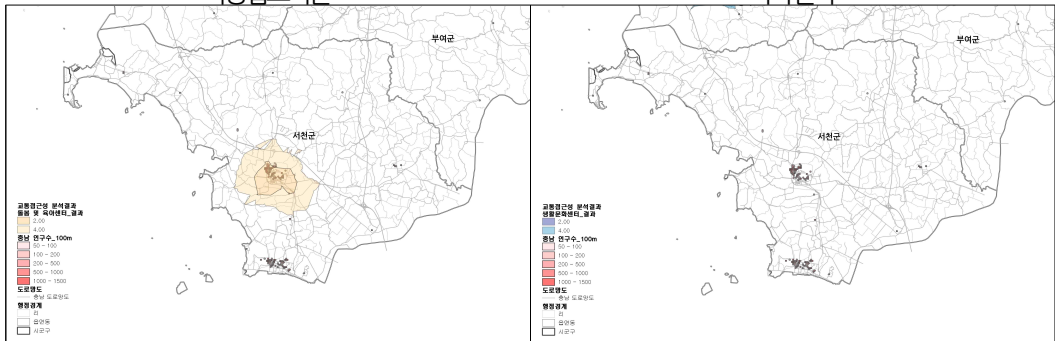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마을,거점)



국공립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치유시설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9	■ 마산면, 문산면, 비인면, 서면, 시초면, 장항읍, 판교면, 한산면, 화양면
국공립 도서관	8	■ 마산면, 문산면, 비인면, 서면, 시초면, 판교면, 한산면, 화양면
국공립 어린이집	10	■ 기산면, 마산면, 마서면, 문산면, 비인면, 서면, 시초면, 판교면, 한산면, 화양면
돌봄 및 육아센터	9	■ 마산면, 문산면, 비인면, 서면, 시초면, 장항읍, 판교면, 한산면, 화양면
생활문화 센터	13	■ 기산면, 마산면, 마서면, 문산면, 비인면, 서면, 서천읍, 시초면, 장항읍, 종천면, 판교면, 한산면, 화양면
작은 도서관	13	■ 기산면, 마산면, 마서면, 문산면, 비인면, 서면, 서천읍, 시초면, 장항읍, 종천면, 판교면, 한산면, 화양면
체육시설	9	■ 기산면, 마산면, 문산면, 비인면, 서면, 시초면, 판교면, 한산면, 화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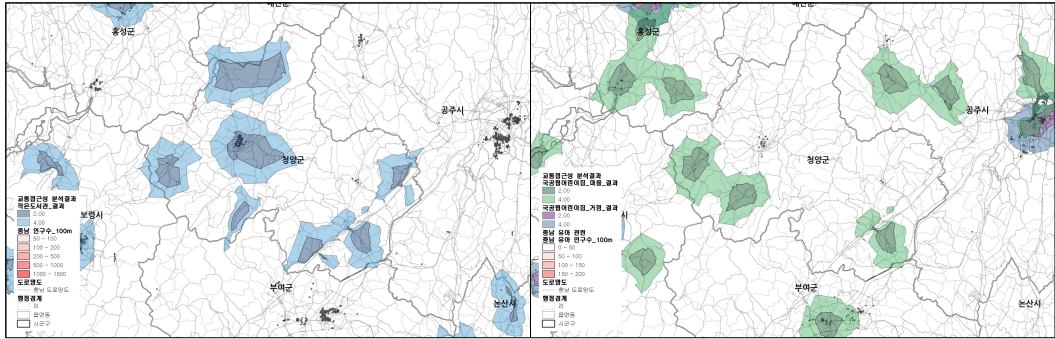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2. 청양군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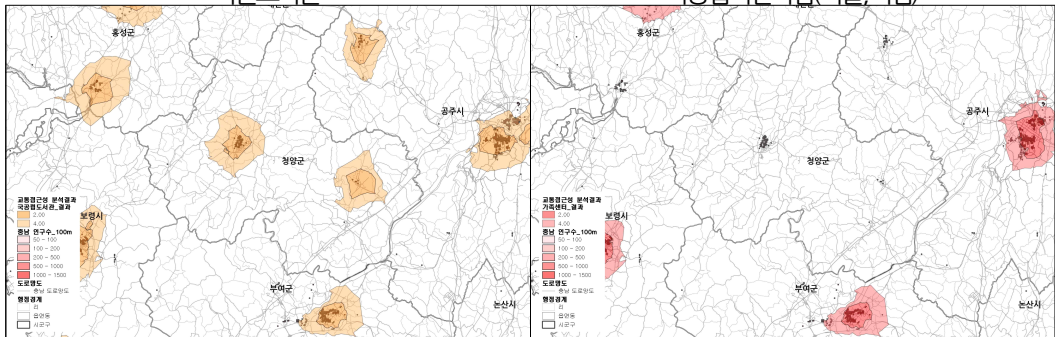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국공립 도서관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면(금정리, 대치면(수석리, 주정리, 탄정리), 목면(대평리, 자곡리, 화양리), 비봉면(신원리, 중목리), 정산면(광생리, 내초리, 대박리, 덕성리, 마치리, 백곡리, 서정리, 신덕리, 역촌리, 외촌리, 천장리, 학암리, 해남리), 청양읍(교월리, 군량리, 백천리, 벽천리, 송방리, 읍내리, 장승리, 적누리, 정좌리, 청수리, 학당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면(구룡리, 대봉리, 봉암리, 신왕리, 용두리, 용마리, 홍산리), 청남면(내직리, 동강리, 상창리, 중산리, 자곡리, 청소리), 화성면(공평리, 구재리, 기덕리, 농암리, 매산리, 산정리, 장계리, 화강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면(신왕리), 대치면(광금리, 광대리, 주정리, 탄정리), 목면(대평리, 본의리, 송암리, 신흥리, 안심리, 강정리), 비봉면(강정리, 관산리, 룡평리, 사점리, 장재리), 운곡면(모곡리, 신대리, 영양리, 효제리, 후덕리), 장평면(관현리, 분항리, 은곡리, 중추리), 청남면(내직리, 대흥리, 동강리, 상장리, 중산리, 자곡리, 청소리), 청양읍(교월리, 군량리, 백천리, 벽천리, 송방리, 읍내리, 장승리, 적누리, 정좌리, 학당리), 화성면(구재리, 농암리, 산정리, 장계리, 화강리)
체육시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면(금정리), 대치면(주정리, 탄정리), 비봉면(신원리, 중목리), 청양읍(교월리, 군량리, 백천리, 벽천리, 송방리, 읍내리, 장승리, 적누리, 정좌리, 청수리, 학당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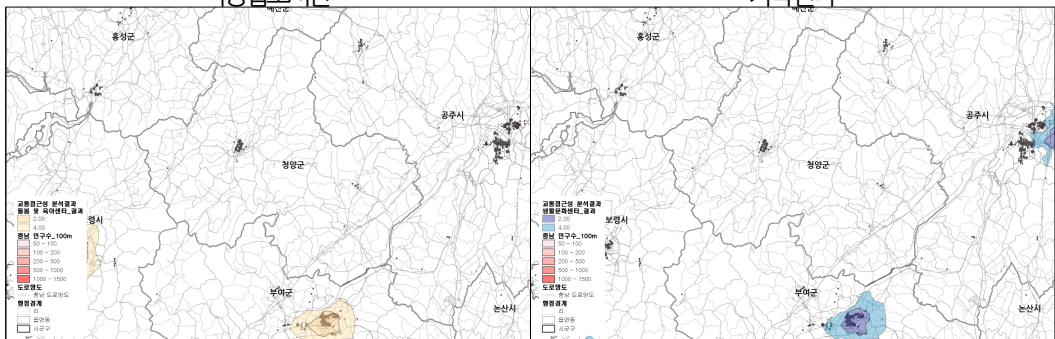
작은도시관

국공립어린이집(마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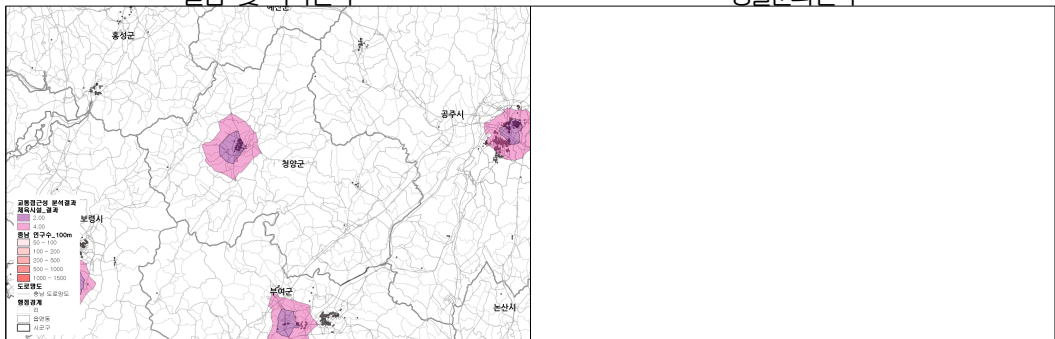
국공립도서관

가족센터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10	■ 남양면, 대치면, 목면, 비봉면, 운곡면, 장평면, 정산면, 청남면, 청양읍, 화성면
국공립 도서관	4	■ 운곡면, 장평면, 청남면, 화성면
국공립 어린이집	9	■ 남양면, 대치면, 목면, 비봉면, 운곡면, 장평면, 정산면, 청남면, 청양읍
돌봄 및 육아센터	10	■ 남양면, 대치면, 목면, 비봉면, 운곡면, 장평면, 정산면, 청남면, 청양읍, 화성면
생활문화 센터	10	■ 남양면, 대치면, 목면, 비봉면, 운곡면, 장평면, 정산면, 청남면, 청양읍, 화성면
작은 도서관	3	■ 남양면, 운곡면, 정산면
체육시설	7	■ 대치면, 목면, 운곡면, 장평면, 정산면, 청남면, 화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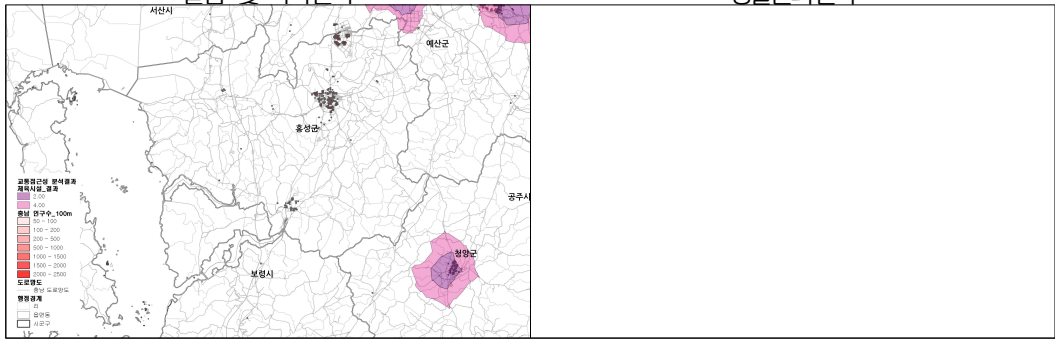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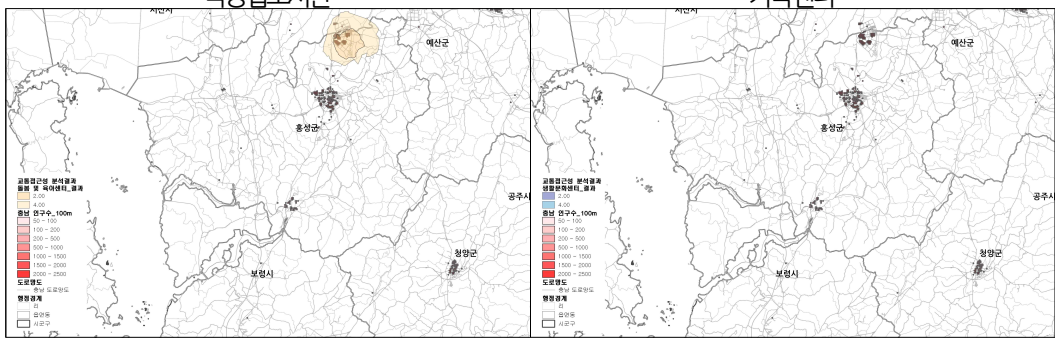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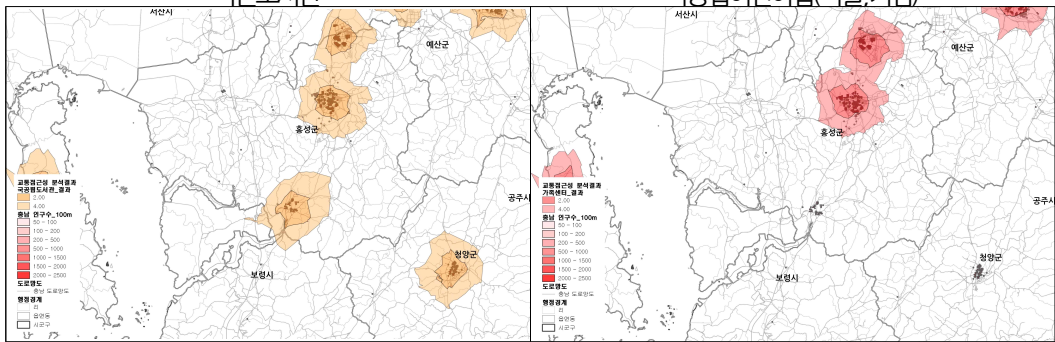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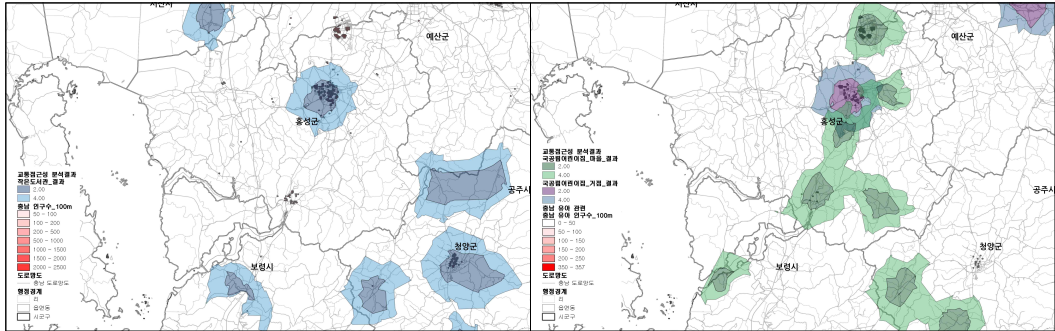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3. 홍성군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산면(갈오리), 구항면(마온리, 오봉리, 황곡리), 금마면(신곡리, 장성리, 화양리), 홍동면(팔괘리), 홍북읍(내덕리, 노은리, 대동리, 봉신리, 산수리, 상하리, 석택리, 신경리, 용산리, 중계리), 홍성읍(고암리, 구룡리, 남장리, 내법리, 대교리, 소항리, 송월리, 오관리, 옥암리, 월산리, 학계리)
국공립 도서관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천읍(가정리, 광천리, 내죽리, 담산리, 매현리, 벽계리, 상정리, 소암리, 신진리, 웅암리, 운용리, 월림리), 구항면(마온리, 청광리, 황곡리), 금마면(신곡리, 장성리, 죽림리), 은하면(장척리, 화봉리), 장곡면(오성리, 죽전리), 홍동면(신기리, 팔괘리), 홍북읍(내덕리, 대동리, 봉신리, 산수리, 상하리, 석택리, 신경리, 신정리, 용산리, 중계리), 홍성읍(고암리, 구룡리, 남장리, 내법리, 대교리, 소항리, 송월리, 신성리, 오관리, 옥암리, 월산리, 학계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읍(고암리, 남장리, 대교리, 소항리, 오관리, 옥암리, 월산리)
국공립 어린이집 (미울)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천읍(광천리, 매현리, 벽계리, 상정리, 소암리, 신진리), 구항면(마온리, 청광리), 금마면(송암리, 신곡리, 장성리), 장곡면(가송리, 도산리, 상송리, 신동리, 신평리, 죽전리, 화계리), 홍동면(원천리), 홍북읍(대동리, 석택리, 신경리, 남장리, 신성리, 학계리)
돌봄 및 육아센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마면(화양리), 홍북읍(내덕리, 노은리, 대동리, 봉신리, 산수리, 상하리, 석택리, 신경리, 용산리)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읍(고암리, 남장리, 대교리, 소항리, 오관리, 옥암리, 월산리)
체육시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북읍(신정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6	▪ 결성면,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장곡면, 홍북읍
국공립 도서관	4	▪ 갈산면, 결성면, 서부면, 홍북읍
국공립 어린이집	5	▪ 갈산면, 결성면, 서부면, 은하면, 홍북읍
돌봄 및 육아센터	10	▪ 갈산면, 결성면, 광천읍, 구항면, 서부면, 은하면, 장곡면, 홍동면, 홍북읍, 홍성읍
생활문화 센터	11	▪ 갈산면, 결성면, 광천읍, 구항면, 금마면, 서부면, 은하면, 장곡면, 홍동면, 홍북읍, 홍성읍
작은 도서관	10	▪ 갈산면, 결성면, 광천읍, 구항면, 금마면, 서부면, 은하면, 장곡면, 홍동면, 홍북읍
체육시설	11	▪ 갈산면, 결성면, 광천읍, 구항면, 금마면, 서부면, 은하면, 장곡면, 홍동면, 홍북읍, 홍성읍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4. 예산군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술면(시산리), 대흥면(갈산리, 대를리, 손지리), 덕산면(낙상리, 둔리), 삽교읍(목리, 수촌리, 신리, 이리), 신암면(중경리, 탄중리), 예산읍(관작리, 대화리, 발연리, 산성리, 석양리, 신려원리, 예산리, 주교리, 창소리, 향천리), 오가면(신원리, 역탑리, 오촌리, 원천리, 원평리)
국공립도서관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덕면(용리), 대술면(시산리), 대흥면(갈산리, 대를리, 손지리), 덕산면(둔리, 시랑리, 신평리), 삽교읍(가리, 두리, 목리, 방아리, 삽교리, 상성리, 성리, 수촌리, 신가리, 신리, 안치리, 역리, 이리, 평촌리, 하포리, 효림리), 신암면(중경리, 탄중리), 예산읍(간양리, 관작리, 궁평리, 대화리, 발연리, 산성리, 석양리, 수철리, 신려원리, 예산리, 주교리, 창소리, 향천리), 오가면(분천리, 신장리, 양막리, 역탑리, 오촌리, 원천리, 원평리, 좌방리), 응봉면(주령리)
국공립어린이집(거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흥면(갈산리), 예산읍(대화리, 산성리, 예산리, 주교리, 향천리)
국공립어린이집(마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삽교읍(목리)
돌봄 및 육아센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삽교읍(목리, 수촌리, 신리, 이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시면(가덕리, 대리, 시목리)
체육시설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덕면(대천리, 몽곡리, 사리, 상장리, 석곡리, 용리, 굴곡리, 산정리), 대술면(굴곡리, 산정리, 시산리), 대흥면(갈산리, 대를리, 손지리), 덕산면(북문리), 봉산면(고도리, 구암리, 금치리, 당곡리, 대지리, 마교리, 봉림리, 시동리, 옥전리, 웅안리, 하평리, 화전리, 효교리), 삽교읍(가리, 두리, 방아리, 삽교리, 상성리, 상하리, 성리, 수촌리, 신가리, 안치리, 역리, 용동리, 월산리, 이리, 창정리, 평촌리, 하포리, 효림리), 신암면(귀곡리), 예산읍(관작리, 궁평리, 대화리, 발연리, 산성리, 석양리, 수철리, 예산리, 주교리, 향천리), 오가면(신석리, 원평리, 좌방리), 응봉면(계정리, 송석리, 주령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6	▪ 고덕면,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신양면, 응봉면
국공립 도서관	5	▪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신암면, 신양면
국공립 어린이집	10	▪ 고덕면, 광시면, 대술면, 대흥면, 덕산면, 봉산면, 신암면, 신양면, 오가면, 응봉면
돌봄 및 육아센터	11	▪ 고덕면, 광시면, 대술면, 대흥면, 덕산면, 봉산면, 신암면, 신양면, 예산읍, 오가면, 응봉면
생활문화 센터	12	▪ 고덕면, 광시면, 대술면, 대흥면, 덕산면, 봉산면, 삽교읍, 신암면, 신양면, 예산읍, 오가면, 응봉면
작은 도서관	11	▪ 고덕면, 대술면, 대흥면, 덕산면, 봉산면, 삽교읍, 신암면, 신양면, 예산읍, 오가면, 응봉면
체육시설	2	▪ 광시면, 신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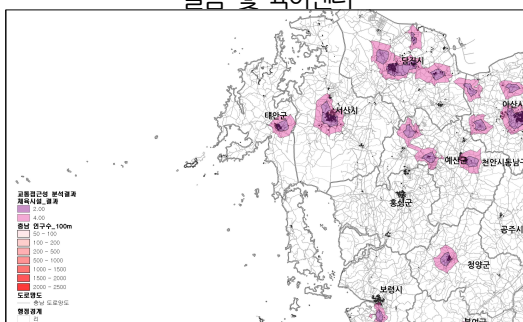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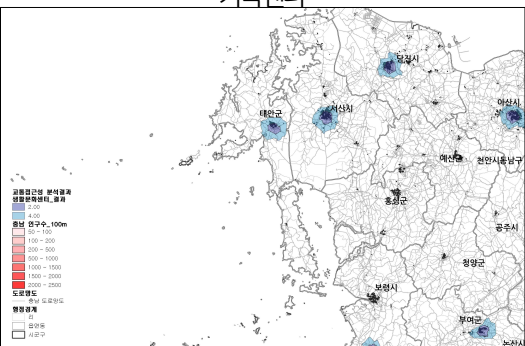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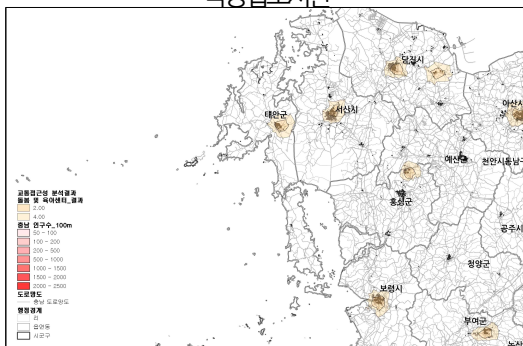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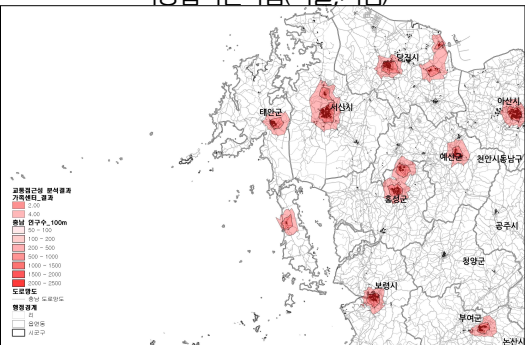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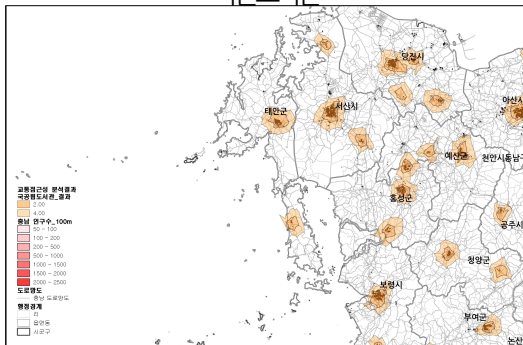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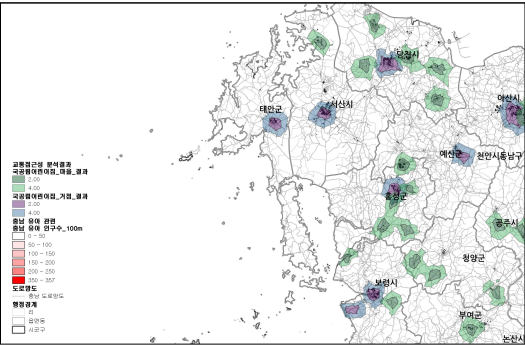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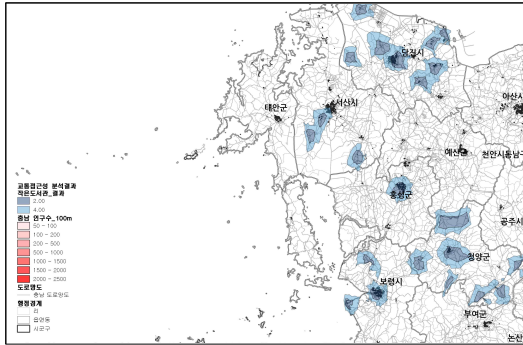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15. 태안군

1) 생활서비스 수혜지역(리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흥면(두아리), 안면읍(승언리, 정당리, 중장리), 태안읍(남문리, 도내리, 동문리, 반곡리, 삭선리, 산후리, 송암리, 인평리, 장산리, 평천리)
국공립 도서관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흥면(두아리, 수룡리, 안기리), 소원면(시목리), 안면읍(승언리, 정당리, 중장리), 원북면(양반리), 태안읍(남문리, 도내리, 동문리, 반곡리, 삭선리, 산후리, 송암리, 인평리, 평천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읍(남문리, 남산리, 동문리, 반곡리, 송암리, 장산리, 평천리)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및 육아센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흥면(두아리), 태안읍(남문리, 도내리, 동문리, 반곡리, 삭선리, 산후리, 상옥리, 송암리, 인평리, 장산리, 평천리)
생활문화 센터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흥면(두아리, 안기리), 남면(진산리), 태안읍(남문리, 남산리, 동문리, 반곡리, 삭선리, 산후리, 송암리, 인평리, 장산리, 평천리)
작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읍(남문리, 도내리, 동문리, 반곡리, 삭선리, 산후리, 송암리, 인평리, 평천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읍·면·동단위)

구분		생활서비스 취약지역
가족센터	5	▪ 고남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읍
국공립 도서관	2	▪ 고남면, 이원면
국공립 어린이집	6	▪ 고남면, 근흥면, 소원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돌봄 및 육아센터	5	▪ 고남면, 소원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생활문화 센터	5	▪ 고남면, 소원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작은 도서관	7	▪ 고남면, 근흥면, 소원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태안읍
체육시설	7	▪ 고남면, 근흥면, 소원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태안읍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읍·면·동)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부록 4] 19년 신규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추가 개선지역

1. 천안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천읍(덕전리, 신계리), 성환읍(안궁리), 입장면(흑암리), 직산읍(마정리, 부송리), 풍세면(미죽리)
국공립 도서관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면(송연리), 목천읍(덕전리, 동리, 서리, 석천리, 소사리, 송전리), 병천면(관성리), 북면(납안리, 매송리, 용암리), 성거읍(삼곡리, 신월리), 성환읍(와룡리), 입장면(호당리, 효계리, 흑암리), 직산읍(마정리, 부송리, 자은가리), 풍세면(미죽리, 삼태리)
국공립 어린이집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면(수남리, 행암리), 목천읍(남화리, 삼성리, 운전리, 자산리), 성거읍(문덕리), 성환읍(성월리, 와룡리, 학정리), 안서동, 입장면(유리, 호당리, 효계리), 직산읍(군동리, 군서리, 상덕리)
돌봄 및 육아센터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천읍(덕전리, 자산리), 성환읍(도하리, 안궁리, 와룡리), 입장면(산정리, 흑암리), 직산읍(마정리, 부송리, 양당리, 자은가리)
생활문화 센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세면(남관리, 삼태리)
작은 도서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덕면(보산원리), 목천읍(신계리), 부대동, 북면(양곡리, 연춘리, 용암리, 은지리, 전곡리), 성남면(신덕리), 성성동, 수신면(신평리), 안서동, 입장면(가산리, 도림리), 직산읍(상덕리, 자은가리)
체육시설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면(구도리), 목천읍(덕전리, 도장리, 삼성리, 서흥리, 석천리, 소사리, 송전리, 운전리, 응원리, 자산리), 병천면(송정리), 북면(연춘리), 성거읍(문덕리, 소우리, 송남리, 신월리, 천흥리), 성남면(신사리), 직산읍(마정리, 모시리), 풍세면(가송리, 미죽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공주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0	■ 검상동, 계룡면(화은리), 동현동, 석장리동, 오곡동, 우성면(내산리, 동곡리, 반촌리, 옥성리), 우성면(동곡리, 반촌리, 옥성리), 의당면(울정리)
국공립 도서관	18	■ 계룡면(화은리), 신평면(백룡리, 평소리, 화흥리), 신평면(평소리, 화흥리), 오곡동, 우성면(귀산리, 내산리, 대성리, 동곡리, 동대리, 목천리, 방문리, 보흥리, 옥성리), 월미동, 유구읍(구계리, 노동리, 입석리)
국공립 어린이집	9	■ 무릉동, 산성동, 소학동, 신평면(조평리), 우성면(귀산리, 반촌리), 월미동, 의당면(월곡리), 중동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13	■ 교동, 금학동, 반죽동, 봉향동, 산성동, 쌍신동, 우성면(귀산리, 목천리), 웅진동, 월미동, 의당면(수촌리), 중동, 중학동
작은 도서관	4	■ 계룡면(경천리, 화현리), 우성면(어천리, 용봉리)
체육시설	8	■ 동현동, 봉정동, 석장리동, 신기동, 우성면(귀산리, 도천리, 상서리, 평목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3. 보령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3	■ 남포면(소송리), 성주면(개화리), 요암동
국공립 도서관	13	■ 남포면(삼현리, 양기리, 옥서리, 월전리), 미산면(도흥리, 옥현리, 용수리, 평리), 성주면(개화리), 웅천읍(죽청리, 평리), 주산면(동오리, 유곡리)
국공립 어린이집	5	■ 남곡동, 오천면(교성리, 오폐리), 천북면(학성리), 화산동
돌봄 및 육아센터	5	■ 남포면(소송리), 성주면(개화리), 요암동, 주교면(주교리), 청리면(향천리)
생활문화 센터	9	■ 남포면(양기리, 월전리), 미산면(용수리), 웅천읍(관당리, 죽청리, 평리), 주산면(동오리, 삼곡리, 유곡리)
작은 도서관	5	■ 남곡동, 오천면(소성리), 주포면(연지리), 청리면(신산리), 청소면(아현리)
체육시설	7	■ 남곡동, 남포면(삼현리, 양항리), 성주면(개화리, 성주리), 요암동, 웅천읍(수부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4. 아산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7	▪ 둔포면(신왕리), 신창면(창암리), 염치읍(동정리, 쌍죽리, 중방리), 음봉면(동암리, 월랑리)
국공립 도서관	11	▪ 둔포면(봉재리, 신왕리), 배방읍(세출리), 염치읍(쌍죽리, 중방리), 영인면(신봉리), 음봉면(동천리, 신희리, 월랑리, 의식리), 초사동
국공립 어린이집	8	▪ 배방읍(갈매리, 중리, 회룡리), 신창면(수장리), 염치읍(석두리, 송곡리), 음봉면(월랑리), 점양동
돌봄 및 육아센터	12	▪ 둔포면(신왕리), 배방읍(공수리, 세교리, 휴대리), 염치읍(동정리, 쌍죽리, 중방리), 음봉면(동암리, 월랑리), 장존동, 좌부동, 탕정면(명암리)
생활문화 센터	8	▪ 배방읍(세출리, 수철리, 휴대리), 송악면(평촌리), 신창면(황산리), 염치읍(대동리), 초사동, 탕정면(호산리)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18	▪ 선장면(신덕리, 장곳리), 송악면(동화리, 외암리), 신창면(가내리, 궁화리, 신곡리, 오목리), 염치읍(강청리, 대동리), 영인면(백석포리, 신봉리, 신희리), 음봉면(동암리, 원남리), 인주면(냉정리, 도흥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5. 서산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8	▪ 성연면(해성리), 음암면(도당리, 부장리), 인지면(남정리, 애정리, 차리), 자곡면(장현리), 팔봉면(진장리)
국공립 도서관	17	▪ 고북면(가구리), 대산읍(기은리, 화곡리), 성연면(고남리, 오사리), 운산면(고산리, 수평리, 팔중리), 음암면(도당리, 부장리), 인지면(애정리, 차리), 장동, 팔봉면(금학리, 진장리), 해미면(관유리, 연암리)
국공립 어린이집	5	▪ 양대동, 인지면(둔당리, 야당리), 죽성동, 자곡면(환성리)
돌봄 및 육아센터	7	▪ 성연면(고남리, 오사리), 오남동, 음암면(도당리, 부장리), 인지면(성리), 팔봉면(진장리)
생활문화 센터	7	▪ 부석면(가사리), 성연면(일람리), 음암면(부산리, 상흥리), 인지면(남정리, 애정리), 장동
작은 도서관	3	▪ 고북면(장요리), 인지면(산동리), 죽성동
체육시설	7	▪ 성연면(갈현리, 평리), 음암면(신장리), 인지면(애정리, 차리), 장동, 팔봉면(어송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6. 논산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석면(득윤리, 중리), 부적면(덕평리, 반송리, 신교리, 탑정리), 상월면(대명리), 성동면(삼산리, 삼호리), 연산면(천호리), 은진면(방축리, 성덕리), 채운면(아화리, 용화리, 장화리)
국공립 도서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곡면(아촌리), 광석면(왕전리, 천동리), 벌곡면(수락리), 부적면(반송리, 부인리, 신교리, 탑정리), 상월면(대명리, 대우리, 상도리), 성동면(삼산리, 원남리, 원북리, 월성리), 은진면(성덕리, 시묘리, 용산리), 채운면(용화리)
국공립 어린이집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경읍(북옥리), 관촉동, 성동면(개척리), 양촌면(명암리, 석서리), 연무읍(동산리, 죽본리), 연산면(고정리, 송정리, 신암리, 신양리), 은진면(시묘리), 채운면(장화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촉동, 광석면(왕전리, 울리), 노성면(가곡리, 송당리), 상월면(대촌리, 석종리), 연무읍(동산리, 죽본리), 은진면(시묘리)
체육시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곡면(두월리, 아촌리), 광석면(왕전리, 이사리, 천동리), 부적면(덕평리, 반송리, 신교리, 탑정리), 성동면(병촌리, 정지리), 은진면(시묘리, 용산리), 채운면(용화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7. 계룡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마면(입암리)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마면(왕대리, 입암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8. 당진시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6	▪ 고대면(옥현리), 면천면(죽동리), 사기소동, 송산면(매곡리, 송석리), 송악읍(가교리, 고대리, 금곡리, 석포리), 순성면(성북리, 옥호리), 신평면(신송리), 정미면(대운산리, 덕마리, 신사리, 천의리)
국공립 도서관	11	▪ 면천면(울사리), 송산면(도문리, 송석리), 송악읍(금곡리, 봉교리, 정곡리), 순성면(봉소리), 신평면(신송리), 우강면(공포리), 정미면(덕마리, 신사리)
국공립 어린이집	11	▪ 고대면(당진포리, 용두리, 장항리, 진관리), 대호지면(장정리), 송산면(상거리), 송악읍(영천리, 신평면(상오리), 정미면(신사리), 합덕읍(도리, 석우리)
돌봄 및 육아센터	19	▪ 고대면(용두리), 면천면(죽동리), 사기소동, 송산면(매곡리, 부곡리, 송석리), 송악읍(가교리, 금곡리, 기지사리, 도원리, 복운리), 순성면(성북리, 옥호리), 신평면(신송리), 정미면(모평리, 봉생리)
생활문화 센터	7	▪ 고대면(슬항리), 면천면(죽동리), 사기소동, 송산면(매곡리, 부곡리, 송석리), 정미면(모평리)
작은 도서관	6	▪ 대호지면(도이리), 송악읍(도원리, 전대리, 정곡리), 순성면(나산리, 백석리)
체육시설	23	▪ 대호지면(도이리, 두산리), 면천면(울사리, 자개리, 죽동리), 사기소동, 석문면(삼화리), 송산면(당산리, 송석리), 송악읍(고대리, 금곡리, 도원리, 복운리, 석포리, 정곡리), 순성면(성북리), 신평면(신송리), 우강면(강문리, 내경리, 대포리, 소반리), 정미면(천의리), 합덕읍(신흥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9. 금산군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6	금성면(마수리, 화림리), 남일면(마장리), 제원면(명곡리, 명암리, 제원리)
국공립 도서관	14	군북면(동편리, 조정리), 금성면(두곡리, 화림리), 남이면(하금리), 남일면(마장리, 상동리), 복수면(백암리), 제원면(명곡리, 명암리, 제원리), 진산면(석막리, 오항리), 추부면(서대리)
국공립 어린이집	10	군북면(내부리), 금산읍(양지리, 음지리), 남이면(상금리), 복수면(수영리), 부리면(선원리), 제원면(금성리, 명곡리), 진산면(삼가리, 지방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4	금성면(파초리), 남이면(하금리), 부리면(선원리), 제원면(명암리)
작은 도서관	11	군북면(외부리), 금산읍(양지리, 음지리), 금성면(대암리, 양전리), 남이면(석동리), 남일면(황풍리), 부리면(선원리, 창평리), 제원면(금성리, 명곡리)
체육시설	8	금성면(두곡리), 남이면(하금리), 남일면(마장리, 상동리), 제원면(구역리, 명곡리, 명암리, 제원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0. 부여군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8	■ 규암면(모리, 신성리, 오수리, 함양리), 부여읍(송곡리), 장암면(북고리, 석동리, 정암리)
국공립 도서관	15	■ 규암면(모리, 신성리, 오수리, 함양리), 남면(화동리), 내산면(천보리), 부여읍(송곡리, 자왕리), 세도면(반조원리), 옥산면(신안리), 장암면(북고리, 석동리, 정암리), 충화면(지석리), 홍산면(무정리)
국공립 어린이집	3	■ 규암면(합송리), 세도면(가회리, 청포리)
돌봄 및 육아센터	9	■ 규암면(모리, 오수리, 함양리, 합송리, 합정리, 호암리), 부여읍(현북리), 장암면(북고리, 정암리)
생활문화 센터	9	■ 규암면(모리, 오수리, 함양리, 합정리), 부여읍(송곡리, 현북리), 장암면(북고리, 석동리, 정암리)
작은 도서관	3	■ 규암면(신성리), 은산면(장벌리), 초촌면(소사리)
체육시설	12	■ 구룡면(용당리, 죽절리), 규암면(부여두리, 신성리, 합정리), 부여읍(구아리), 세도면(귀덕리, 장산리), 은산면(내지리, 신대리, 화곡리), 장암면(합곡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1. 서천군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9	■ 기산면(산정리), 마서면(남전리, 월포리), 시초면(선동리, 선암리), 장항읍(옥남리, 옥산리), 중천면(석촌리, 지석리)
국공립 도서관	12	■ 마산면(나궁리), 마서면(당선리, 도삼리, 신포리, 월포리, 죽산리), 문산면(북산리, 은곡리), 시초면(선동리, 선암리), 중천면(당정리, 석촌리)
국공립 어린이집	6	■ 마서면(송내리), 서천읍(화성리), 장항읍(옥남리), 중천면(도만리, 산천리, 장구리)
돌봄 및 육아센터	13	■ 기산면(두남리), 마서면(옥북리, 죽산리), 문산면(북산리), 서천읍(동산리, 둔덕리), 시초면(선동리, 선암리), 장항읍(옥남리, 옥산리), 중천면(당정리, 석촌리, 지석리)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9	■ 기산면(원길리), 마서면(덕암리), 문산면(북산리), 서천읍(둔덕리), 시초면(선동리, 선암리), 장항읍(옥산리), 중천면(중천리, 판교면(흥림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2. 청양군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1	■ 청남면(인양리)
국공립 도서관	13	■ 대치면(광금리, 광대리), 목면(본의리, 송암리, 신흥리, 안삼리), 비봉면(방한리, 용천리), 운곡면(위리리), 장평면(적곡리), 정산면(남천리), 청남면(내작리, 인양리)
국공립 어린이집	10	■ 남양면(금정리, 백금리, 온암리), 장평면(미당리), 정산면(학암리), 청남면(아산리, 왕진리, 천내리), 화성면(신정리, 화암리)
돌봄 및 육아센터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13	■ 남양면(대봉리, 온암리), 대치면(수석리), 비봉면(양사리), 운곡면(위리리), 장평면(구룡리, 미당리, 화산리), 정산면(학암리), 청남면(아산리, 왕진리, 천내리), 화성면(매산리)
체육시설	7	■ 남양면(봉암리), 대치면(광금리, 수석리), 비봉면(방한리, 용천리), 운곡면(위리리), 화성면(신정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3. 홍성군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6	■ 구항면(공리, 내현리, 청광리), 금마면(송강리, 죽림리), 홍북읍(대인리)
국공립 도서관	7	■ 구항면(대정리, 오봉리), 은하면(대천리, 대판리, 덕실리, 장곡리), 장곡면(가송리)
국공립 어린이집	15	■ 광천읍(담산리, 웅암리, 운용리), 금마면(죽림리), 은하면(장척리, 화봉리), 장곡면(광성리, 지정리), 홍동면(월현리, 팔매리), 홍북읍(내덕리, 봉신리, 상하리), 홍성읍(내법리, 송월리)
돌봄 및 육아센터	8	■ 금마면(송강리, 신곡리, 죽림리), 홍북읍(대인리, 중계리), 홍성읍(내법리, 대교리, 소항리)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2	■ 장곡면(천태리), 홍성읍(학계리)
체육시설	2	■ 홍북읍(산수리, 석택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4. 예산군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8	▪ 덕산면(사천리, 시랑리, 신평리), 삽교읍(신기리), 신암면(오산리), 예산읍(간양리, 수철리), 오가면(신장리)
국공립 도서관	18	▪ 고덕면(구만리, 사리, 상몽리, 호음리), 대술면(산정리), 덕산면(낙상리, 사동리, 사천리), 삽교읍(상하리, 창정리), 신암면(계촌리, 오산리), 신암면(귀곡리), 오가면(내량리, 월곡리), 응봉면(계정리, 노화리, 입침리)
국공립 어린이집	6	▪ 대술면(사산리), 대흥면(대롤리, 손지리), 덕산면(둔리), 삽교읍(신리), 예산읍(발연리)
돌봄 및 육아센터	3	▪ 덕산면(둔리, 시랑리), 삽교읍(신기리)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15	▪ 고덕면(상몽리, 오추리, 자곡리), 대술면(농리, 상항리, 화천리), 봉산면(사석리), 신암면(계촌리), 예산읍(간양리, 신례원리), 오가면(분천리, 양막리, 역탑리, 월곡리), 응봉면(증곡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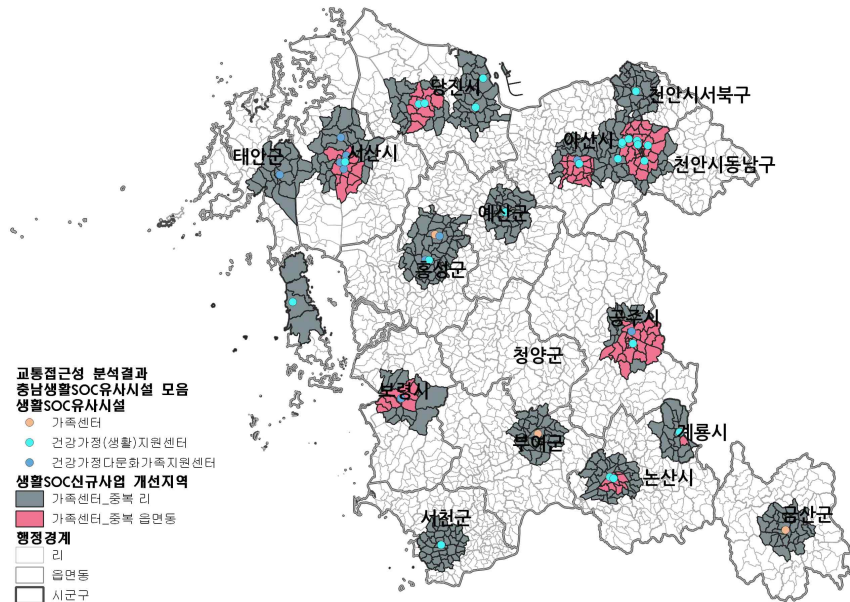
15. 태안군

구분	생활서비스 수혜지역	
가족센터	3	▪ 근흥면(안기리), 안면읍(창기리), 태안읍(어은리)
국공립 도서관	2	▪ 남면(진산리), 태안읍(어은리)
국공립 어린이집	1	▪ 태안읍(삭선리)
돌봄 및 육아센터	2	▪ 근흥면(안기리), 태안읍(어은리)
생활문화 센터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3	▪ 근흥면(두아리, 안기리), 태안읍(어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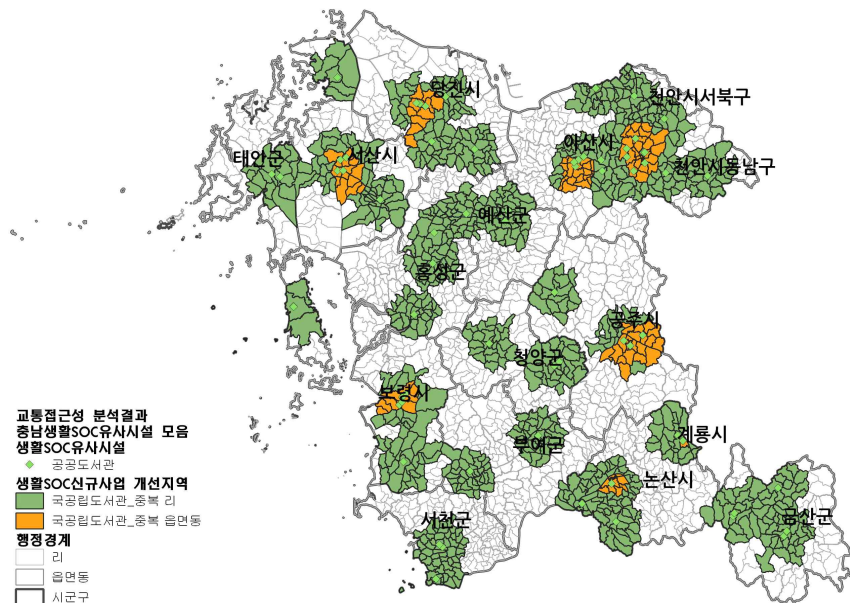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16. 19년 신규사업으로 생활서비스 추가 개선지역(유형별 도면, 행정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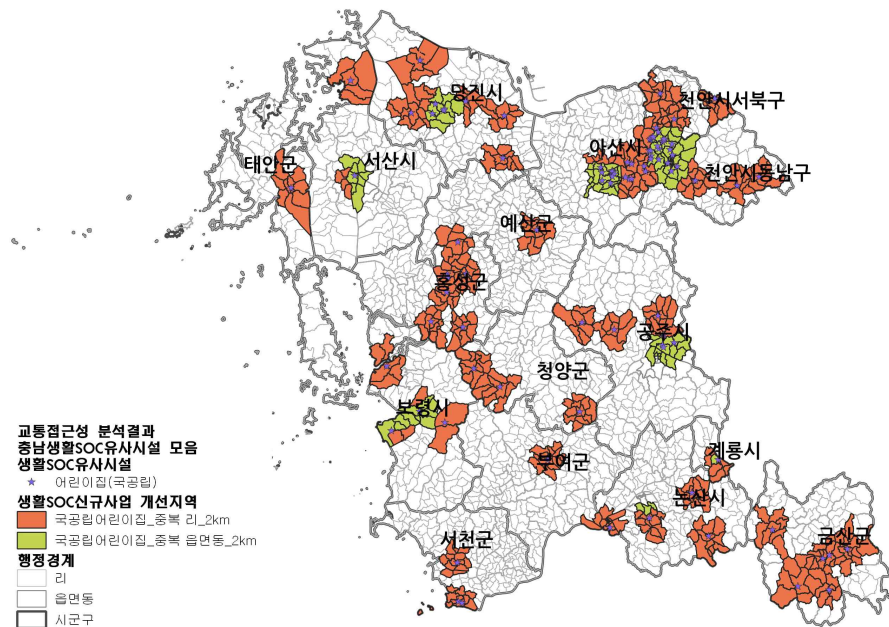
■ 가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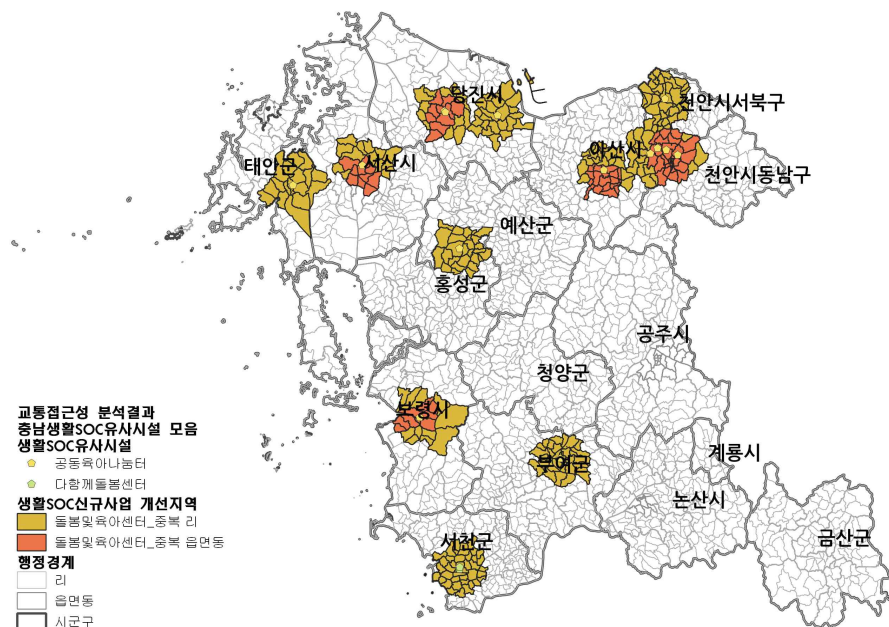
■ 국공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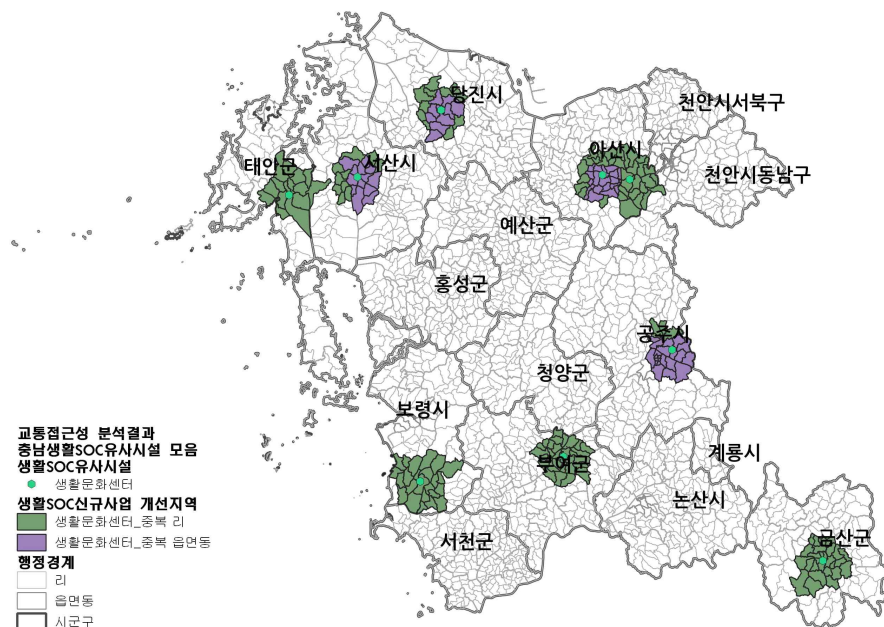
■ 국공립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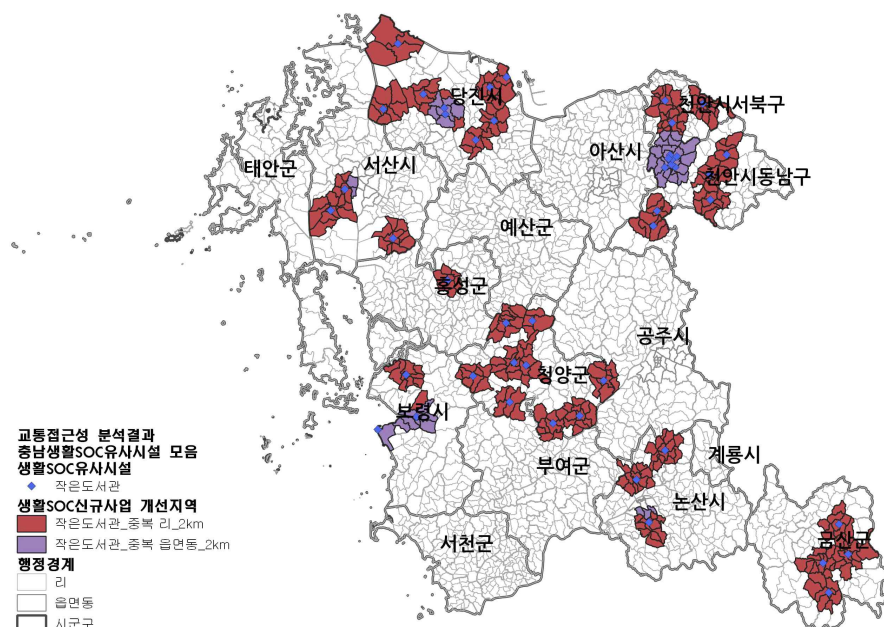
■ 돌봄 및 육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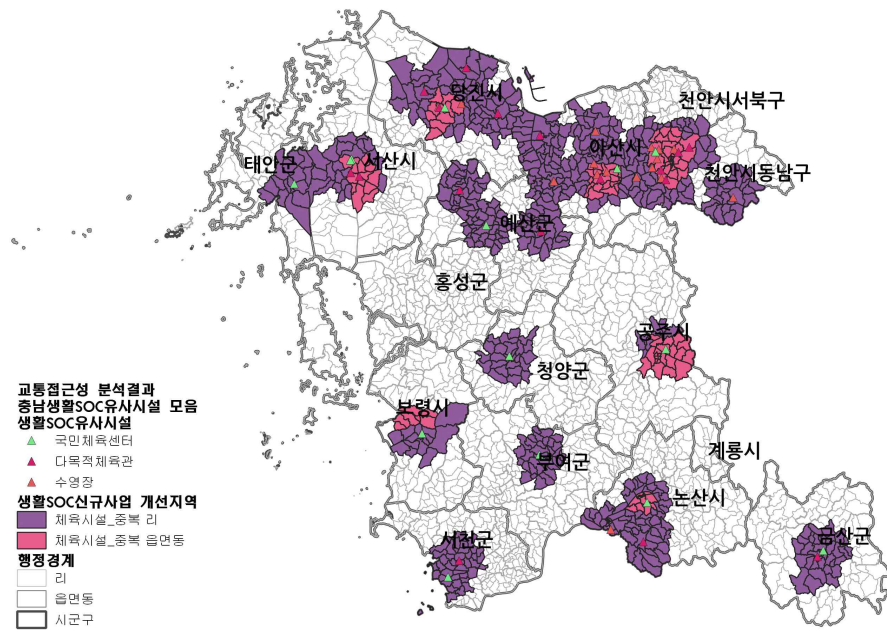
■ 생활문화센터



■ 작은도서관



체육시설



[부록 5] 충청남도 국공립어린이집 필요지역 및 신규 개선지역

1. 천안시

구분	생활서비스 필요지역	19년 신규사업으로 개선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천읍(고촌리, 남화리, 동리, 동평리, 서리, 신계리, 운전리), 북면(연춘리, 용암리), 성거읍(문덕리, 소우리, 송남리, 오목리, 오색당리, 저리, 정촌리, 천흥리), 성환읍(매주리, 성월리, 성현리, 율금리), 직산읍(군서리, 남산리, 삼은리, 상덕리, 수혈리, 양당리)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천읍(남화리, 신계리, 운전리), 성거읍(문덕리, 소우리), 성환읍(매주리, 성월리, 성현리, 율금리), 직산읍(군서리, 삼은리, 상덕리, 수혈리, 양당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2. 아산시

구분	생활서비스 필요지역	19년 신규사업으로 개선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둔포면(둔포리, 석곡리, 송용리, 시포리, 운교리, 운용리, 득산동, 배미동), 득산동, 배미동, 신창면(남성리, 수장리), 음봉면(덕지리, 동암리, 월량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득산동, 배미동, 신창면(수장리), 음봉면(덕지리, 월량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3. 서산시

구분	생활서비스 필요지역	19년 신규사업으로 개선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연면(고남리, 오사리, 왕정리, 일람리, 평리), 자곡면(무장리, 화천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4. 논산시

구분	생활서비스 필요지역		19년 신규사업으로 개선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7	연무읍(금곡리, 동산리, 마산리, 안삼리), 은진면(토양리, 채운면(심암리, 우기리))	2	연무읍(동산리), 은진면(토양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13	강산동, 관촉동, 광석면(산동리), 내동, 대교동, 덕지동, 등화동, 반월동, 부창동, 성동면(원봉리), 자산동, 취암동, 화지동	3	강산동, 관촉동, 내동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5. 계룡시

구분	생활서비스 필요지역		19년 신규사업으로 개선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6	금암동, 신도안면(남선리, 정장리), 엄사면(엄사리, 유동리, 향한리)	3	금암동, 엄사면(엄사리, 유동리)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6. 당진시

구분	생활서비스 필요지역		19년 신규사업으로 개선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15	송산면(가곡리, 금암리, 매곡리, 무수리, 삼월리, 상거리, 송석리, 유곡리), 송악읍(부곡리, 석포리, 오곡리, 월곡리, 정곡리, 중흥리, 원당동, 기탑리), 원당동	2	송산면(상거리), 원당동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7. 부여군

구분	생활서비스 필요지역		19년 신규사업으로 개선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				
국공립 어린이집 (거점)	11	부여읍(기탑리, 관북리, 구교리, 구아리, 군수리, 동남리, 석목리, 쌍북리, 왕포리, 정동리, 중정리)	3	부여읍(구교리, 군수리, 동남리)

주 : 생활 SOC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지역(동, 리)를 모두 포함한 결과임

[참고문헌]

- 구형수, 지방 인구절벽 축소도시 문제, 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하자, 국토정책 Brief, No.616, 2017
-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2014
-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201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안)
- 국무조정실,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 2019
- 국무조정실,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2019
- 김광선·이규천,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김정연,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13
- 김진범, 생활 SOC 사업의 이해, 2019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2018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 2019
- 네이버, 지식백과, 2019, <https://terms.naver.com>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건설정책리뷰, 2017
- 박세훈,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No.642, 2017
- 법제처, 2019, <http://www.law.go.kr>.
- 법제처, 국무총리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 관한 규정, 2018, <http://www.law.go.kr>
- 법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19,
<http://www.law.go.kr>
- 변필성,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2014
- 민주연구원, SOC 투자의 방향전환, 이슈브리핑, 2019
- 송인성, 독일의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정책, 지역과 발전 Vol 9,
2012
- 여혜진,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AURI, 2018
- 이제연, 생활 속(SOC) 균형발전, LHI 협치포럼 발표자료, 2019
- 이진원,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5
호, 통권 91호, 1996
- 이희연, 경제지리학, 법문사, 1989
- 임동일 외,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국토
연구원, 2011
- 위키 백과사전, 2019, <http://ko.wikipedia.org/wiki>.
- 조판기,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국토정책 Brief, No.456,
2014
- 정효성·이일형, 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
- 제인 제이콥스,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2010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2016
- Batten, David F., 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32(2)

Friedmann, J. & M. Douglass,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Pergamon Press, 1978

차미숙,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 정책 Brief, No.555, 2017

충청남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생활 SOC 사업 발굴, 2019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2019, <https://www.krei.re.kr/committee>

한국도시지리학회,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008, 국토해양부